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사우디아라비아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사우디아라비아 왕국(Kingdom of Saudi Arabia)
면적	2,149,690 km ² (자료원 : The True Size, 2022)
수도	리야드(Riyadh)
민족(인종)	
언어	아랍어
종교	이슬람교(수니파 90%, 시아파 10%)
기후	리야드 등 내륙 지역 : 일반적으로 고온 건조 제다 등 홍해연안과 담맘 등 걸프연안 : 고온 다습
국가원수	왕: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성스러운 두 사원의 수호자(The 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로 칭함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62-10-16 (자료원 :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사우디 경제기술협력협정	1975-01-19		
한-사우디 문화협정	1975-08-04		
한-사우디 항공협정	1984-01-21		
감천항 개발차관 협정	1984-01-27		
사우디에서의 한국의료단 활동에 관한 협정	1991-02-23		
한-사우디 항공운수소득면세협정	1991-07-18		
한-사우디 교육교류약정	1997-04-23		
한-사우디 투자보장협정	2003-02-19		
한-사우디 고등교육 협력 약정	2007-03-24		
한-사우디 IT 협력약정	2017-03-24		
한-사우디 이중과세 방지협정	2008-12-01		
국방협력협정	2014-02-09		
한-사우디 관광공예 분야 실행계획서 체결	2013-05-14		
한-사우디 창조경제 협력 약정	2015-03-03		
한-사우디 사증발급 간소화	2019-02-01	사우디 입국시마다 최대 90일 간 체류 가능한 5년 복수 비자 발급 및 비자비용 90달러 수준으로 인하	
한-사우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2018-07-19		
한-사우디 원자력협력협정	2012-08-04		

한-사우디 지식재산협력파트너십협정	2022-01-17	2년간 5개분야(IP생태계, 국가IP전략, 특허심사, 교육, 정보화) 35개 과제 추진 위한 11명 지식재산 전문가 파견
--------------------	------------	---

한국교민 수

3,200 명 (자료원 :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1962년 10월 16일 외교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사우디는 국제연합(UN), 비동맹회의(NAM) 등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 온 주요 우방국 중 하나이다. 양국관계는 1998년 압둘라 왕세제 방한, 1999년 前 리야드 주지사 살만(現 국왕) 왕자 방한, 2000년 제2부 총리 겸 국방장관인 술탄 왕자 방한과 더불어 2005년 이해찬 前 국무총리(8월, 11월)와 2007년 3월, 노무현 前 대통령, 2012년 1월 이명박 前 대통령, 2015년 3월 박근혜 前 대통령, 2022년 1월 문재인 前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의 상호방문으로 양국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 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안보정책 워크숍 개최

2014년 1월 16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FANS)와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안보연구원(IDS)의 제2차 외교·안보정책 워크숍이 개최됐다. 2012년 10월 리야드에서 열린 제1차 IFANSIDS 워크숍과는 다르게 이번 워크숍에서는 ① 한-사우디 양자 관계 평가, ② 동북아 및 걸프 지역 전략 환경 변화, ③ 한-사우디 경제협력 및 에너지 안보, ④ 한-사우디 관계의 미래 등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양국관계 현황을 진단하고, 한-사우디 관계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의 4대 교역대상국(‘12년 기준)으로, 1962년 10월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유엔, G20, 걸프협력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석유 등 에너지자원 확보에 있어 주요한 협력국이다.

○ 한-사우디 사증발급 간소화 MOU 발효

2018년 4월 서명한 '한-사우디 사증발급 간소화 MOU'가 2019년 2월 1일부로 발효됐다. 이에 양국 국민은 상대국 입국 시 최대 90일 체류 가능한 5년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간 1년 복수비자 기준 180만 원에 달하던 비자발급 수수료가 약 10만 원(90달러) 수준으로 인하됐다.

○ 사우디 의장국 자격으로 2020년 G20 온라인 정상회담 개최

사우디는 의장국 자격으로 2020년 11월 21~23일 이틀간 2020년 G20 온라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2020년 G20 정상회담 주제는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며, 킹 살만 국왕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치료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G20 국가 모두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적절한 가격으로 판매돼야 하며,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G20 정상회담은 2008년 시작되었으며, 사우디는 G20을 개최한 최초의 아랍국가이다.

○ 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 회담

2022년 7월 20일, 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파이잘 빈 파르한 알 사우드)이 방한하여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으며, 양측은 K-POP 등을 중심으로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 및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제

○ 사우디 비전 2030

2016년 4월 25일 사우디 정부는 'Saudi Vision 2030'을 발표했다. 사우디의 사회·경제·국가경영의 목표를 설정한 중장기 국가운영 계획으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는 것에 대비해 '제도 개혁', '경제전략 수립',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정책 로드맵과 세부 이행계획'이 주요 내용이다. 에너지, 조선, 방산, 보건의료, ICT 등 비석유 부문 제조업 육성을 통한 Post-Oil 시대 新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사우디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Saudi Vision 2030을 내걸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사우디 정부는 한국을 미국, 일본, 인도, 중국과 함께 'Saudi Vision 2030'의 5대 중점 협력국가로 지정했다. 한-사우디 비전 2030, 5대 협력 분야는 1. 에너지 및 제조업(Energy and Manufacturing), 2. ICT, 3. 인력양성(Capacity Building), 4. 보건의료(Healthcare and Life Sciences), 5. 중소기업 협력 및 투자 강화(SMEs and Investment)이며, 약 40개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양국 기업 협력강화를 위해 2017년 10월 1차, 2019년 4월 2차 한-사우디 비전 2030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개최되었다.

○ 제2차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 위원회 개최

2017년 1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 이어 2019년 4월 3일 서울에서 제2차 협력 위원회가 개최됐다. 성윤모 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Mohammed Al-Tuwaijri 사우디 前 경제기획부장관과 에너지, 제조, 스마트인프라, 보건의료, 중소기업 투자 등 총 40여 개의 양국 간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1차 협력 위원회 당시 합의된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제2차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되었으며, 한국기업 90개사, 사우디 20개사 등 총 110여 개사가 참가해 2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 제19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 개최

한-사우디 양국은 지난 2019년 12월 18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제19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9년 6월 모하메드 빈 살만(MBS) 왕세자 공식방한 시 양국 지도자 간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인적교류, 보건, 교육, 전자정부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공동위원회 본회의 이후 양국 수석대표(한국: 강경화 前 외교장관, 사우디 : Mohammed Al-Tuwaijri 前 경제기획장관)는 합의의사록에 서명했고, 양측은 에너지효율물질 연구협력 MOU,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연구협력 MOU 등 다수의 MOU를 체결했다. 공동위원회 이후 강경화 외교장관은 King Salman 국왕을 예방했으며, 양국관계 전반 및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에 중장기 금융지원 발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1년 1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에 약 3조 3,000억 원(30억 달러)의 중장기 금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사우디 국가 프로젝트 참여를 전제로 합의된 금융지원계약으로, 한국 기업 참여를 조건으로 해당 금액만큼의 해외사업 금융보험을 제공하게 된다. 이 보험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금은 한국 기업의 기자재 수출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되며, 이번 금융 제공을 빌미로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을 크게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사우디 경제계,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 개최

한-사우디 양국은 지난 2022년 1월 18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한-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을 개최하였다. 문재인 前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사우디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여 왕세자 별도 면담 후, 사우디상의연합 회장, 사우디 투자부 장관 등 주요 사우디 재계 인사와 한-사우디 경제협력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한국 재계 인사와 현재 진행 중인 한-사우디 협력사업을 검토함과 함께 미래먹거리인 수소 경제와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양국 협업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

◦ 사우디아라비아 내 한류동향

사우디는 약 3,500만 인구의 50%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모하메드 빈 살만(MBS) 왕세자의 문화개방정책으로 음악, 드라마, 영화, 공연 등 해외문화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월 아시아 가수로는 최초로 슈퍼주니어의 단독 콘서트가 사우디 제2도시 젠타에서 개최됐으며 전석(약 4,000석) 매진을 기록했다. 이후 2019년 10월에는 방탄소년단(BTS)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King Fahad International Stadium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전석 매진(약 30,000석)을 기록했다. 사우디 정보통신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8%인 약 2,300만 명이 Youtube, Facebook 등 SNS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슈퍼주니어, 방탄소년단 등 K-Pop의 인기가 높아지며 한류를 접하는 사우디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1970년대 각종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근면·성실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최근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선진국 수준에 속하는 편이다. 특히 2012년에는 중동 지역에서도 PSY 열풍이 불면서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사우디스타일'이 제작되고 신문에 가수 싸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이러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의 확대는 향후 사우디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와 한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한국-사우디 관광·공예 분야 실행계획서 체결

2013년 5월 14일, 술탄 압둘아지즈 빈 알-사우드 前 관광문화재위원장이 한국을 방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사우디 관광·공예 분야 실행계획서(Executive Program)를 체결했다. 체결된 실행계획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향후 의료관광, 공예상품 개발 등의 교류사업을 장려하고, 관련 분야의 정보와 전문가들을 교류하며, 향후 양국 개최 박람회 및 전시회에 상호 참가하게 된다. 체결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2013년 11월 24일, 유진룡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우디를 방문해 현지 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된 한국공예전에 참석했으며 술탄 위원장과 향후 양국 간 관광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번 체결안으로 인해 그동안 경제협력 중심으로 이뤄진 사우디와의 협력을 관광과 공예 등의 문화 분야로 확대해 한류 확산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사우디뿐만 아니라 여타 중동국가들과의 문화교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우디, 35년 만에 상업영화관 개장

2018년 3월 1일 사우디아라비아 문화공보부는 상업영화관 개장 영업면허를 발급했으며, 이에 맞춰 리야드 내 'AMC'와 'Vox Cinema' 두 영화관이 영업을 시작했다. 사우디는 1983년 종교적 이유로 상업영화관 운영을 금지하였으나, 2017년 무함마드 빈 살만(MBS) 왕세자 등극 이후 추진된 사회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35년 만에 영화관이 재개장하였다.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 사우디 전역에 총 350개의 영화관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사우디 인구(3,500만 명) 중 절반이 30세 이하의 젊은 층인 만큼, 관련 업계는 영화관 관련 사업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우디 여성 관광객 등 외국인 여성 대상 복장 규정 완화

2019년 9월 28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49개국 관광비자 발급과 함께 사우디 내무부는 사우디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성 관광객의 복장 등을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지 여성이 입는 목부터 발까지 가리는 검은색 옷, 즉 아바야를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입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다만, 성적인 자극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의 복장을 갖추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여성은 사우디에서 아바야 착용이 필수가 아니며, 어깨와 무릎을 가리는 단정한 복장 착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몸에 달라붙는 옷이나 이슬람 종교를 모독하는 글 또는 그림이 있는 옷은 착용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한다.

◦ 사우디 관광청 한국 사무소 개소

2021년 10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관광청이 한국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를 통해 일반여행자 관광유치 목적의 마케팅 및 국내 주요 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인지도 상승 및 인적교류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2022년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수교 60주년으로 서울시관광협회, 국내 여행사 주요 관계자와 양국간 관광 활성화에 대한 협업을 다지기도 했다.

- 한국-사우디, 32년 만에 직항 재취항

2022년 8월 16일, 32년 만의 한국-사우디아라비아 직항 노선이 재취항되었다. 직항노선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기인 사우디아항공 (SAUDIA)을 통해 매주 3회 운행되며, 직항을 기념하여 사우디아항공과 서울시는 '관광교류 활성화,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다.

- 사우디 프린스 술탄 대학교, 한국어 교육 세종학당 설립

202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 위치한 프린스 술탄 대학교에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설립 된다. 중동지역 내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사우디아라비아 간 문화 교두 보로 작용할 예정이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2.43	0.33	-4.14	3.2	
명목GDP (십억\$)	786.5	792.9	701.5	833.54	
1인당 GDP (PPP, \$)	49,157	49,216	46,810	55,370	
1인당 명목 GDP (\$)	23,538	23,266	20,178	23,510	
정부부채 (% of GDP)	18.9	22.8	32.4	30	
물가상승률 (%)	2.45	-2.09	3.43	3.1	
실업률 (%)	6	5.6	7.7	6.7	
수출액 (백만\$)	221,835	261,603	173,854	276,179	
수입액 (백만\$)	137,065	153,163	137,998	152,849	
무역수지 (백만\$)	84,770	108,440	35,856	123,330	-
외환 보유고 (백만\$)	497,384	499,576	453,655	429,497	
이자율 (%)	3	2.25	1	1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3.75	3.75	3.75	3.75	

〈자료원 : IMF, 사우디 중앙은행, 사우디통계청, CEIC〉

나. 경제 동향

사우디아라비아는 2021년 총 GDP 8,335억 달러, 1인당 GDP 23,510달러, 인구 3,500만 명으로 중동 내 주요 시장임과 동시에 GCC 최대 시장이다. 또한, 전 세계 석유의 약 16%가 매장돼 있는 세계 제2의 산유국이다. 오일, 가스 등 광물자원 관련 사업이 전체 GDP의 40%,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70년대부터 원유 수출에 따른 정부수익을 바탕으로 한 공공부문이 사우디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정부는 원유 세입 상당 부분을 원유 및 가스 개발뿐만 아니라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등을 통한 정부주도의 경제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SAUDI VISION 2030 발표 후, 비석유부문 성장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인프라 외에도 석유화학, 전력, 담수화, 교통(철도),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다.

1970년대의 오일머니를 소모성 예산지출, 군비 확충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사용했고, 그 결과 1980~1990년대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다. 사우디는 이런 어려움을 교훈 삼아 원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제조업 육성 및 비석유 부문 집중투자를 통한 산업 다각화 추진을 통해 오일머니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재검토하는 등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ARAMCO(국영석유회사), Maaden(국영광물회사), SABIC(석유화학회사), SEC(전력청) 등 주요 기업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영기업은 사우디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일자리 창출 및 주택 수요, 천연자원의 수요관리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1년 기준 사우디에는 약 1,500만 명(전체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정부는 Saudization 등 민간부문에서의 자국민 고용 증대를 위한 노동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 정부는 청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014년 6월 시작된 급격한 유가하락으로 인해 사우디 재무부는 재정수지 부족을 채우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활용했으나, 저유가 회복이 더뎠으며 국채발행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외환보유고는 4,295억 달러이며, 이는 2011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저유가 지속,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라 2017년 370억 달러, 2018년 260억 달러에 이어 2019년에는 32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했다. 국채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사우디 정부는 2020년 3월 국가채무 상한을 기존 GDP 대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IMF에 따르면 2009~13년 사우디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약 2~14% 수준이었으나, 2014년 이후 대폭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30%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2022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24.1%까지 인하하였다.

2021년 유가회복으로 사우디 정부의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18.9% 증가한 2,480억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고 재정지출 역시 전년대비 5.7% 감소하며 재정적자를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석유분야 수입이 정부 재정수입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구조적 특성상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회복되면서 연동된 것이며 이런 회복세를 바탕으로 2022년 1분기에는 6년 만에 첫 분기 재정 흑자를 달성하였다.

부가세는 기존 5%는 2020년 7월부터 15%로 증가했다.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비석유 부문의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Saudi Vision 2030 정책에 따라 2018년 최초로 부가세 5%가 도입되었으며, GCC 국가 중에서는 사우디와 UAE가 가장 먼저 도입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 정부 재정적자 심화로 수입원이 감소하며 2020년 7월부터 부가세 3배 인상(5→15%)을 결정했다. 2018년 부가세 5% 도입 이후 연간 12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했으며, 2020년 부가세가 15%로 인상되면서 세수 확보가 크게 증가하여 국가재정 개선에 기여하였다.

2017년 6월부터는 개별소비세(selective tax)를 실시해 담배와 에너지음료에 100%, 탄산음료에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expat fee)을 도입하였으며, 도입 시점에는 부양가족 1인당 매월 100리알 수준이었으나, 지속 상향 조정되어 2020년 7월 이후, 개별 외국인 근로자는 부양가족 1인당 매월 400리알을 부담하며, 사우디 내 활동 기업 역시 외국 근로자 1인당 매월 800리알을 부담하고 있다.

다. 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IMF에 따르면 사우디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3.2%로, 전년대비 7% 이상 회복세를 보이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플러스 전환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및 국제유가 급락, 보건비용 지출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021년 연초 이후 국제유가가 빠르게 회복되고 코로나19 역시 신속한 백신도입과 출입국, 주재국 내 이동 통제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안정화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평가된다. 국제 에너지정세가 지속적으로 불안하여 국제유가 역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주재국 내 주요 프로젝트들이 정상화되면서 2022년 경제성장률은 IMF에서 7.6%까지 평가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재정수지

사우디 정부 재정수지는 유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 2016년까지 사우디 정부 수입의 80% 이상을 석유분야가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 70%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국가 정책에 따라 의존도는 점점 낮춰갈 것으로 전망한다. 2021년 정부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18.9% 감소한 2,480억 달러였으며, 지출은 5.7% 감소한 2,706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인상을 단행한 수입관세, 부가세 등을 통한 세수확보도 큰 힘이 되었으나, 국제유가 회복으로 인한 효과로 국가 재정수지는 2022년 1분기에 6년 만에 흑자를 달성하였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처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석유분야에서의 재정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전년동기대비 비석유부문 재정수입도 18.2% 증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장동력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Areas, nes	231,583,682,679
2	중화인민공화국	43,454,696,758
3	일본	33,752,368,449
4	인도	28,984,956,545
5	대한민국	26,383,336,065
6	미국	25,312,802,116
7	싱가포르	11,266,909,325
8	아랍에미리트	10,598,001,768
9	Other Asia, nes	8,222,547,664
10	프랑스	7,882,874,256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Areas, nes	202,427,744,426
2	중화인민공화국	52,544,967,645
3	인도	28,134,952,258
4	일본	27,620,265,301
5	대한민국	22,003,092,093
6	미국	13,913,908,266
7	싱가포르	8,366,965,980
8	Other Asia, nes	7,538,136,985
9	프랑스	7,459,937,011

10	아랍에미리트	6,260,095,330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39,021,649,155
2	일본	18,413,267,518
3	인도	17,715,903,689
4	대한민국	15,978,694,566
5	미국	9,242,709,177
6	싱가포르	5,074,036,412
7	Other Asia, nes	4,868,776,471
8	타이	4,041,775,893
9	말레이시아	3,839,790,566
10	이탈리아	3,356,264,769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22,772,033,772
2	미국	19,902,448,997
3	아랍에미리트	13,035,557,253
4	독일	8,713,289,995
5	인도	5,966,545,810
6	일본	5,790,401,900
7	프랑스	5,753,274,566
8	대한민국	4,888,800,840
9	이탈리아	4,367,780,320
10	영국	3,280,511,581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27,734,099,113
2	미국	19,286,687,376
3	아랍에미리트	12,350,299,408
4	독일	7,608,860,831
5	일본	6,939,152,182
6	인도	6,845,273,542
7	프랑스	5,437,475,016
8	이탈리아	4,417,989,288
9	대한민국	4,190,154,261
10	캐나다	4,085,152,354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27,525,907,179
2	미국	10,142,693,765
3	독일	6,664,398,217
4	인도	6,101,339,075
5	일본	4,178,833,045
6	네덜란드	3,539,688,501
7	이탈리아	3,511,842,479
8	대한민국	3,264,180,229
9	영국	3,177,144,715
10	프랑스	2,565,751,896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31,751,375,532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85,928,033,764
3	271019	기타	13,436,725,023
4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2,085,044,833
5	390210	폴리프로필렌	5,840,087,240
6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5,411,408,658
7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5,159,728,388
8	290943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3,533,454,979
9	271113	부탄	3,271,361,268
10	271112	프로판	2,244,933,29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02,382,226,719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62,055,301,525
3	271019	기타	12,296,251,630
4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7,684,609,246
5	390210	폴리프로필렌	5,431,549,277
6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4,853,462,459
7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4,173,978,692
8	290943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2,821,760,324
9	271113	부탄	2,393,658,141
10	3901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2,220,288,600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05,452,837,228

2	271019	기타	6,635,989,549
3	390210	폴리프로필렌	3,545,346,880
4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3,490,316,126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471,048,637
6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2,849,423,003
7	290531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2,840,332,372
8	271113	부탄	1,820,319,213
9	3901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1,709,940,613
10	290250	스티렌	1,190,108,467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8,520,558,881
2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765,899,563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447,520,310
4	300490	기타	3,158,402,381
5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3,137,715,378
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080,121,236
7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896,141,816
8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2,320,216,035
9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2,076,774,301
10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590,032,889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8,641,509,565
2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076,263,555

3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5,033,543,669
4	870321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4,751,123,679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260,224,336
6	300490	기타	2,935,062,985
7	880330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2,489,535,629
8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2,330,870,730
9	871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1,866,601,991
10	890590	기타	1,811,561,89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030,506,621
2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003,862,164
3	300490	기타	1,931,518,459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583,223,674
5	271019	기타	1,485,939,491
6	100630	정미(연마 · 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1,347,405,346
7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1,214,813,007
8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041,603,525
9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034,149,319
10	848180	그 밖의 기기	1,005,054,636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3,952	26,336	-22,384
2019	3,697	21,841	-18,144
2020	3,302	15,980	-12,678
2021	3,325	24,271	-20,946
2022	3,008	28,411	-25,40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947	0	946
2	7461	선박	97	0	97
3	9701	무기류	79	0	79
4	7251	건설중장비	104	0	104
5	2140	합성수지	120	153	-33
6	6134	아연도강판	88	0	87
7	8413	접속기 및 차단기	124	0	123
8	3203	타이어	122	0	122
9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30	159	-129
10	7216	화학기계	6	0	6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722	0	722
2	7461	선박	249	0	249
3	9701	무기류	124	0	124
4	7251	건설중장비	98	0	98
5	2140	합성수지	96	74	22
6	6134	아연도강판	95	0	95
7	8413	접속기 및 차단기	93	0	93
8	3203	타이어	92	0	92
9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76	108	-32
10	7216	화학기계	73	0	7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21,321	-21,321
2	1334	나프타	0	1,153	-1,153
3	1335	중유	0	560	-560
4	2282	암모니아수	0	147	-147
5	6221	동괴및스크랩	0	234	-235
6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57	237	-181
7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4	82	-79
8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30	159	-129
9	2140	합성수지	120	153	-33
10	1350	LPG	3	26	-2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10	원유	0	25,287	-25,287
2	1334	나프타	0	1,288	-1,288
3	1335	중유	0	482	-482
4	2282	암모니아수	0	367	-367
5	6221	동괴및스크랩	0	215	-215
6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56	144	-88
7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0	130	-120
8	2130	석유화학합성원료	76	108	-32
9	2140	합성수지	96	74	22
10	1350	LPG	1	62	-6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자동차 부품		
HS Code	8708	수입액('21/US\$백만)	1,209
수입관세율(%)	5-12	대한수입액('21/US\$백만)	49
선정사유	완성차 기준 한국의 對 사우디 수출 1위 품목 부가세 인상 등 차량 장기이용으로 부품 수요 증가		
시장동향	- 유가회복 및 코로나 완화로 수요 증가 한국산 부품은 전년 동기대비 9.7% 감소		
경쟁동향	일본, 2021년 자동차 부품 수입 점유율 1위(24.4%) 주입, 점유율 독일, 중국, 미국, 태국 순		
진출방안	- 더운 현지 날씨 및 도로사정 운전습관 등을 고려한 주 요 교체 부품 위주의 소비자 마케팅 필요		
품목명 2	철강제품		
HS Code	7208	수입액('21/US\$백만)	990
수입관세율(%)	10-15	대한수입액('21/US\$백만)	58
선정사유	GCC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미분과 결정('21.9.2) 유가상승에 따른 건설 프로젝트 재개		
시장동향	'20년 기준 對 사우디 수출 2위 품목, 사우디 시장 점유율 15%('21년은 수출액 감소로 점유율 6%)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철강가격 상승		
경쟁동향	2021년 기준 중국이 수입시장 53% 차지 및 인도가 13% 차지		
진출방안	세계적인 물류난에 따른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필요 Tier-1급 유력 에이전트 발굴을 통한 납품 추진		
품목명 3	기초화장품		
HS Code	3304	수입액('21/US\$백만)	620
수입관세율(%)	5	대한수입액('21/US\$백만)	16
선정사유	한국 드라마를 통한 한국 브랜드 선호도 확산 한국산 화장품은 매년 수입금액 지속 증가		

시장동향	현지제조 없이 거의 모든 화장품 수입에 의존 20년 대비 전체 수입액 증가했으나,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		
경쟁동향	니베아, 올레이, 로레알 등 선진국 브랜드가 시장 주도 UAE에서 13%를 수입하나 이는 대부분 UAE를 통한 선진국 브랜드 수입이 대부분		
진출방안	이미 다수의 한국 중저가 브랜드 사우디 입점, 고급 브랜드 출시를 통한 차별화 마케팅 필요 한국 화장품법 등 K뷰티 관련 인플루언서 활용		
품목명 4	즉석식품		
HS Code	1902	수입액('21/US\$백만)	84
수입관세율(%)	5	대한수입액('21/US\$백만)	6
선정사유	드라마 및 먹방 영향으로 한국 즉석식품 관심 증가 사우디 인구 절반 이상인 청년층의 간편식 선호		
시장동향	현지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 출시 다수		
경쟁동향	2021년 전체 수입액 기준 이탈리아 27% 수입시장 점유율 차지 주요 경쟁국인 UAE 제외하면 2위는 쿠웨이트로 전체의 12.6% 차지(한국은 9.1%로 3위)		
진출방안	SNS 등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한국 식품의 현지 OEM을 통한 처번 확대		
품목명 5	필터 (정수여과용품)		
HS Code	8421	수입액('21/US\$백만)	826
수입관세율(%)	5	대한수입액('21/US\$백만)	67
선정사유	사우디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요 확대 석회질이 많아 가정에서 정수여과 용품, 생수 사용		
시장동향	현지 가전제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판매 중 코로나19 이후 대다수의 기업이 온라인 시장 판매 및 배송 확장하며, 전년대비 수입액 19.9% 증가		
경쟁동향	2021년 기준 미국 19%, 중국 13.7%, 독일 9.7% 수입시장 점유율 차지 한국은 11.3%로 3위 차지했으며, 현지 가전제품 연계로 수입시장 확장 중(전년대비 137.8% 증가)		
진출방안	현지인의 소비성향 파악을 통한 온라인 쇼핑 마케팅 강화 후관리 서비스 도입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와의 서비스 차별화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스마트시티
선정사유	정부주도 스마트시티 중단 프로젝트 재개 (NEOM, Qiddiya, Red Sea 등)
시장동향	NEOM, Red Sea 등 주요 프로젝트 필드로 직원주거시설 건설 및 각종 인프라설비 입찰 수주 진행 중 현재는 주요 인프라 입찰 진행 중이 며, 각 분야별 서브입찰 진행 전망
경쟁동향	정부주도 프로젝트 전체 계약의 70% 규모를 현지기업이 수주 중
진출방안	현지 파트너십 및 JV 가능한 무역사 회 다 및 전시회 이용하여 네트워킹 강화
품목명 2	재생 에너지
선정사유	태양열 에너지 등 순환 에너지 개발 재개 국가투자전략(NIS)에 따른 재생에너 지 해외 투자 추진 가능성 상승
시장동향	REPDO 주도의 태양광 에너지 프로 젝트 Round3 입찰 진행 중
경쟁동향	최저가 전략을 취함에도 현지기업에 게 입찰과 수주 기회를 주는 동향이 특히 증가하고 있음 현지기업과의 합작 컨소시엄 검토 후 는 현지 에이전트 통한 입찰전략 검 토 필요
진출방안	국가투자전략(NIS) 발표에 따라 해외 투자 기업 인센티브 추진 프로세스 예의 중시 현지 중장 재생에너지 기업 물색 및 협력 추진
품목명 3	플랜트 건설
선정사유	중단된 석유화학 가스 해양 플랜트 거점 프로젝트 활성화 및 국내기업 기 진출 활발
시장동향	NEOM, Riyadh 등 도시개발 및 Vision 2030 관련 중단 프로젝트 활 발하게 재개 중 비용 및 주거지 PPP 패키지로 입찰 추진 증대

경쟁동향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형태로 양분위 터프너스, 양분 4단계 해수담수화 플래트 건설 계약 체결 자성ENG, AGIC와 표로판 탈수소 및 8리터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 계 약 체결
진출방안	국내외 대형 EPC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 통해 표로판 참여 민관협력 프로젝트 확대 동향 주시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GAFTA(범아랍 자유무역지대)	GCC,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등 아랍연맹 17개국	1997-02-17	1998-01-01	
GCC-싱가폴 FTA	GCC, 싱가포르	2008-12-15	2013-09-01	
GCC-EFTA FTA	GCC, EFTA	2009-11-22	2014-07-01	

<자료원 : GCC 사무국 및 산업통상자원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GCC-뉴질랜드 FTA	뉴질랜드	FTA 체결	
GCC-레바논 FTA	레바논	FTA 체결	
GCC- 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FTA 체결	
GCC-말레이시아 FTA	말레이시아	FTA 체결	
GCC-인도 FTA	인도	FTA 체결	
GCC-중국 FTA	중국	FTA 체결	
GCC-일본 FTA	일본	검토 중	
GCC-호주 FTA	호주	검토 중	
GCC-요르단 FTA	요르단	검토 중	
GCC-인도네시아 FTA	인도네시아	검토 중	
GCC-파키스탄 FTA	파키스탄	검토 중	
GCC-한국 FTA	한국	FTA 체결	
GCC-EU FTA	EU	검토 중	
GCC-영국 FTA	영국	FTA 체결	

<자료원 : GCC 사무국 및 산업통상자원부, 언론 발표 종합>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사우디는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생필품, 소비재 등 완제품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종교, 안보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수입품 전반에 대해 엄격하게 이슬람 율법을 적용해 非 할랄 제품, 주류 및 관련 제품(알코올 함유 물품, 와인 잔류물 등)과 돼지고기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비롯한 사회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非 의료용 약품, 신체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광고를 사용한 제품이나 성인잡지 등 HS Code 8단위 기준 약 92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모조품이나 위조 상품들의 수입은 불가하며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된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개요

사우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소비자 보호, 종교 및 공공도덕 유지, 환경보호 및 비정상적인 거래방지를 위해 국내외 제품 여부에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품질표준을 정하고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표준은 국가기관인 사우디 표준청(Saudi Arabia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에서 수립하고 관리한다. SASO는 금지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한 표준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 WTO 가입과 함께 무역에 관한 WTO 기술장벽협약(TBT: Technical Barriers on Trade) 사항을 준수해 기술적인 표준을 정비했으며 관련 변경사항을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사우디 표준규정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인증제도의 운용은 수입상품의 경우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 국내 상품의 경우 자치부(Ministry of Municipalities),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와 상공부 등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사우디 내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을 제도화하면서 수출국 입장에서는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제도는 수입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상품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특별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국가적 특수 사정을 고려해 WTO에서도 합의한 사항이다.

2) 대사우디 수출인증제도: 강제 적합성 인증제도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수입상품을 비롯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해 사우디 규격과 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반입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가 수출품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 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이다.

○ 제도 개요

종전까지는 수출인증제도를 Inter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Program(ICCP)으로 명명하고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인증서(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Conformity: CoC)를 요구했다. ICCP는 1995년 11월 최초 76개 품목 카테고리에 적용 후, 1998년 8월에는 적용 품목을 단순화해 식품(별도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완구, 오락장비를 추가해 총 66개 카테고리로 정비했으며, 다시 2001년 8월에는 자동차부품, 가스 조리기구, 휴대폰 등을 추가하면서 총 69개 품목 카테고리로 ICCP를 운영해왔다. ICCP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Intertek Testing Services)에서 인증서를 관장했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상공부 시행령 제6386조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해 적용품목을 의료기구, 의료용품, 식품, 군 관련 제품 등 4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제인증제도(ICCP)를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를 도입했으며, 주무부서도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에서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 MoCI)로 상위 이관돼 현재 운영 중이다. 사우디 정부는 2006년 5월 새로운 규정에 의거 사우디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CoC)를 첨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는데, 한국기술표준원(KATS)은 발 빠르게 사우디 표준청(SASO)과 협의를 거쳐 2008년 6월 KATSSASO MRP(상호인정 프로그램)를 체결해, 한국기술표준원의 KOLAS 등록 인증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용기로 했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2008년 12월 적합성 인증서 발급기관 지정 내역을 사우디에 통보했다. 당시 MRP 체결로 인해 양국의 기술장벽(TBT)이 낮아지고, 무역이 원활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는 외국 수출업체들에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사우디 측은 해당 인증제도가 수입규제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보호 등과 관련되고 모든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수입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 인증 대상 품목(Regulated Products)

2004년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는 모든 소비재 상품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소비재 상품의 경우에도 표본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 품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기자재, 임시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 통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좋으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현지 하역 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Food), 화장품 등은 사우디 식약청(SFD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수출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사우디 상품 적합성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검사도 보다 강화되고 있어 사우디 수출 전 해당 품목의 인증 여부가 필요한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4) 인증취득 방법 및 절차

ICCP 폐지 이후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서를 첨부하면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인증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기관의 Test Report, Certificate, L/C 사본 혹은 Contract Sheet, 구매의뢰서(PO: Purchase Order), 선적서류(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등이 있다.

5) 사우디 표준청, 사우디 수입안전관리 프로그램(SABER) 도입

사우디 표준청(SASO: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제품안전 프로그램인 'SALEEM(Saudi Product Safety Program)' 구현을 위해 온라인 인증 시스템인 'SABER'를 도입했다. 'SABER'는 기존의 사우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품의 품질 및 적합성 검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SABER'를 통한 제품 증명서(PCoC) 및 선적 인증서(SCoC) 발급은 사우디 수출 전 필수 서류이며, 제품 적합성 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1년이다. (<http://saber.sa>) SABER 등록은 현지 사업자등록증(CR, Company Registration)을 보유한 사우디 기업만 가능하며, 현지기업이 SABER 플랫폼에서 수출국 인증 대행기관을 지정하면 수출업자는 지정된 대행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 등 추가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국내 SABER 등록 대행기관은 Intertek Korea, TUV,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이 있다.

o 제품인증서(PCoC) 발급 절차

- ① (수입업자) SABER에 제품 정보 등록
- ② (수입업자) SABER에서 인증기관(Certificate Bodies, CB) 선정

- ③ (수입업자) PCoC 수수료 납부
- ④ (인증기관) SABER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입업자의 요청 확인
- ⑤ (인증기관) 수출업자에 인증에 필요한 관련 서류 요청
- ⑥ (수출업자) 인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공
- ⑦ (인증기관) 제품 서류 SABER에 등록
- ⑧ (수입업자) SABE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품인증서(PCoC) 발급

o 선적인증서(SCoC) 발급 절차

- ① (수입업자) SABER에 온라인 선적인증서(SCoC) 발급 신청
- ② (인증기관) 제품에 대한 제품인증서(PCoC) 유효여부 확인
- ③ (인증기관) 선적물품 확인
- ④ (인증기관) 제품인증서(PCoC), 인보이스정보(날짜, 금액, 수량, 총액 등) SABER에 등록
- ⑤ (수입업자) 선적인증서(SCoC) 수수료 납부
- ⑥ (수출업자) SABER 통해 온라인으로 선적 인증서(SCoC) 발급

o 제품인증서(PCoC) 필요서류 : 제품 기본정보(품명, 모델명, HS Code, 사진, Rating Label, Barcode 등), 제품 위험분석 보고서, 사업 자등록증, 품질증명서(ISO 9001 등), 제품 설명서(아랍어 필수 및 영어), 기술시험 성적서 등

o 선적인증서(SCoC) 필요서류 :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L/C(해당 경우에 한함)

TBT

사우디는 2005년 WTO에 가입하면서 WTO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를 재개정할 때 WTO 사무국을 통해 다른 WTO 회원국에 통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 기구(SASO: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www.saso.gov.s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연중 고온의 환경적인 요인과 막대한 보조금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로 에너지 절약이라는 생활의식의 부재에 따라 에너지 낭비가 심각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제도(SEEP)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과거 TBT 관련 이슈로 지난 2013년 9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기구(SASO)에 의해 에어컨을 대상으로 하는 ‘Energy Labelling and Minimum Energy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Air Conditioners’라는 에너지 소비효율(EER) 라벨링 규정안(SASO 2663/2012)이 발효됐다. 해당 규정은 에어컨의 종류와 냉방 능력(Cooling Capacity)에 따라 구분된다. 적용 대상은 창문형, 분리형, 기타 에어컨들이며, 사우디 당국은 구 기준안(SASO 2663/2007)에 따른 EER 라벨링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유효기간은 총 2년 주어졌으며, 이후 새로운 EER 허용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에어컨의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입은 금지됐다. 이후 단계적으로 2013년 9월 7일 이전에 수입되거나 제조된 제품들의 판매는 2014년 1월 1일 이후 판매가 금지됐으며, 2015년 1월 1일부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우디 시장에서 수입과 판매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에 따라 사우디로 에어컨을 수출하기 위해선 새로운 EER 라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취득을 위해 공인 기관에 의해 안전성 테스트를 포함한 검사결과를 시행 제출해야 하며,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2013년에 제정된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에 관련된 표준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새로운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수입이 금지됐고, 2015년 3월 1일부터는 판매가 금지됐다. 2018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사우디는 세탁기, 건조기에 부착해야 하는 에너지효율 인증정보(일련번호) 표기 요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2014년 11월에 사우디 표준청(SASO)은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한 30여 개의 자동차 제조사와 자동차 연비 기준 제정 관련 MOU를 체결했고, 이 MOU 체결은 사우디 정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자동차 연비향상을 위해 2016년 이후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 2종에 대한 연비 기준을 제정하면서 자동차 제조사의 참여를 유도했다. 2018년부터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제조기업 평균연비표준(CAFE)을 기준으로 사우디 표준청이 제정한 제조기업별 자동차 연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 금지조치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에너지효율프로그램(SEEC)을 통해 2025년까지 자동차 평균연비를 리터당 19Km 이상으로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5월 1일에는 조명기구의 에너지 효율, 기능 및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조명인 램프가 강제 인증대상이 돼 2단계로 적용됐다. 1단계(2016년 5월 1일)는 60W 이상의 전력을 가진 램프, 제2단계(2017년 5월 1일)는 모든 종류의 램프가 적용 대상이며 백열등, 밸러스트 내장 콤팩트 형광등, 할로겐램프, LED 램프(백열등, 할로겐램프 개조 타입) 등이 주요 품목이고, 2022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 주의사항

프로젝트 관련 기자재 납품 시 자금출처 또는 인보이스나 계약서상의 금액만큼 수입자가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증명서를 첨부해야 제품을 인수할 수 있는 규정이 갑자기 생긴 사례도 있다. 현지 사정에 따라 별도의 공지 없이 새로운 규제들이 시행되고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한 설명 없이 불특정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한다. 따라서 통관, 판매, 유통 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수시로 우리 기업들은 세관 당국 및 관련 부처나 현지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또는 현지 언론을 통해 수입규제와 관련된 소식이나 정보를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기타

최근 GCC 장관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에서는 상설위원회의 최종 안(제38/45/2021호)을 검토한 끝에 GCC관습법 제8조 규정에 따라 특정 철강제품에 대한 GCC로의 수입 관련 세이프가드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021.9.2). 세부적으로는 아연도금 및 페인트 강판, 철근 등이 해당된다.

(해당 HS CODE :

721030,721049,721069,721220,721250,721230,721260,722591,722592,722599,721240,721310,721320,721391,721399,721410,721430,721510,721550,721590,721710,721720,721730,721790,722100,722300,722920,722990,722710,722720,722810,722820,722840,722850,722860,721491,721499,722211,722219,721610,721631,721631,730110,730810,721621,721650,730120,730431,730539,730590,730661,730690,730840,730890)

도금철강판에 적용되었던 세이프가드는 2021년 5월 14일까지로 부과기간이 종료하였다.

◦ 2016년 6월 9일 조사개시, 2018년 4월 19일 최종 판정에 이어 당해년도 5월 15일부터 1년간 USD 169 / 톤 부과, 이듬해 추가 1년간 USD 153 / 톤 부과, 2020년 5월 15일부터 1년간 USD 137 / 톤이 부과되었으며 3년간 부과 조치가 완료되었다.

(해당 HS CODE : 721070, 721090)

납축전지(자동차배터리)에 적용되었던 반덤핑은 2022년 6월 24일까지로 부과기간은 종료하였으나, 현재 Sunset Review를 진행 중에 있다. 해당 리뷰를 통해 반덤핑 관세의 최종 영향을 로컬 업체의 의견 수렴 및 GCC 기술사무국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세 유지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되며, 2023년 3월 결과 발표 예정이다. Sunset Review 기간에는 동일하게 관세가 부여된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세는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 제20조에 의거, 내각에서 세율을 결정하고 왕령에 의거 확정되는데, 관세 적용 품목의 분류는 HS 2002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HS 8단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국 유치산업 보호, 건강 관련 일부 특수 품목의 경우 고관세를 적용(대추야자 40%, 담배 100%)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0~25%로 구분된다.

2020년 6월 20일부로 사우디는 약 1,390여 개 품목의 관세를 인상했다. 5월 27일 발표하고, 6월 10일 적용 예정이었던 관세인상 품목은 총 2,290여 개였으나, 6월 20일 최종 발표 시 1차 발표(5.27)보다 약 900여 개의 품목을 축소했다. 특별보호 산업을 제외한 일반 제품의 관세는 기존 0~15%였으나, 6월 20일 관세인상 이후 5~25%로 높아졌다. 한국의 對 사우디 수출 1위 품목의 자동차(HS Code 8703)의 관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5%이지만, 이 외 전력 기자재(케이블, 변압기 등), 프로젝트 기자재(밸브, 파이프 등), 가전(에어컨, 세탁기 등), 시멘트, 섬유, 철강(비합금강, 연연, 후판, 냉연, 봉강, 선재 등) 제품의 관세가 5~15%p 내로 인상됐다. 특히 철강 제품의 관세 인상이 급격히 증가해 평균 5%의 관세가 8~20%로 증가했다.

또한 2022년 6월 12일부 사우디는 추가적으로 주요 수입품목 99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 0-20% 관세에 대해 품목당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15%까지 인상폭 적용했다. 품목은 주로 농수산물에 집중되었으나, 일부 화학제품 및 기계류의 경우 우리기업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번 인상에는 인상 이유를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와 육성으로 명시한 것에 기인

하여 점차 로컬 콘텐츠 소비 장려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기준 현지생산 불가품목에 대한 관세 환급 제도는 유지 중이지만, 과거 관세인상 조치처럼 정부 발표, 언론보도 등 사전 안내 없이 긴급 발표 및 적용의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인상된 관세율 리스트는 사우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https://www.customs.gov.sa/ar/Integrated-Tariff> / Google Chrome 사용 필수)

한편, 걸프 지역 국가나 아랍국가들에서 40% 이상의 가치가 부가된 상품의 경우, 국산품으로 인정해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관세행정의 미비 등으로 최저 관세, 관세부과 가격산정, 관세환급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래 관세는 송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가격 기준 또는 국내 제조업자와의 상의 등을 통해 최저 수입 가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 세관원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수입 시에는 관세 및 통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별도 부담금은 없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사우디아라비아 수입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sa>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관세율은 Item No. HS Code(8단위), Description, Unit, Duty Rate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수입금지품목도 확인할 수 있다. 수입금지품목, 관세 관련 법령정보, 계절관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관세율은 Item No. HS Code(8단위), Description, Unit, Duty Rate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데 8자리 HS Code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그러나 관세청 Contact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활용 시 담당자 연결이 매우 어렵고 이메일은 거의 회신을 하지 않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 관세율 검색 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http://www.customs.gov.sa>
- ② English Version 선택
- ③ 홈페이지 상단 Integrated Tariff 선택
- ④ 홈페이지 중간 Search in Tariffs 선택
- ⑤ Search For: HS Heading으로 설정 후 HS Code 4자리 입력 후 관세율 조회

주1: 인터넷 브라우저는 Google Chrome만 사용 가능(Internet Explorer 사용 시 조회 불가)

주2: HS코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제품이 없는 경우 최초 4자리 검색을 통해 관련 제품 검색방법이 유용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는 서쪽 홍해와 동쪽 아라비아만에 위치해 있다. 서해안인 홍해는 수에즈운하를 지나는 길목에 위치해 있으며, 동해안인 아라비아만은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대부분의 석유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우디의 주요 항구로는 서해안의 안부에 위치한 King Fahad Industrial Port Yanbu 및 Yanbu Commercial Port와 젯다의 Jeddah Islamic Port, 동해안의 주바일에 위치한 King Fahad Industrial Port Jubail 및 Jubail Commercial Port와 담맘의 King Abdulaziz Port 등 총 9개의 항구가 있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 사우디 항만청(Saudi Ports Authority)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총 물동량은 262,316,914톤으로 전년대비 1.79% 감소하였다. 이는 2019년도 코로나19가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은 안부에 위치한 King Fahad Industrial Port Yanbu(총 물동량 83.7 MT, 벌크화물 83.6 MT)이며, 전년대비 물동량은 0.38% 증가했다. 주바일 King Fahad Industrial Port Jubail(총 물동량 64.7 MT, 벌크화물 64.6 MT)은 전년대비 5.1% 감소, 젯다의 Jeddah Islamic Port (총 물동량 55.2 MT, 벌크화물 6 MT, 일반화물 1.4 MT)는 전년대비 0.55% 증가, 담맘의 King Abdulaziz Port(총 물동량 33 MT, 벌크화물 11.1 MT, 일반화물 2.7 MT)로 4.31% 증가했다. 비교적 물동량이 적은 주바일의 Jubail Commercial Port(총 물동량 11.1 MT, 벌크화물 1.4 MT, 일반화물 0.6 MT)는 전년대비 22.68% 감소, 안부의 Yanbu Commercial Port(총 물동량 3.7 MT, 벌크화물 3.6 MT)로 전년대비 9.23% 감소했다.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사우디의 주요 국제공항은 4개가 있다. 일부 지역의 국내공항에서도 국제노선이 있기는 하지만 대도시 위주로 국제선이 연결되어 있다. 연간 이용객과 항공 물동량이 가장 많은 공항으로는 수도 리야드의 킹 칼리드 국제공항(King Khalid International Airport : RUH)를 비롯하여 젯다의 킹 압둘아지즈 국제공항(King Abdulaziz International Airport : JED), 담맘의 킹 파드 국제공항(King Fahd International Airport : DMM) 이다.

○ 주요 공항 물동량: 사우디 민간항공청(General Authority of Civil Aviation)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우디 공항의 총 물동량은 653,000톤으로 전년대비 71.3%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전년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기 운행 급감 및 글로벌 경기 불황에 따른 감소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GACA에서는 SAUDI VISION 2030에 맞춰 2030년까지 총 450만 톤의 물동량을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유의사항

예멘 반군 등에 의한 국지적 도발은 2022년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 타켓을 공항, 정유시설, 인프라 등 지역별 주요 설비로 두고 있으며 아랍코 정유시설, 공항 등이 이미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다행히 드론공격을 적시 발견 및 피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는 있으나 꾸준히 시도되는 공격으로 인해 특히 예멘 인접 지역의 물류 인프라, 산업단지 등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 기타 참고사항

사우디 정부는 탈석유 및 경제다각화를 위하여 Vision 2030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물류와 운송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재개되며, 현재는 메카/메디나를 중심으로 국한된 고속철도 등 인프라도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 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통관 시 절차가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통관이 쉽지 않지만 정부 주도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류 절차 등 요구되는 부분의 간소화를 통해 업무환경을 많이 개선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상위권 국가들의 경우 수출통관에 12.7시간, 수입통관에 8.5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MENA(중동,북아프리카지역) 평균은 수출 52.5시간, 수입 94.2시간으로 여전히 극악한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사우디의 경우 수출통관에 37시간, 수입통관에 72시간으로 MENA 평균에 비교하면 준수하지만 여전히 수입통관 부분에서의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통관업무 수행기준이 통관 담당자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고, 아직 정책 및 규정의 변경사항을 공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수출 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이런 연유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수출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다소 수월한 편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주기적으로 통관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관에도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데 소비재 물품의 경우 제품 포장 및 디자인 등에 대한 검토가 까다롭고, 특히 돼지고기와 그 기름이 포함된 식품이나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식품, 주류 등은 통관이 불가하다. 이슬람 문화에 반하는 디자인이 포함된 소비재에 대해서는(소비재 역시) 통관이 매우 까다롭다. 또한, 통관 시 담당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박람회 전시되는 물품 또는 견본제품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거나 통관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일어나기도 한다.

2) 수입신고

상품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하역하고, 수입상은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작성한 후 선하증권(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C/O), Packing list 등을 첨부해 세관의 Documentation Department에 제출한다.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상품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세, 가격, 중량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3) 물품검사

물품검사는 샘플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수입제품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해 수입금지품목 여부, 수입신고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수입신고서와 기재 내용이 다르거나 품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통관을 거부하거나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수입금지품목이나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통관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입금지 품목 검사에서 적발됐을 경우 검사에 발생하는 경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무작위로 폭발물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며 이때 추가 조사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현지 통관 기간을 여유롭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4) 통관 절차

기본적인 통관 절차는 "상품 도착 → 세관창고 하역 → 통관서류 제출 → 시스템 등록"이다.

- FCL의 경우: 상품검사 및 관세부과를 위해서 상품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옮긴 후 샘플링검사 → 관세부과 → 관세납부 → 통관완료
- LCL의 경우: 상품검사 → 관세부과 → 관세납부 → 통관완료

상품이 도착해 지정된 장소에 하역되면 수입상(혹은 통관업자)은 BILL OF ENTRY에 수입상품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세, 가격, 중량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후 B/L, C/O, P/LIST, COMMERCIAL INVOICE 등과 함께 세관 DOCUMENTATION DEPARTMENT에 제출한다. BILL OF ENTRY 및 CLEARANCE ORDER에 서명하고 수입상은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통관이 완료된다. 관세가 납부된 상품은 통관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관 정문에서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지시하에 재검사를 요구받을 수도 있다.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약 5일이 소요되며, 세관 업무시간은 8:00~14:30이고 금, 토요일은 휴무이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보세구역이 없다.

5) 세관 제출서류

- 원산지증명서 3부(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INVOICE(상공회의소 인증 필요)
- BILL OF LADING
- 보험증명서(CIF의 경우)
- 수입검사인증서(SASO 적합 인증서)
- 유전자변형식품 시 GE 마크 필히 부착
- 위생검사서(SFDA 인증서/의약품, 식품인 경우에만 해당)

통관 시 유의사항

1) 통관 시 유의사항

주류(알코올), 돈육 및 그 성분의 함유제품은 수입금지품목이므로 식품,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동 성분이 포함 여부 및 가능 비율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손목시계, 액세서리 등은 샘플이라도 과세 통관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양이 많은 샘플의 경우 통관이 어렵다. 방사선동위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관련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업만 취급할 수 있으므로, 통관 시 취급 및 운송이 가능한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을 선정해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유통을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의 인증이 필수이다. 아울러 Label 부착은 각별한 유의를 요하는 분야로 특히 식품류, 개인위생 구류, 의약품 라벨은 SASO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 수출업자로 등록된 경우 1년 이상 수출입 절차가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사소한 사안이라도 유의해야 한다.

중고자동차는 수입통제품목에 포함해 엄격한 통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0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5년 이상이 경과된 중고승용차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5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관은 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통관 시 문제가 될 경우, 수출품을 수출국이나 제3국으로 백ship 방법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2) 최근 이슈

- 통관규정 변경

2012년 말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은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의 대 테러단체 유입감시를 목적으로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발표했다. 이 규정

은 수입자가 세관에서 물품 인수 시 인보이스나 계약서상에 있는 금액만큼 수입자가 지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급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관에서 지급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이나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서류 준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 직접 시공하는 우리 진출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1건당 최대 10만 건에 달하는 오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오더에 건당 지급증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자재가 1차 공급업체가 아닌 2차, 3차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로 배송되는 경우 제품가격과 지불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통관 시 큰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에서 동 규정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유입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과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기업들에는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세부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거쳐 재통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특성상 규정 변경 등 실제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으로 실무적용 여부를 판단 가능하므로 우리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과의 상담을 통해 프로젝트 종료 후 관련 서류 일괄 제출 등과 같은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규정 불이행 시 물품이 발송국가로 반송되므로, 수출 전 반드시 현금지급증명서 및 신용장, 전신환 또는 그 밖의 법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증명서류를 인보이스와 함께 첨부하거나 수취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결제증명을 바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Letter of Undertaking을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가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결제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세관에서 벌금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무상 샘플 및 현지 공장에서 제공하는 단체복, 회사 기념품 등도 모두 현지 세관에서 가격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걸프협력회의(GCC)의 관세 동맹에 따라 GCC 역외국에서 GCC의 회원국으로 수입 시 수입통관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GCC 회원국으로 운송 시 수입통관절차는 면제되나, 회원국 간 품목의 관세율이 차이가 날 경우 초과 관세율을 납부해야 한다.

◦ 원산지 표시

최근 우리 제품 수출 시 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에서 제품의 원산지 각인과 포장지의 원산지 내역이 상이해 통관이 금지된 사례가 있었다. 즉, 제품 자체는 중국 등 제3국의 원산지가 표시돼 있으나 포장에는 “made in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원산지 확인, 제조비율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Ahmed Saleh Al-Zahrani Est.

주소	P.O.Box 4118, Dammam 31491, KSA
전화번호	+966-50-196-4645
이메일	jypark55@hanmail.net

◦ Sel International

주소	P.O. Box 2038, AL-Khobar 34627, KSA
전화번호	+966-55-779-9295
이메일	dave@sel-intl.com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개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1956년 외국인투자법을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WTO 가입을 위해 2000년 4월 이전 외국인 투자법을 전면 개정했으며, 2014년 3월에 추가 개정을 실시했다. 2016년에는 석유분야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 경제개발 정책인 'Saudi Vision 2030'을 선포하였으며, 이후 외국 제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2017년 2월 추가 개정을 했다.

2017년 2월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국가 보호산업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외국인 100% 지분이 허용되었다. 기존에는 사우디 파트너의 최소 25% 지분 보유가 필수였다. 외국인 투자 100%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 보호산업은 오일, 가스, 군수, 보안, 메디나 및 메카 부동산 구입, 성지순례 관련 사업, 출판업, 방송, 대중교통, 병원, 수산업, 암센터 및 혈액은행 등이다. 앞선 산업을 제외하고 일반 산업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 보유를 위한 주요 조건은 아래와 같다.

- 투자자 또는 모기업이 사우나 국제 증권거래소에 상장
- 2년간 매출 1,866만 달러(7,000만 리알) 이상
- 총자산 2,666만 달러(1억 리알) 이상
- 1년 순이익이 1,333만 달러(5,000만 리알) 이상
- 자국 이외의 지역에 3개 이상 법인 또는 지사 보유
- 투자자 또는 모기업 종업원 10,000명 이상 등

2017년 외국인 투자 100% 허용 이후에도 사우디 정부는 'Saudi Vision 2030' 정책 일환으로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0년 4월 설립한 사우디 투자청(SAGIA)를 2020년 2월 사우디 투자부(MISA, Ministry of Investment in Saudi)로 승격하고 투자 유치, 승인, 허가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사우디 투자부가(MISA)가 만들어지긴 했으나 현재까지도 불투명한 행정업무 등으로 선진국 대비 투자진출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자본금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 승인을 거절하는 등 간접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정확한 승인 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고, 투자법 개정 여부를 적시에 기업에 통보하지 않아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제3국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기관(사우디 투자부)

외국인투자 신청 및 승인 관련 주무부서는 사우디 투자부(MISA)로 인원화돼 있다. 사우디 투자청(SAGIA)에서 2020년 2월 투자부(MISA)로 승격하여 외국인 투자허가, 투자유치 전담 중앙정부부처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주요 업무
 - 외국인투자 허가 심사 및 승인
 - 외국인 투자가 및 잠재투자가에 한 각종 지원
 - 외국인투자유치환경 개선 및 각종 투자유치 정책 수립 및 시행

- 외국인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

o 연락처

- 주소: P.O.Box 5927, Riyadh 11432, Kingdom of Saudi Arabia
- 전화: +966-11-203-5888 (WhatsApp 문의 24시간 답변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https://www.misa.gov.sa/en/>
- 이메일: InvestorCare@misa.gov.sa

사우디 투자부(MISA)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위축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o 투자 관련 문의 접수 시 48시간 내 답변
- o 외국인 투자 관련 정부기관 담당자 연결 지원
- o 투자자 애로사례 접수 및 해결을 위한 전담팀 구성
- o 사우디 투자 허가증 3시간 이내 발급(구비서류 완벽 시)
- o 사우디 파트너와의 분쟁 방지를 위한 상업중재센터 운영
- o 투자자 라이선스 기간 최대 5년으로 확대

투자신청 및 허가와 관련, 실무절차는 투자부(MISA) 감독하에 진행된다. 리야드, 젓다, 알코바, 메디나, 주베일 등 5개 지역에 투자부 사무소가 있으며, 이 사무소들이 정식 투자신청서 양식을 배포하고, 모든 면허와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신청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할 허가나 승인들을 담당하는 각 정부 부서의 직원들이 상주하여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상주 직원의 주요 서비스는 아래와 같다.

- o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직원은 투자신청이 승인되면 상업 등기서류를 발급
- o 내무부의 여권국(General Directorate of Passports)과 고용관리국(General Administration for Recruitment), 노동사회부의 노동실(Labor Office) 직원은 투자 신청이 사우디인 고용의무조건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노동허가서와 거주허가서를 발급
- o 재무부의 자카트 소득국(Zakat and Income Department) 직원은 회계와 세무 보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
- o 사우디 산업개발기금(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 SIDF)의 직원은 개발 프로젝트인 경우 동 기금의 지원 가능성을 확인

3) 투자장려 분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광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개선하고자 제조업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외국 투자유치를 통해 제조업 분야의 기술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금속가공, 건설자재, 포장재, 소비전자 클러스터에 태양광 분야를 추가, 6대 산업클러스터(NICDP: National Industrial Clusters Development Program)로 지정하고, 이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SAGIA)은 에너지(Energy), 운송 및 물류(Transport and logistics),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건강(Health), 생활과학(Life Science),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주요 부문(Key Sector)으로 선정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ICT 시장의 경우 중동지역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규모의 ICT 시장으로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전자정부, e-learning 시장 등에 대한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 및 보건 분야의 경우 최근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통해 한-사우디아라비아 의료 분야 협력을 체결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로 우리 의료기술, 교육, 병원 등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o 기타 분야

- 보험 및 금융업: 외국 보험회사의 진출 및 상업적인 국내 보험회사(주식회사, 조합, 법인 또는 외국 합작)의 설립을 허용하되 외국인의 지분은 60%까지 허용하고 있다. 2005년 12월 WTO 가입 당시 외국 보험회사는 3년 내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또는 외국 기업지사로 전환을 허용한 바 있다. 국내 법인, 주식회사 또는 국제은행의 지점 형태의 상업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금융 분야 합작기업의 외국인 자산보유 한도를 60%까지 확대했다. 반면, 금융서비스는 상업은행만 허용하며 자산관리와 자문 서비스는 비상업 금융기관에도 허용하

고 있다.

- 통신: 2008년 말까지 통신 분야 외국 지분비율을 70%까지 확대, 기초통신 서비스 및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에 모두 적용되며, 공공 통신 서비스는 주식회사만이 가능하다.

- 유통 분야: 유통 분야 관련 2009년부터 상품유통 일부를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추세이다.

4) 사우디 지역본부유치(RHQ) 정책

- '21.1.27-28 개최된 미래투자이니셔티브 포럼(FII)에서 왕세자가 지역본부유치(RHQ, Programme HQ)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주 내용은 사우디 내 중동지역본부가 없는 기업은 '24년부터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가 불가하다는 것으로 왕국 내 제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우디의 전략이라고 평가된다.

- 인센티브로는 정부 지정 경제특구 입주 시, 법인세 50년 간 면제, 현지인 의무고용 비율(Saudization) 10년 간 완화 등이 있으나 아직 동 정책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세칙 등 발표되지 않아 진출기업 다수가 해당 후속발표에 맞춰 진출전략 재수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인센티브

1) 개요

사우디는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3,500만 인구로 GCC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다. 선진국에 비해 느린 행정처리와 업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20"에 따르면 사우디는 190개 국가 중 기업하기 좋은 국가 62위를 차지했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외국인은 출판과 미디어 서비스 중 몇 개 분야, 내륙 운송업 그리고 upstream 석유생산 부문 등 총 15개 분야(국가정보 '주요투자법 내용'에서 확인 가능)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투자가 가능하며, 외국인 지분 100%도 허용된다. 또한, 최근 들어 관료주의적 관행, 요식행위를 줄이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국인투자 유치 및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제조업이나 석유 생산 산업 기업 위주로 제공됐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 정부는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인 및 관광, 스포츠 등 특정 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 투자 인센티브

◦ 금융 인센티브

사우디아라비아는 개인수입과 사우디 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금은 없으나(종교세 개념인 Zakat 2.5% 납부) 외국인투자 법인의 경우 20%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상 손실을 무기한 이월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도 다음과 같은 지역 또는 국제 금융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하다.

- AFESD(Arab Fund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아랍국가의 경제와 사회 개발 프로젝트 금융지원 프로그램
- Arab Monetary Fund: 회원국 간 아랍 금융시장과 금융거래 개발을 촉진, 회원국의 자원투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 Arab Trade Financing Program: 개인 및 상업거래를 위해 개인 또는 기관에 중·장기 대출 제공
- Inter-Arab Investment Guarantee Corporation: 아랍국가 간 투자에 대한 보험, 상업 및 비상업 리스크에 대한 수출 신용 제공
- Islamic Development Bank: 유망한 프로젝트와 회사에 자본과 보조금 제공 등
-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Fund: 사우디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채용을 지원
- 기타: 전기, 물, 토지임대 등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산업 공공 요율 제공, 천연가스 우선 할당, 킹 압둘라과학기술대학교(KAUST) 및 사우디 첨단도시 개발위원회(KACST)의 연구 지원금 제공 등

또한, 정부는 SIDF(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를 운용해 제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SIDF는 사우디 로컬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에도 제조업 분야의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다. 제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며, 외국인 투자기업도 단독, 합작투자 등 투자 방식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제조업 투자 시에만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대 융자 금액은 프로젝트 규모의 최대 75%이며, 연 2% 내외의 관리수수료를 징수하고, 대출 기간도 최대 20년이나 실제로는 평균 9.5년 정도이다. 융자신청 시 근로자 고용 및 훈련계획, 건설기법, 기본설비, 가격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완비 시 4개월 이내에 융자 여부가 결

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코로나로 인한 민간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2020년 5월 이후 정부 및 공공 금융기관은 다수의 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 사우디 재무부(MOF) : 472억 달러의 기업지원 정책 수립했으며, 이 중 374억 달러는 대출 등 금융형태의 직접지원 추진
- 사우디 중앙은행(SAMA) : 80억 달러 규모의 대출금 상환 연기, 중소기업 대상 133억 달러의 대출지원 프로그램 시행
- 산업관물자원부(MIM) : 산업공단 내 입주한 모든 기업의 공장 운영비(전기세, 수도세 등 유지비)의 25% 면제
- 인적자원개발기금(HRDF) : 2019년 7월부터 1년 동안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우디인 대상 급여의 30% 보전(월 급여 USD 1,000~4,000 대상, 최대 지원금은 1인당 USD 800 또는 급여의 50%)

○ 산업별 인센티브

수출산업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 금융지원은 없으나 수출기업에 대한 항구세 감면 등 간접적 지원은 가능하다. 특정 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는 않으며 일반적 인센티브가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제6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광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산업 및 농업 분야 투자 시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며(서비스 부문은 5년), 기계, 설비,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

○ 지역별 인센티브

사우디는 주요 지역에 산업도시 또는 제조업 공단을 조성 및 운영 중이다. 산업도시(공단)에 입주할 경우 공장부지, 전력, 수도요금 등에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리야드, 제다, 담맘, 주베일 등 사우디 주요 도시에 사우디 산업공단관리청(The Saudi Industrial Property Authority: MODON) 산하에 35개 산업도시(2022년 5월 기준)가 있다. 해당 산업도시에는 총 3,000개의 공장과 300,000명 규모의 근로자가 있으며 총 667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왕실위원회 산하에 주베일과 안부 등 2개의 대규모 산업도시가 운영 중이다. 사우디 상공부에 따르면 사우디 외국인투자의 50% 정도가 주베일 산업단지에 집중돼 있다. 사우디 정부는 향후 동 산업단지들에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상공부에서는 소규모 산업 지대를 담맘, 제다, 메카, 콰심, 알-아사 등 16개 지역에 설정해 20년간 산업단지 염가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 정부는 Ha'il, Jazan, Najran, Al-Baha, Al-Jouf, Northern Territory 등 6개 저개발 지역에 사우디인을 채용하고 훈련을 제공할 경우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 세율은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10년 동안 적용된다.

- 사우디 근로자 교육훈련비 50%에 상응하는 세금 공제
- 사우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 급여 50%에 상응하는 세금 공제
-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약 27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5명 이상의 사우디인을 기술직이나 관리직으로 1년 이상 채용 시 추가적인 공제

사우디 정부는 최근 민관 합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00억 달러를 투자해 King Abdullah Economic City(KAEC) in Rabigh, Jazan Economic City(JEC) in Jazan, Prince Abdul Aziz bin Mousaed Economic City(PABMEC) in Hail, Knowledge Economic City in Medina 등 4개의 경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사우디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 다각화, 13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400만~500만 명을 위한 주거단지 건설, 1,500만 달러 가치의 GDP 기여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기타

- 플랜트 합작투자 시 사우디 산업개발자금(SIDF) 융자 혜택(총 자본금의 50%까지 장기, 저리 융자, 15년 상환)
- 산업단지 염가 입주 지원(0.26달러/㎡)
- 관세면세: 생산 원자재 및 설비면세 통관
- 수출 시 각종 혜택 : 50% 항만 사용료 감액, 10일간 창고보관료 면제 등(단, 전력, 운송 등 국가안보 관련 분야 및 주요 공공시설관리, 그리고 전략산업인 원유탐사 및 upstream 분야에는 외국인투자 제한)
- 일부 품목의 경우, 합작투자기업 생산제품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동종 수입상품에 20% 보호관세 부과

제한 및 금지(업종)

1) 산업부문

- 원유탐사, 시추 및 생산(국제 산업 분류코드에서 정하는 CPC5115+883 리스트의 광산 부문 관련 서비스 제외)
- 군사장비, 장치, 유니폼 제조업
- 민간 폭발물 제조업

2) 서비스부문

- 군사 부문 음식납품(Catering)
- 보안, 탐정 서비스
- 메카 및 메디나(이슬람 성지) 지역 부동산 중개업
- 성지순례(Hajj 및 Umrah) 관련 여행안내 서비스
- 현지 직업 사무소를 포함한 직업채용 및 고용 서비스
- 부동산중개업
- 인쇄출판업(관련 국제 분류 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항목 제외)
 - 전처리인쇄(88442), 인쇄기(88442), 그림 및 서예(84501), 사진(875), 라디오 및 TV 방송 스튜디오(96114), 해외 언론 사무실 및 특파원(962), 판촉 및 광고(871), 홍보(86506), 출판(8442), 보도 서비스(88442),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 판매 및 임대(88), 미디어 컨설턴트 및 연구(853), 타이핑 및 복사(87505 + 87904),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유통 서비스(96113)는 예외적으로 허용
- 국제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일부 위탁업(국제 산업코드 621)
-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 도시 간 철도여객 운송을 제외한 육상 운송 서비스
- 국제 분류에 따른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준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일부
- (국제 산업코드 93191)
- 어업

* 2007년 3월 25일부로 영화 비디오테이프 유통 서비스, 의약 소매 및 개인 약국업을 포함한 도소매 유통 서비스, 상업대리업, 통신서비스, 위성 송수신 서비스, 도시 간 열차 승객 수송서비스 및 항공운송 서비스 분야가 금지 분야에서 해제되어 외국인 투자 허용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 King Abdullah Financial District(KAFD)

킹 압둘라 금융지구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가장 큰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78억 달러를 투자해 리야드 북쪽 약 1.6km 부지에 건설 중이며, 상업, 주거, 의료, 소매, 오락 등 다양한 입주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GCC 내에서도 두바이, 카타르, 바레인 등의 인근 국가들이 중동의 금융 허브를 목표로 대규모 금융센터를 보유·운영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도 KAFD를 중동 최대 규모의 금융센터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KAFD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증권거래소 Tadawul 및 CMA(Capital Market Authority) 본사, 은행 등 금융기관, 금융아카데미 등을 위치시켜 두바이가 가지고 있는 GCC 금융 허브를 지위를 차지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전시장 및 컨퍼런스, 호텔 등이 입주예정이며, 레크레이션 센터, 수로, 공원 및 스포츠 시설 등의 건설을 통해 각종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 금융센터가 될 전망이다. 향후 각종 금융기관을 비롯해 박물관, 수족관, 금융 아카데미 등에 대한 입찰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별 상업지구(Special business zone)로 지정하여 입주 기업들에 금융 인센티브를 비롯한 비자 면제와 경쟁력 있는 규정들로 기업들을

유치하려 했으나 2018년 공사비용 초과 및 이후 코로나19 등 글로벌 경기 악화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2021년 말부터 일부 완공된 지역을 필두로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2022년 내 대다수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지구 내에서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지하철도 시범운행을 완료하는 대로 정상운행이 예정되어 미래 업무중심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KACST)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식기반 경제로 이전하기 위한 과학, 기술 개발 및 촉진을 위해 설립됐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립 과학원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동 기관은 사우디아라비아 혁신 및 외부 연구를 위한 자금 펀딩 촉진이 주요 역할이다. KACST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인텔, 톰슨 로이터 등과 같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연계, 사우디아라비아의 과학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내 특허 승인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KACST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제2의 도시인 제다 인근 타이프 시에 테크노파크와 연계한 과학 기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 King Abdullah Economic City(KAEC)

제다 북쪽에 위치한 King Abdullah Economic City(KAEC)는 항만산업, 물류산업, 경공업 및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 중인 지역으로 기본 인프라 및 주거시설은 완공되고 있으며 산업 인프라 및 레저 인프라가 지속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1억 6,800만㎡ 부지는 2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에 따르면 KAEC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업단지, 교육시설, 관광단지를 갖춘 항구도시가 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 Riyadh 1공단

규모	500,000㎡
위치	Dry Port 부근 Al-Malaz District
임차료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 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관할기관 및 연락처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9200-0042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
비고	◦ 사우디 수도 리야드 남쪽으로 30Km 지점에 위치, 공항까지 40Km, 리야드 기차역 10Km 이내의 접근성 ◦ 리야드 드라이포트 5Km 이내 위치 ◦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서 등 -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

◦ Riyadh 2공단

규모	19,000,000㎡
위치	리야드 남동부 Al-Kharj Road
임차료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관할기관 및 연락처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9200-0042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
비고	○ 사우디 수도 리야드 남쪽으로 40Km 지점에 위치, 공항까지 50Km, 리야드 기차역 20Km 이내의 접근성 ○ 리야드 드라이포트 15Km 이내 위치 ○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서 등 -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

◦ Jeddah 1공단

규모	12,000,000㎡
위치	젯다 남동부
임차료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관할기관 및 연락처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9200-0042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
비고	○ 사우디 제 2도시 젯다市 남쪽 25Km 지점에 위치, 공항까지 45Km 이내로 접근성 우수 ○ 젯다 항과의 거리 13Km로 물류여건 우수 ○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추진 계획서 등 -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

◦ Jeddah 2공단

규모	8,000,000㎡
위치	젯다 1공단 남부 35km

임차료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관할기관 및 연락처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9200-0042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
비고	○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 추진 계획서 등 -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

○ Dammam 1공단

규모	2,704,000㎡
위치	Dammam-AlKhobar 고속도로
임차료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관할기관 및 연락처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9200-0042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
비고	○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 추진 계획서 등 -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

○ Dammam 2공단

규모	25,487,000㎡
위치	Dhahran - AlAhsa Road
임차료	임대료 : 4~6 사우디 리얄 / sqm(1㎡당 연간 약 1,200 - 1,800원) 도면승인 수수료 : 1 사우디 리얄 / sqm(평방미터당 약 300원) (최소 5,000 사우디 리얄, 최대 25,000 사우디 리얄)
관할기관 및 연락처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전화: +966-9200-00425 이메일: info@modon.gov.sa 홈페이지: https://www.modon.gov.sa/en/Pages/default.aspx

비고	○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ARAMCO 본사 다흐란 서쪽 10Km에 위치 ○ 석유화학단지 및 프로젝트 밀집지역 담맘 남서쪽 30Km에 위치 ○ 담맘 포트 40Km, 바레인 국경 35Km 등 접근성 우수 ○ 입주(투자) 조건 및 절차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회사소개서, 사우디 사업자등록증(CR), 공장건설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 사업 추진 계획서 등 - (절차) Modon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증(CR) 및 소개서 등 필수서류 제출, 입주계획 세 미나 개최, 입주 승인, 공장건설 기간 및 입주희망 기간 등 계약체결
----	---

<자료원 :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단지공단(MODON)>

주요 지역별 여건

○ 리야드(Riyadh)

리야드는 사우디의 수도이며, 정치, 행정, 금융의 중심지이다. 2022년 기준 사우디 전체 인구의 약 21%인 754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북동부 인근 킹 칼리드 국제공항(King Khaled International Airport)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중심부와는 약 40Km 떨어져 있다. Olaya 지역이 리야드 중심지이며, Kingdom Tower 등 랜드마크 빌딩을 비롯해 주요 기업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 King Fahad Road는 리야드 시내 남북을 관통한다. 농업도시 Al-Kharj, 고대 도시 Darraiya를 포함해 Dawadmi, Zulfi, Majma, Shaqraa 등이 리야드 지역에 포함되며, 2030년까지 8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리야드는 도시 경제의 성장과 교통 체증에 따른 대기오염 및 지속적인 인구 성장에 대비, 물류 및 운송 수요 충족을 위해 킹 칼리드 국제공 항 확장 공사, 70억~80억 달러 규모의 리야드 메트로, 버스 시스템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리야드 메트로의 경우 2013년 10월 시공을 시작해 2018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었으나 저유가 여파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었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현재까지 시운행 중이며, 금년 중 전 구간 정상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스페인기업 FCC를 주축으로 삼성물산, Strukton and Freyssinet Saudi Arabia 등이 참가해 있다. 아울러 리야드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도 코스모폴리탄인 제다, 산업도시 담맘, 이슬람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보다 종교적으로 더 보수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으나, 2017년 집권한 모하메드 빈 살만(MBS) 왕세자의 개혁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등 이미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리야드 시즌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으며, 공연, 스포츠경기 등을 필두로 리야드 내 Boulevard라는 지 역에 리야드 시즌 축제를 위한 지역을 건설하여 다양한 음식점, 게임, DJ, 연극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해당 공간은 리야드 시즌이 끝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한국식당인 Jinji가 높은 인기를 끌었다.

○ 서부지역(제다, 메카, 메디나)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지역은 제다(Jeddah)와 이슬람의 두 성지인 메카(Mecca)와 메디나(Madinah)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특히, 제다는 수도 리야드 다음 사우디 제2의 도시이며 35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서부지역은 약 60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상주하고 있으며, 메카 의 경우 매년 1,500만 명의 성지순례객들이 찾는 도시이다. 하지(Hajj) 및 움라(Umrah) 성지순례객은 매년 약 300억 달러의 비용을 지 출하며, 메카의 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평균 90%에 이른다. 제다, 메카, 메디나 외에 Taif, Rabigh, Qunfuzah 등의 도시가 사우디아라비 아 서부지역에 해당한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서부지역의 교통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제다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안 이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약 12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열차 3개 노선, 버스 816개, 해상교통 정류장 10개를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 정부의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해 2019년 7월 젯다 시즌 페스티벌이 개최되었으며, 한국의 슈퍼주니어 가 단독 콘서트를 열었으며, 약 4,000여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했다. 이 공연으로 슈퍼주니어는 사우디에서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아시아 가수가 되었다.

먼저 개최된 리야드 시즌의 뒤를 이어 2022년 5월 2일 개최되어 7월까지 약 2달 간 개최 예정이며, 사파리투어, 불꽃놀이, 요트클럽, 놀 이공원 등 다양한 활동을 결합하여 리야드 시즌의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

○ 동부지역(담맘, 알코바, 다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지역은 담맘(Dammam), 알코바(Al-Khobar), 주베일(Jubail) 및 다란(Darhan)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담맘은 걸 프만에서 가장 큰 항구이자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홍해에 위치한 제다 항에 이어 2대 항구인 King Abdulaziz 항구와 사우디아라비아 4대 공항 중 하나인 King Fahd International Airport가 위치하고 있다. 동부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가 1938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으로 유전을 개발한 Dammam 7이 위치해 있다. 이 Dammam 7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으 며, 아람코가 동 지역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요 경제 구역

○ 담맘(Dammam)

담맘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중심지로, 석유회사부터 케이터링 회사까지 석유 자회사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이 집중된 지역으로 1938년 원유 발견 이래 급성장한 도시이다. 도시규모에 비해 스모그, 교통체증, 도로 시스템 미비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으나, 최근 도시를 정비하고 인공어초인 Half Moon bay와 Coral Island 등 관광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동부 지역 주요 항구인 담맘 항이 소재해 있으며, 제다와 마찬가지로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물동량이 많아 혼잡한 상황이나 현재까지는 통제가 가능한 수준에 있다.

- 알-코바(Al-Khobar)

유전이 발견되기 전 작은 어촌이었던 알코바는 유전 발견 이후 아람코의 활동이 확대, 담맘의 북쪽 지역에 아람코의 석유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면서 크게 발전했다. 아울러 알코바를 관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연결하는 킹파드 코즈웨이(King Fahd Causeway) 완공 이후 알코바는 무역의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 다란(Dhahran)

다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산업의 중심도시로서, 아람코(Aramco)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관련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석유 항인 Ras Tanura가 위치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대학 중 하나인 King Fahd University of Petroleum and Minerals가 위치해 있다. 약 80년 동안 아람코의 본사가 다란에 위치해 아람코 회사의 주거구역인 아람코 캠프(Aramco Camp)가 형성돼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1418.84	4247.12	4562.57	5486.1	-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7279.6	19252.3	13547.1	4854.21	-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30	4	181,171	34	170,930
2020	32	6	102,167	39	69,234
2021	20	4	120,194	19	51,18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7	2	33,707	4	33,620
건설업	20	1	125,333	24	132,033
부동산업	1	1	133	1	13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업	2	0	21,998	5	5,14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6	2	30,324	6	30,260
건설업	17	0	30,550	17	30,550

숙박 및 음식점업	2	1	11,906	10	4,317
부동산업	1	0	401	1	4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2	853	2	71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	1	28,133	3	2,98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7	1	66,173	6	25,528
건설업	6	1	2,633	5	2,533
숙박 및 음식점업	1	0	2,683	4	2,642
금융 및 보험업	1	1	12,477	1	12,477
부동산업	1	0	7,718	1	7,7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1	510	2	28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0	28,00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GS 건설(주) 리야드 법인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법인
업종	건설 및 공사업
취급분야	주택건설, 건축, 토목, 발전 등 종합건설
모기업명	GS건설(주)

◦ GS글로벌(주) 리야드 지사

진출연도	1988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기계, 금속, 화학 무역
모기업명	GS글로벌(주)

◦ LG에어컨 사우디 법인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에어컨 제조 및 판매
모기업명	LG전자(주)

◦ 대한전선(주) 사우디 법인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HV/EHV Power Cable
모기업명	대한전선(주)

◦ 두산중공업(주) 리야드 지사

진출연도	1977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화력발전, 담수, 수처리, 원자력, 건설
모기업명	두산중공업(주)

◦ 벽산(주)아라비아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설치 및 환경사업
모기업명	벽산엔지니어링(주)

◦ 삼성SDS 리야드지사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IT 솔루션
모기업명	삼성SDS

◦ 삼성물산(주) 리야드 사무소

진출연도	1977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철강, 화학, 선박, 해양, 플랜트, 발전
모기업명	삼성물산(주)

◦ 삼성물산(주) 사우디 법인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건축, 토목, 발전 EPC
모기업명	삼성물산(주)

◦ 포스코건설(주) 리야드 지사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건설업
모기업명	포스코건설(주)

○ 풍산(주) 리야드 사무소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기계장비
모기업명	풍산(주)

○ 한국수출입은행 리야드 사무소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공공행정
취급분야	금융
모기업명	한국수출입은행

○ 한미글로벌(주) 사우디 법인

진출연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모기업명	한미글로벌(주)

○ 현대일렉트릭(주) 사우디 법인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변압기, 차단기, 회전기
모기업명	현대중공업(주)

○ 효성중공업(주) 리야드 지사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변압기, 차단기
모기업명	효성중공업(주)

◦ SK건설(주) 알코바 지사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건설, 공사
모기업명	SK건설(주)

◦ 대림산업(주) 알코바 지사

진출연도	197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영업 및 프로젝트 수행 지원
모기업명	대림산업(주)

◦ 대우건설(주) 알코바 지사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종합건설
모기업명	대우건설(주)

◦ 이테크건설(주) 사우디 법인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토건 및 산업시설, 환경플랜트 등 설계 및 시공
모기업명	이테크건설(주)

○ 포스코인터내셔널(주) 담맘 지사

진출연도	1981
진출형태	연락사무소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철강, 기계, 화학 관련 수/출입 및 프로젝트 개발
모기업명	포스코인터내셔널(주)

○ 포스코엔지니어링(주) 알코바 지사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화공, 인프라, 산업플랜트 분야 EPC Contract
모기업명	포스코엔지니어링(주)

○ 한화건설(주) 사우디 법인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종합 건설 (플랜트, 건축, 토목)
모기업명	한화건설(주)

○ 현대건설(주) 알코바 지사

진출연도	1976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플랜트, 발전, 전기, 건축, 토목(환경), 원자력 건설
모기업명	현대건설(주)

○ 현대엔지니어링(주) 사알코바 지사

진출연도	2009
------	------

진출형태	지점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EPC for Oil and Gas, Refinery, PetroChemical, Power Plant, Infra Structure
모기업명	현대엔지니어링(주)

○ 판토스(주) 제다 지사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 (해상/항공 수/출입 국제운송, 통관, 내수 운송, IT, 물류컨설팅)
모기업명	범한판토스(주)

○ 제일기획(주) 리야드 지사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솔루션
모기업명	제일기획(주)

○ 한국타이어(주) 제다 지사

진출연도	1983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한국타이어(주)

○ 삼성엔지니어링(주) 사우디 법인

진출연도	198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건설 공사업
취급분야	화공, 발전 등 산업플랜트 설계/구매/공사

모기업명	삼성엔지니어링(주)
------	------------

◦ LIG 넥스원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자부품
모기업명	LIG 그룹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1)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는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진출 방법으로, 설립 및 회사관리가 용이하고 투자자의 책임이 출자비율에 따라 제한된다. GCC 규정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외국인 참여단계를 제한하지 않으며, 산업, 농업, 컨트랙팅, 서비스 프로젝트 등에 100% 외국인 소유 회사도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외국 기업 참여 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제조업(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농업(농업 프로젝트)의 경우 25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서비스업은 최소 자본금 요구조항이 없다. SAGIA(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 지역에 대한 투자, 수출 프로젝트 투자, 중요 기술투자 등은 최소 자본금 감액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은 즉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어야 하며, 현물출자의 경우 유형재 또는 특허(Patent), 상표권(Trade mark)과 같은 등록된 권리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보험이나 금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유한책임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사항은 모든 주주들에게 동등한 의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최대 주주는 여타 주주들이 주식을 제3자에게 파는 것과 관련해서 선취권을 가질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매년 회계연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검증된 회계감사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가 회사 자본의 1/2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관리자는 주주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주주는 이에 따라 주식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정된 사항은 공식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법 151조에 의해 최소 1인 2인(조직) 이상, 최대 50인(조직) 미만의 개인 또는 투자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50인이 넘을 경우 1년 안에 JSC로 전환해야 한다. 투자자(조직)가 2개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자본 투자금에 한 부채금에 책임이 부과된다.

사우디 또는 GCC 투자자들의 wholly-owned 기업에게는 최소자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 기업 참여 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0만 리얄이며, 제조업(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 리얄, 농업(농업 프로젝트)의 경우 2,500만 리얄, 유통업(trading business)의 경우는 2,000만 리얄이며, 서비스업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다. 100% 지분을 단독으로 갖는 LLC를 설립하기 원하는 외국기업은 자회사 또는 그들이 선택한 특정 개인이 최소지분만 보유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LLC는 자본금의 30%까지 매년 순이익의 10%를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경영진은 1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인이 경영진이 되어 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가 20명을 넘을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회사법상 회사의 손실이 자본금의 75%를 초과하고 회사를 지속하거나 투자자에게 부채 상환방안이 없다는 것이 30일 안에 받아들여지는 경우, 투자자들은 회사의 모든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분의 3자 양도는 반드시 SAGIA(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와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분의 제 3자 양도 여부에 따라 SAGIA 라이선스, 상업등기, 회사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주주 동의안은 외국투자자들의 유일한 보호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 법규 외의 주주동의안도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다른 계약과 같이 샤리아법과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률 의무조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ies)

주식회사 설립은 유한회사에 적용되는 승인 절차보다 다소 세부적이고, 복잡하나 관련 요구사항, 운영요건이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아니며, 회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유한회사와 비교할 때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투자자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상공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절차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정관은 상공부에서 지정한 양

식을 따르는 것이 좋으며, 회사정관의 일부 또는 주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선취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회사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사람 이름으로 된 특허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회사명을 개인의 이름으로 쓸 수 없다. 주식회사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 주식회사는 왕령에 의해 규정된 허가증 없이는 주식회사로 등재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회사,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회사, 금융이나 보험과 관련된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유통주식의 최소 금액은 50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다. 상장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자본금은 1,0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 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최소 5명 이상, 회사 설립 시 각각의 주주는 보유지분 총금액의 25% 이상의 현금을 상공부에서 지정한 회사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총 입금액이 회사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관리이사를 선출해야 하며, 의장과 관리이사는 겸임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이사회 외에 별도 감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는 구성원 참여 비율에 대한 회사내규가 존재하지 않을 시 과반수의 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 인원이 3명을 넘을 시에만 유효하다. 이사회 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항상 공식 도장이 찍힌 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의장과 총무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회사의 회계연도가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주주는 투표권을 행사(또는 위임)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 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해야 정상적으로 성립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사 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요청할 경우 이사회에 의해 개최될 수 있으며, 의결은 회의참석 주주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아래 사항들은 임시주주총회 회사정관의 개정목록에서 제외된다.

- 회사주주로서의 기본적 권리 박탈
- 특정 주주의 금융부채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 내 등록회사를 외국으로 이동
- 회사의 국적을 바꾸는 행위

○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주요 차이점

- 소유권
 - 유한책임회사(LLC) : Joint venture or wholly foreign-owned
 - 주식회사(JSC) : Joint venture or wholly foreign-owned
- 별도 법인 여부
 - 유한책임회사(LLC) : 예
 - 주식회사(JSC) : 예
- 유한 책임 여부
 - 유한책임회사(LLC) : 예
 - 주식회사(JSC) : 예
- 경영관리
 - 유한책임회사(LLC) : 소유권 비율에 따름; 투자자 20명 초과 시 감사위원회 필수
 - 주식회사(JSC) : 완전 경영 및 운영 가능
- 이윤분배
 - 유한책임회사(LLC) : 자본출자지분에 따름
 - 주식회사(JSC) : 정관 또는 주주협약에 따름
- 최소 자본 투자 제한
 - 유한책임회사(LLC) : 5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 주식회사(JSC) : 2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 법인세
 - 유한책임회사(LLC) : 20%
 - 주식회사(JSC) : 20%
- 투자 인센티브
 - 유한책임회사(LLC) : 있음
 - 주식회사(JSC) : 있음

지사

외국 기업은 지사 형태로 진출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투자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하나 책임의 범위가 다르고, 단독진출만 가능하다. 즉 유한책임회사가 투자자 별로 지분 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면 지사(Branch)의 경우 모기업에 책임이 있다. 신청 시 상공부가 발급하는 외국 자본투자면허, 상업등기, 본국 본사의 사업체등록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투자 종류에 따라 서비스업 지사의 경우 최소 자본금이 없으며, 제조업의 경우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알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다. 법인형태의 지사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의 스폰서십 하에 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종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므로 확실한 에이전트(스폰서)가 존재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지사의 법적인 지위가 스폰서의 피고용인 형태이며, 활동 범위 역시 스폰서의 업종 및 현지 활동범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므로 현지 스폰서 또는 스폰서가 될 파트너를 어떤 기업으로 할지 숙고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1) 연락사무소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에 따라 법인형태 이외의 외국 기업의 지사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및 기술 서비스 사무소(Technical and scientific services office)만 허용되는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등 그 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다.

○ 연락사무소

정부발주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외국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한시적 법인허가(Temporary License)를 취득한 후 임시법인등록(TCR: Temporary Commercial Registration)을 통해 프로젝트를 이행하게 된다. 이때 외국 회사가 별도의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가 종료되며 TCR도 종료된다. 프로젝트 종료 후 후속 프로젝트나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하는 것이 연락사무소이다.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회사에만 해당된다.

○ 과학·기술 서비스 사무소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상업 에이전트를 갖고 있는 외국 회사가 상공부의 허가를 받아 연락사무소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활동 범위는 자사의 상품 구매 고객들이나 자사가 지정한 상업 에이전트(해당 에이전트는 법상 등록의무가 있음)에 대한 과학, 기술 및 자문 서비스에 국한되며, 회계감사 및 사우디아라비아인 고용의무가 있다.

○ 지사와 연락 사무소 주요 차이점

- 소유권
 - 지사(Branch) : Wholly foreign-owned
 - 기술과학 사무소(TSO) : Wholly foreign-owned
- 별도 법인 여부
 - 지사(Branch) : 아니오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아니오

- 유한 책임 여부
 - 지사(Branch) : 아니오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아니오
- 경영관리
 - 지사(Branch) : 완전 경영 및 운영 가능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완전 경영 및 운영 가능
- 이윤분배
 - 지사(Branch) : 모회사 기준에 따름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이윤 창출 無
- 최소 자본 투자 제한
 - 지사(Branch) : 5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없음
- 법인세
 - 지사(Branch) : 20%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없음
- 투자 인센티브
 - 지사(Branch) : 있음
 - 기술과학 사무소(TSO) : 없음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 위험성 기존의 사우디 투자환경은 여러 배타적인 제도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활발한 투자가 어려웠다. 그러나 VISION 2030의 일환으로 사우디 정부는 다양한 사업에서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4분기부터 투자유입이 증가되었고,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전년대비 257.2% 증가하며 19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국제유가 회복 및 사우디 내 주요 프로젝트 재개, 그리고 정부 주도의 투자환경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그 위험도가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나 높은 성장가능성이 그러한 위험도를 상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설부른 진출보다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사우디 바이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공부를 이행한 후에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2)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 인력 채용의 어려움: 사우디 정부는 자국민 의무고용제(Saudization)와 스폰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 인력의 급증에 따른 사우디 국민 고용 안정화를 위해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내 모든 기업이 사우디 국민을 일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우디 노동자를 채용해야 하여 기업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 그리고 사우디 노동자의 경우, 제3국민 대비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점을 사전 투자계획에 반영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우디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우디 스폰서를 통해야만 각종 법률행위 및 영리행위 등의 현지활동이 가능하다. 스폰서에게 제공되는 연간 비용과 스폰서와의 관계 악화 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리스크가 존재해 유의가 필요하다. - 복잡한 투자절차: 최근 사우디 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소요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 투자청(SAGIA)의 업무처리는 담당자에 따라 요청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는 등 일정한 기준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존재하여 기업들이 행정업무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설명 없이 투자 승인이 거부되거나 규제 및 법령, 제도 변경의 신속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3) 분쟁해결 사우디는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을 따르는 국가로 법률 체계가 우리와 다른 점이 많다. 사우디는 일반 재판부와 특별 재판부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샤리아 법원은 일반 법원에 해당되는데,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법제와 다르게 원고의 소송 제기예 대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샤리아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고가 가능하다. 특별 재판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근거한 특수하게 세분화된 분야의 분쟁을 해결하며 국민권익위원회(The Civil Rights Directorate), 유통어음 위원회(The Negotiable Instruments Committee), SAMA 분쟁 위원회(SAMA Committee), 상공회의소 분쟁 조정 위원회(The Conciliation Committee at the Chamber of Commerce), 노사분쟁 해결 최고 위원회(the Primary Commission for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등이 있다. 중재인은 반드시 샤리아와 상법 전문가여야 하며 그 전문가는 사우디 법원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집행권을 가진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 설립은 유한회사에 적용되는 승인 절차보다 다소 세부적이고, 복잡하나 관련 요구사항, 운영요건이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아니며, 회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유한회사와 비교할 때 크게 높은 편은 아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투자사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상공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절차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회사정관은 상공부에서 지정한 양식을 따르는 것이 좋으며, 회사정관의 일부 또는 주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선취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회사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사람 이름으로 된 특허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회사명을 개인의 이름으로 쓸 수 없다. 주식회사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특정 주식회사는 왕령에 의해 규정된 허가증 없이는 주식회사로 등재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회사,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회사, 금융이나 보험과 관련된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유통주식의 최소 금액은 50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다. 상장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자본금은 10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 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최소 5명 이상, 회사 설립 시 각각의 주주는 보유지분 총금액의 25% 이상의 현금을 상공부에서 지정한 회사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총 입금액이 회사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해야 한다. 이사회는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관리이사를 선출해야 하며, 의장과 관리

이사는 겸임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이사회 외에 별도 감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는 구성원 참여 비율에 대한 회사내규가 존재하지 않을 시 과반수의 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 인원이 3명을 넘을 시에만 유효하다. 이사회 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항상 공식 도장이 찍힌 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의장과 총무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회사의 회계연도가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 주주는 투표권을 행사(또는 위임)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 자본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해야 정상적으로 성립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사 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요청할 경우 이사회에 의해 개최될 수 있으며, 의결은 회의참석 주주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아래 사항들은 임시주주총회 회사정관의 개정목록에서 제외된다.

- 회사주주로서의 기본적 권리 박탈
- 특정 주주의 금융부채 증가
- 사우디아라비아 내 등록회사를 외국으로 이동
- 회사의 국적을 바꾸는 행위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진출 방법으로, 설립 및 회사관리가 용이하고 투자자의 책임이 출자비율에 따라 제한된다. GCC 규정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외국인 참여단계를 제한하지 않으며, 산업, 농업, 컨트랙팅, 서비스 프로젝트 등에 100% 외국인 소유 회사도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외국 기업 참여 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제조업(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 농업(농업 프로젝트)의 경우 2,5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얄이며, 서비스업은 최소 자본금 요구조항이 없다. SAGIA(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 지역에 대한 투자, 수출 프로젝트 투자, 중요 기술투자 등은 최소 자본금 감액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은 즉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되어야 하며, 현물출자의 경우 유형재 또는 특허(Patent), 상표권(Trade mark)과 같은 등록된 권리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보험이나 금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으며, 유한책임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사항은 모든 주주들에게 동등한 의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최대 주주는 여타 주주들이 주식을 제3자에게 파는 것과 관련해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매년 회계연도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검증된 회계감사 절차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가 회사 자본의 1/2 이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관리자는 주주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주주는 이에 따라 주식의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정된 사항은 공식 관보에 게재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법 151조에 의해 최소 1인 2인(조직) 이상, 최대 50인(조직) 미만의 개인 또는 투자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50인이 넘을 경우 1년 안에 JSC로 전환해야 한다. 투자가(조직)가 2개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소멸된다. 자본 투자금에 한 부채금에 책임이 부과된다.

사우디 또는 GCC 투자자들의 wholly-owned 기업에게는 최소자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 기업 참여 시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0만 리얄이며, 제조업(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100만 리얄, 농업(농업 프로젝트)의 경우 2,500만 리얄, 유통업(trading business)의 경우는 2,000만 리얄이며, 서비스업은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다. 100% 지분을 단독으로 갖는 LLC를 설립하기 원하는 외국기업은 자회사 또는 그들이 선택한 특정 개인이 최소지분만 보유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LLC는 자본금의 30%까지 매년 순 이익의 10%를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경영진은 1명 이상의 인원을 보유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우디아라비아인이 경영진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주가 20명을 넘을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회사법상 회사의 손실이 자본금의 75%를 초과하고 회사를 지속하거나 투자자에게 부채 상환방안이 없다는 것이 30일 안에 받아들여지는 경우, 투자자들은 회사의 모든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지분의 3자 양도는 반드시 SAGIA(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와 상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분의 제 3자 양도 여부에 따라 SAGIA 라이선스, 상업등기, 회사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주주 동의안은 외국투자자들의 유일한 보호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 법규 외의 주주동의안도 모든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다른 계약과 같이 샤리아법과 사우디아라비아 회사법률 의무조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Al Tamimi Co.

전화번호	+966-11-416-9666
주소	Sky Tower (North Tower), 9th Floor, King Fahad Road, Al Olaia Area, PO Box 300400, Riyadh, Saudi Arabia 11372
홈페이지	https://www.tamimi.com
이메일	H.Song@tamimi.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유
비고	송형민 변호사(Song, Hyungmin)

◦ Al Sharif Law Firm (Johnson&Pump)

전화번호	+966-11-462-5925
주소	Al Mousa Commercial Centre, Tower 2, 5th Floor, Office 259, Olaya Street, P.O.Box 9170, Riyadh 11433, Kingdom of Saudi Arabia
홈페이지	https://www.alshariflaw.com
이메일	johsonch51@g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법인 설립 지원 경험 다수

◦ Shearman & Sterling LLP

전화번호	+966-11-211-2000
주소	Kingdom Centre 24th Floor, P.O.Box 90217, Riyadh 11613, KSA
홈페이지	https://www.shearman.com
이메일	brendan.hundt@shearma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 Ernst & Young

전화번호	+966-11-273-4740
주소	Levels 6 & 14, Al Faisaliah Office Tower, Al Faisaliah Office Tower, King Fahad Road, Olaya, P.O.Box 2732, Riyadh 11461

홈페이지	https://www.ey.com/en_sa
이메일	mohammed.almulhim@sa.ey.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EY 쿠웨이트 박주병 이사 사우디 담당(joobyung.park@ae.ey.com)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각 회사별 홈페이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1966년 은행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은행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Saudi Arabian Monetary Agency: SAMA)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알화의 환율 및 통화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SAMA는 1986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리알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고정하는 페그제를 선택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IMF 복합통화단위인 SDR(special drawing rights)에 4.28255사우디 리알 : SDR 1 비율로 고정돼 있었다.

2003년 1월 1일이 돼서야 마침내 3.750사우디 리알: 1달러의 비율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알의 가치를 미국 달러에 고정하는 페그제가 공식적으로 적용됐다. 페그제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알화는 수요 공급에 의한 단기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사우디는 안정적인 금융 및 수출입 거래활동과 민간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GCC 국가와도 고정환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 페그제를 포기한 쿠웨이트를 제외한 타 GCC 국가들과의 환율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개인 재산을 존중하는 이슬람법에 의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거래를 제외하고 사우디 리알화의 자유로운 태환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자금의 국외 이동, 외환보유, 반입, 반출에 관한 규제는 없으며 외화계정 개설이 자유롭고 무역 외 지급과 자본거래에 대한 제한도 없다. 외환거래에 특별한 금지 규정은 없으나 투기, 금융사기,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SAMA는 주요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은 상업등기가 돼 있지 않은 회사가 국내 은행에 개설한 외화 당좌계좌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은행은 사우디아라비아 화폐의 반출을 통화청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SAMA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외국은행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은행이 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
- 국내 은행이 국내외에서 리알화 표시 신디케이트론을 주선하고 외국 은행을 참가시키는 경우
-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리알화 표시 신디케이트론에 참가하거나 비거주자를 위한 외국 통화 표시 신디케이트론에 참가하는 경우
- 역외 은행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리알화 표시 신디케이트론에 참가하는 경우

1) 자본의 유입과 송금

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상업등기 전 사우디 현지은행에 예치되어야 하며, 최초 예치금 외에 필요한 자본금은 없다. 필수 자본금은 현지은행 계좌에 항상 예치되어야 하며, 현지 공인 회계사가 유지 여부를 매년 감시한다. 감사나 회사의 청산은 사우디 투자부(MIS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고 세금 미납이 없다는 증빙서를 제출하면 투자금의 본국 송금에는 제한이 없다.

2) 이익 송금

기업은 이익송금을 위해 세금 신고서를 Zakat 청에 제출해야 하며, 사우디 투자부(MISA)로부터 감사승인을 받고 세금 미납이 없다는 증빙을 득할 시 이익송금에 대한 규제는 없다. 배당수익 해외 송금 시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는데 해외 지사의 본사 송금은 15%, 본사 이외의 타 기업 송금은 5%이다.

3) 차입금 반입과 상환

해외 차입 관련 제한이 없으며, 해외차입금의 원리금 지급 또한 제한이 없다.

4) 로열티

외국-사우디 합작기업의 로열티 지급은 전액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로열티 지급 시에 로열티 지급 기업은 법인세를 원천 징수해 Zakat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우디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 이외 소유물 처분 이득의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

5) 무역대금 지급

수출입 관련 외환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

6) 무역대금 결제방식

사우디의 무역대금 결제방식은 신용장 결제방식(L/C)과 송금방식(T/T) 또는 어음결제 방식(D/A 또는 D/P) 등 비신용장 결제방식이 50:50의 비중으로 L/C 결제방식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사우디 은행의 신용도가 높아 L/C방식의 거래가 선호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금 결제 방식에서 사우디와 거래국가의 관행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L/C와 T/T가 90% 이상인 반면, 구미 선진국은 D/P 또는 D/A가 5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해 제3국 은행은 매입에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으나 서로 다른 주말 시스템과 종교 휴일 등의 관계로 AT SIGHT 의미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고, 사우디 은행의 신속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수일씩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6월 29일자로 사우디아라비아 주말 시스템이 기존 목, 금요일에서 금, 토요일로 변경되며 1영업일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국제 금융 및 수출입대금 결제가 원활해졌다. 현지 주재 우리 기업 및 경쟁국인 일본, 대만 기업이 일상적으로 수용하는 무역대금 결제방식은 일반 상업거래 시 L/C가 및 T/T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며, 외상 거래를 기피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경우 D/P, D/A 등 어음거래도 다수 사용하고 있다. 국가별 외환관리법 및 거래품목에 따라 연불수출 등의 방식이 선호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소비재 거래의 경우에는 L/C 및 T/T 방식이 대부분이다.

7) 은행 신용도

제3국 은행의 보증 필요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현지 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문제가 없으며 약간의 수수료만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 은행은 모두 주식회사(유한책임) 형태로서 사기업이며 국가가 지분을 보증하는 곳은 국립은행뿐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에 등록된 상업은행은 총 12개가 있다. 국립은행(National Commercial Bank), 리야드 은행(Riyadh Bank), 알라즈히 금융투자회사(Al Rajhi Banking and Investment Company)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가 소유이며 이중 알라즈히 금융투자회사는 이자를 금하는 이슬람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나머지 9개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과의 합작회사 형태로 예금과 대출 이외에 외환시장 참여, 은행 간 예금, 외채와 공채 업무 등을 담당한다.

외환 규제

외환거래에 대한 제약이 없어 자본, 활동경비, 배당, 수익금 등 투자 자금과 과실 송금이 자유로우며, 달러에 연동된 고정환율제를 채택해 환율변동 리스크가 낮다. 제조업 투자 시 물류비용, 세제혜택 등의 장점이 있으며, 석유화학 관련 저렴한 원료확보가 용이하다. 또 다른 장점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알(SAR)의 안정적 환율이다. 미국과의 페그제를 통해 1달러당 3.75사우디아라비아 리알의 비율로 고정돼 있다. 대외송금에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USD 1 = SAR 3.75(고정)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5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00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비고	사우디 남성 대졸 초임 평균은 은행 및 대기업 최소 USD 4,000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USD 3,000, 생산직은 USD 2,000 정도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USD 500~800 정도 낮다. 사우디 중앙부처, 공공기관 근로자 인터뷰에 의하면 정부기관 대졸 초임은 대기업과 비슷한 USD 4,000 수준이다. 프로젝트 근로자, 호텔 및 식당 종업원 등에 일하는 제3국 저임금 노동자의 최초 고용 시 월급은 USD 1,000~1,100 수준이다. 사우디는 2013년 2월 2일 공공 분야 최저임금을 SAR 3,000(USD 800)으로 발표한 이후, 지난 2020년 12월 3일, 최저임금을 SAR 4,000(USD 1,068)로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으며 이는 2021년 4월부터 적용되었다. SAR 4,000 이하로 지급하는 사우디인에 대해서는 Nitaqat 상 사우디인 고용비율 계산 시, 0.5인으로 계산한다고 발표하여 Saudization 준수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지급이 필수이며 우리 진출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페그제(고정환율) 사용으로 국가공식 환율은 USD 1 = SAR 3.75이다. 은행에서의 달러 매매 환율은 USD 1 = SAR 3.744 수준이고,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다.				

<자료원 : 사우디 통계청, 사우디 노동사회개발부, 리야드 무역관 자체 조사>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1) 구인 방법

사우디 내 인력 채용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된다. 한 가지는 신문 등 직원채용 광고를 통하는 것이며, 다른 방법은 리크루팅사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다. 사우디는 아직도 신문 광고가 인력 채용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일 많은 구인 광고가 아랍어, 영자 신문에 게재되고 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예: www.bayt.com)등이 활성화되어 사이트를 통해서 구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리크루팅사 역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들을 통해 일정 조건에 맞는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 우리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있는 프로젝트 시장의 경우 현장 인력을 대거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 블록 비자를 이용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인력의 경우 사우디 내 인력을 공급해주는 컨설팅사나 인력회사들이 있으며, 직원 한 명당 50~100사우디 리알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직접 현장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사우디 내 인력회사의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2013년 사우디 정부의 스폰서십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인력 조달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사우디 정부에서 지정한 몇몇 인력회사만을 통해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자 인건비 상승 등의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이 다수 생겨났다. 그 이후 기존의 인력회사들이 건설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프로젝트 수주기업과 하청계약을 체결, 하청업체 인력의 형태로 공사현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사우디 정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2) 고용계약 체결·해지

근로계약 시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수습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수습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주요 종교 휴일(이드 알 피트르와 이드 알 아드하), 병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자와 근로자 양측은 계약서상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권한을 명시하지 않는 한 수습 기간에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수습 기간 이후 해고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고용계약 기간 중의 해고는 노동자가 노동 사무소(Labor Office)에 항의할 수 있으나 계약 기간 만료 시의 고용종료에는 문제가 없다. 고용 기간이 확정된 고용계약의 해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서면으로 제공돼 양측이 합의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른 정년을 넘길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주는 사우디 노동법 80조에 의거하여 보상, 사전 통보, 배상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근무 중 또는 업무를 사유로 고용주 또는 상사를 폭행한 경우
- 계약서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질서(법규명령)를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고용주의 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련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했거나 정직성·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실한 경우
- 고의적으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관리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각종 서류를 위조한 경우
- 수습 기간 중의 근로자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0일 이상 결근하거나, 연속 15일 이상 결근한 경우
- 근로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 불법적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 업무 기밀 사항을 폭로한 경우

고용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고용계약의 해지는 월급 노동자의 경우 30일 전 60일 전, 기타노동자의 경우 30일 전 서면으로 사전통지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우디 노동법 81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유지하며 아무 제재 없이 퇴사할 수 있다

- 고용주가 기본적인 계약조건이나 근로자에 대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고용주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표자가 계약상의 근로조건 및 환경에 대해 속인 상황을 증명할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계약 또는 노동법 60조 항(부록2 참조)에 위반하는 일을 맡길 경우
- 고용주 및 그의 가족, 책임관리자가 근로자와 그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저지른 경우
- 고용주 및 책임관리자의 대우가 잔혹, 부당하거나 모욕적인 경우
- 근무지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요소를 고용주가 인지하고도 방치할 경우
- 고용주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표자가 부당대우 및 계약 위배 등을 통해, 근로자가 계약파기 당사자처럼 보이게 할 경우

근로시간

사우디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며, 주당 48시간이 규정 근무시간이다. 라마단 기간에는 2022년 기준 하루 6시간, 일주일에 36시간 내에서 근무가 가능했으며, 상기 노동시간 규정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기본 수당에 50%가 추가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근무 역시 50%의 수당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 동 내역은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 휴식시간, 기도시간은 근무시간에 계산되지 않으나,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현지 대부분의 무슬림 근로자들은 이슬람에서 정하는 기도시간(샬라)에 자유롭게 기도를 하고 업무에 복귀하며, 업무시간에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휴가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국가로 ‘목요일, 금요일’ 주말체계를 지속해왔으나 2013년 6월 29일을 기해 ‘금, 토요일’ 주말체제로 변경하는 왕의 칙령이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피고용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휴무일을 바꿀 수 있으나 주 근무시간이 6일을 넘어선 안 된다. 유급휴가는 동일 고용주하에 1년 근무 후부터 적용되며, 5년 미만 근무 시 연 21일 이상, 5년 이상 근무 시 연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근로자 간 최초 합의한 근로계약서 및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휴가 일수 조정이 가능하다. 고용주는 업무 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 시작일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근로자는 고용주의 승인 후 상호 합의한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연도 잔여 휴가 발생 시 다음 연도로 이월 또는 유급 보상이 가능하며, 이는 고용주-근로자 간 체결한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병가의 경우, 질환으로 판명된 후 최초 30일은 100% 유급휴가, 다음 60일은 급여의 3/4을 받으며, 그다음 30일은 무급휴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는 고용주 또는 정부기관 지정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바탕으로 1년간 유효하다. 고용주는 병가기간이 규정기한을 넘지 않는 한 질병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병가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모든 여성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출산 예정일 직전 4주와 출산 후 6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동안, 고용주는 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임금의 50%, 3년 이상 근무했을 시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간 중 근로자에게 해고 및 그에 상응하는 경고를 할 수 없다. 여성 근로자의 남편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최소 15일의 100%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무슬림 여성의 경우는 개정법에 따라 4개월 이상의 긴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

이 외에도 본인의 결혼, 배우자 혹은 본인의 직계존속 사망 시 5일, 건국기념일 1일, 자녀 출산 시 3일, 이드 알 피트르와 이드 알 아드하에 각각 4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이드 알 아드하 기간에 성지순례를 원할 시 재직 중 1회에 한해 10일~15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계약 시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수습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수습 기간은 최대 90일이며, 주요 종교 휴일(이드 알 피트르와 이드 알 아드하), 병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자와 근로자 양측은 계약서상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권한을 명시하지 않는 한 수습 기간에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수습 기간 이후 해고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고용계약 기간 중의 해고는 노동자가 노동 사무소에 항의할 수 있으나 계약 기간 만료 시의 고용종료는 문제가 없다. 고용 기간이 확정된 고용계약의 해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서면으로 제공돼 양측이 합의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른 정년을 넘길 경우 등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주는 보상, 사전 통보, 배상 등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근무 중 또는 업무를 사유로 고용주 또는 상사를 폭행한 경우
- 계약서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고용주의 서면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련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불법행위를 했거나 정직성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실한 경우
- 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위조한 경우
- 수습 기간 중의 근로자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20일 이상 결근하거나, 연속 10일 이상 결근
- 근로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 불법적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
- 업무 기밀사항을 폭로한 경우

고용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고용계약의 해지는 월급 노동자의 경우 30일의 사전통지, 기타 노동자의 경우 15일의 사전통지가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적 문제 없이 퇴사할 수 있다.

- 고용주가 기본적인 계약조건이나 근로자에 대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고용주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표자가 계약상의 근로조건 및 환경을 숙인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계약 또는 60조 항에 위반하는 일을 맡길 경우
- 고용주 및 그의 가족, 책임관리자가 근로자와 그의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저지른 경우
- 고용주 및 책임관리자의 대우가 잔혹, 부당하거나 모욕적인 경우
- 근무지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요소를 고용주가 인지하고도 방치할 경우
- 고용주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표자가 부당대우 및 계약 위배 등을 통해, 근로자가 계약파기 당사자처럼 보이게 할 경우

퇴직금

노동법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바탕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1년 미만 근무 시: 없음
- 1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시: 월 급여의 $1/2 \times$ 근무연수
- 5년 이상 근무 시: 5년까지는 월 급여의 $1/2 \times 5$ 년, 6년째부터는 연 1개월 치 월급 지급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1969년 11월에 제정된 사회보험법(Social Insurance Law)은 직업병, 산업재해 및 연금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보험청(일반사회보험조합)(GOSI: General Organization for Social Insurance)이 설립됐으며, 2000년 11월 13일 해당 사회보험법이 개정돼 보험료율 및 보상한도 등이 개정됐다. 2002년 8월에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을 의무화하는 건강보험제도(Co-operative Health Insurance Scheme)를 발표했다.

- 의료보험

2002년 보건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을 명시한 단계적 의료보험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의 부담률은 보험회사와 협의 후 결정할 수 있다. 고용주의 최소 부담 금액은 6만 6,650달러이며 최대 부담 금액은 26만 6,560달러로 정해져 있다.

(노동법 제144조)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적용 대상: 사우디아라비아 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와 부양가족, 다만 정부기관에 고용된 자는 제외
- 적용단계
 - 1단계(2006년 6월~2007년 5월): 50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 2단계(2007년 6월~2008년 5월): 100~500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 3단계(2008년 6월~현재): 100인 미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업 및 가정부 등 사고 용인

사우디아라비아인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역시 2008년부터 의무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인의 의료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9%씩 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82%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의료보험 적용부문은 대부분의 의료서비스에 해당되나 에이즈 관련 치료, 장기이식,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정신치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사회보장보험(Social Insurance)은 산업재해 부문(Occupational Hazard Branch)과 연금 부문(Annuities Branch)으로 구분돼 있다. 산재보험 부문은 2002년 9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인과 외국인 고용자 모두 적용된다. 보험료율 및 적용 대상은 사회보험법 제18조에 명시돼 있으며, 산재 보험료(근로자 월 급여의 2%)는 종전(2000년 이전

)과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연금 부문은 종전부터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해오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인에게만 적용되고 외국인에 대한 연금보험제도는 1987년도에 폐지됐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종전까지 13%(고용주 8%, 근로자 5% 부담)였으나, 고용주 부담비율은 2001년부터 9%로 인상 시행했고, 근로자 부담비율은 2001년 6%, 2002년 7.5%, 2003년 9%로 상향 조정을 시행해 현재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9%씩의 연금보험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연금보험으로 고용주가 11%, 근로자가 9%, 총 20%를 납부하게 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산재 보험료만 2%를 납부하게 된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세금체계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세는 크게 두 개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Non-Saudi, Non-GCC Company(Foreign Company)와 사우디아라비아 내국 기업, GCC-Company로 구분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외국인 출자법인의 경우, 법인 소득세 20%를 내는데 이는 2004년 기준 30%에서 20%로 인하한 것이다. 외국인투자자의 세금납부 및 회수, 처리절차 등 소요시간이 짧고 절차가 간소한 편으로 세금과 관련한 투자 환경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세금도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중 내국인 출자기업 및 합작기업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지분에 해당하는 종교세와 외국인투자지분의 법인소득세를 각각 투자한 지분비율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내국 기업의 경우 법인세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종교세에 해당하는 연 2.5% 수준의 Zakat(자선용 세금)을 납부한다. 사우디 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내국인 출자기업 및 합작기업의 경우 사우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종교 세와 외국인투자지분의 법인소득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임시납세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 증명서가 있어야 비자발급, 외국인 고용, 계약 입찰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상 계약액의 10%인 계약액 최종 지급분 수령에는 세금완납증명서가 필요한데, 이 증명서는 자카트 소득세국(DZIT: Department of ZAKAT & Income Tax)이 납세신고를 검토해 세금 정산이 완결돼야 발급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납세체계는 유한책임회사(Limited-Liability Company)나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에 유리하다. 이 형태의 회사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어디에서나 지사 설립이 가능하고, 세금신고도 지사들이 속하는 한 법인이 통합해서 단일 신고만 하면 된다. 지사의 경우, 본사의 비용할당이나 관리비는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며, 납세신고가 필요한 지사의 비용들은 세무 당국의 검사를 받기도 한다.

1) 법인세 과세 대상

- 거주자 자본 회사의 비사우디아라비아 지분
-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사우디아라비아 자연인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정 사업장(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외국 기업 지사 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
- 사우디아라비아 내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 수입이 있는 비거주자
- 천연가스 투자활동에 관련된 독립체(기업 등)
- 오일과 탄화수소 관련 독립체

2) 사우디 거주 규정

- 사우디아라비아 내 영구적으로 거주할 거처를 가지고 있으며 과세연도 동안 적어도 30일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문 경우
- 과세연도 동안 적어도 183일 이상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한 경우(하루 중 잠시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문 경우, 1일로 인정하나 두 지점 간 환승 시에는 불인정)

3)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율

-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세법에 따른 모든 기업 납세자: 20%
- 원유(Oil), 탄화수소 생산에 참여한 납세자: 50~85%

과세는 이익의 유보 또는 배당과 관계없이 연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합작투자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인 투자자 또는 GCC 회원국 투자자

는 고정자산에 투자되지 않은 자본금에 대해 ZAKAT 2.5%(고정)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외국 기업의 경우 수익(=매출-경비)의 20%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4) 과세소득

일반적으로 과세는 기업의 총수입을 대상으로 하는데, 회사수입, 이익은 물론 사업과 관계있는 시설의 이용,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과 자본소득, 부수 이익 등 기업활동으로부터 산출되는 모든 종류의 이윤도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피고용인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의 경우 수익은 완공기준이 아니라 공정진행 기준으로 산정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내 자산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은 신고해야 한다. 해외 소득은 해외 활동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활동과 같은 시기에 같은 법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과세 대상이며,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려우나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인 외국 법인의 해외 영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 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공급계약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서비스(플랜트의 경우 설치 등)를 수반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공급계약에 사우디아라비아 내 서비스를 적시하고 그 가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가액이 과세소득이며, 서비스의 가액이 확정돼 있지 않은 경우 각 종류의 서비스에 대해 각각 계약액의 10%가 서비스 가액으로 의제 적용된다. 공급계약이 사우디아라비아 내 서비스를 수반하지 않으면 물품공급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비과세이다. 물품 공급 부분과 사우디아라비아 내 서비스 부분을 별도의 계약으로 분리하면 물품 공급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합작기업의 로열티 지급은 전액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으로 간주해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로열티 지급 시에 로열티 지급 기업은 법인세를 원천 징수해 Zakat 소득세국(DZIT)에 신고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자본이득, 기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 이외 소유물 처분이득의 경우 소득세가 면제된다.

5) 공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발생한 모든 영업비용 즉, 급여(DZIT는 소득신고서 제출 시 자세한 지급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요금, 임차료, 감가상각비,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자, 외국 기술과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한 지불, 회사 간 수수료 등은 법인세 과세 공제 대상이다. 단,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이자는 15%의 의제이익에 대해 과세된다. 배당금 지급은 공제되지 않으며,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5% 원천 과세된다. 납부세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외지급을 막론하고 공제되지 않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한책임회사(limited-liability Company)가 외국에서 영업하면서 세금을 낸 경우 그 세금에 대해 과세 대상 공제를 신청할 수는 있다. 증빙이 없는 비용, 계약액의 5%를 넘는 대리인 수수료, 회사영업과 무관한 비용, 일반 적립금, 본사 관리비용 할당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6) Zakat

Zakat는 이슬람법(Shariah)에서 정하는 종교세의 일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인 또는 GCC 국민이 소유한 회사, 사우디아라비아인이 참여한 합작회사에 과세된다. 통상 개인 순 자산 또는 기업 총자본의 2.5% 수준에서 부과되며, Zakat 납부대상에는 자본금, 순이익, 유보이익, 일반적립금(특정 부채와 무관하고 12개월 이상 유지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고정자산, 장기투자, 이연원가에 투자된 자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Zakat 납부 대상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익 중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 지분에 대해 2.5%의 Zakat가 적용된다. 산업분야(industrial)과 상업분야(commercial)에 종사하는 Zakat 세금 납부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적절한 회계기록장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7) 면세

사우디아라비아 세금체계가 매우 단순해 면세 또는 세금 관련 인센티브는 매우 드물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국왕의 칙령(Royal Decree)에 따른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면세는 거의 없다. 그러나 향후 주요 공단 원 거리 지역에 조성될 산업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는 법인세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 Fixed Buildings : 감가상각률 5%
- Industrial and agricultural movable buildings : 감가상각률 10%
- Factories, machines, engines, hardware and software(computer software) and equipment, including passenger cars, and cargo vehicles : 감가상각률 25%
- Expenses for geological surveying, drilling, exploration, and other preliminary work to exploit and develop natural resources and their fields : 감가상각률 20%
- All other tangible and intangible depreciable assets : 감가상각률 10%

감가상각공제는 납세자의 토지 이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유형 또는 무형)에만 허용된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과세연도를 초과하는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하며, 과세연도 이후 노후화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자산을 말한다.

9) 세금신고

세금신고가 필요한 납세 대상자는 규정된 양식에 맞게 정해진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용해 세금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해, 당해연도 말로부터 120일 이내로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비즈니스 활동을 중단할 경우에는 중단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세금신고도 끝쳐야 한다. 100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이상 납세 대상자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회계사에게 검증받고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만 사우디아라비아 리알 이하 총수입의 1%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금 신고 지체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단, 전술한 벌금이 다음의 부과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세금신고 지체 벌금 구간은 아래와 같다.

- 초과일: 마감기한~30일 이하 / 미납된 세금의 5%
- 초과일: 30일 초과~90일 이하 / 미납된 세금의 10%
- 초과일: 90일 초과~365일 이하 / 미납된 세금의 20%
- 초과일: 365일 초과 / 미납된 세금의 25%

세금을 회피할 의도로 납세자 또는 공인회계사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을 시에는 세금차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 현재 납세자의 실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 장부, 기록, 계정, 또는 문서를 제출
- 이익을 줄이거나 손실을 과장할 의도로 송장 및 문서를 변경
- 과세 대상 활동에 관해 보고하지 않는 경우
- 정부 부처가 확인하기 전 고의로 장부, 기록, 문서를 손상시키거나 숨기는 경우

10) 납세 기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력(Hegira)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과세 대상자는 세무당국에 서양력(Gregorian Calendar)에 납부한다는 의사를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슬람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서양력과 차이가 있으므로 납세일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납세신고는 회계연도 말 후 2.5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신청 시 잠정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잠정세금이 최종 정산세액에 10% 이상 미달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과세는 발생한 수익을 대상으로 하는 발생주의를 따른다. 더불어 원천징수 대상 세금과 선분납 세금을 포함해 납부일을 넘겼을 경우, 납세 마감일로부터 납세일까지를 산정해 연체 30일마다 납세금의 1% 벌금이 부과된다. DZIT는 세금연체에 초과일을 측정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세대상 수입을 누락하면 25%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11) 자본세(capital tax)

자본세는 없으며, Zakat가 자본세 성격이다.

12) 자본이익의 처리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자산처분에 따른 이익은 총소득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외에서 처분한 자산에 따른 이익은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합작회사의 지분을 매각한 외국 법인은 지분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과세 대상이 된다.

- Zakat/소득세국의 계산식 : 자본이익 = 합작회사의 3년간 평균이익/매출액×납입자본금

추가로 지분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 중 높은 것을 근거로 정산한다. 면세기간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면세는 합작기업의 외국인투자자 지분 해당 이익에 적용되는 것이지 본사가 획득한 지분매각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배당과세: 외국인 주주의 배당금은 원천과세하지 않으나 배당금의 해외 송금 시 5%의 원천징수하며, 외국인 주주 지분 순이익에 대한 30% 세금은 지급 배당금에서 공제된다.

- 이자에 대한 세금: 없음

13) 로열티와 수수료에 대한 세금

외국 기업(보험사 포함)으로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별도로 기장하지 않고 DZIT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소득의 15%라는 정상 법인세율로 의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컨설턴트 수수료나 경영서비스 수수료는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며, 외국기업에 하청을 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은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외국기업은 원천 징수되는 세금을 발주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거나, 적어도 원천 징수된 세금이 실제로 세무당국에 납부됐다는 증빙을 요구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상표 등에 대한 로열티를 비롯해 라이선스비, 렌트비용 등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자본으로 거둬들인 이익을 수입으로 본다. 그래서 DZIT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이 외국주주나 제3자에게 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전액을 과세대상인 이익의 배당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 위험을 피하려면 계약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되 '면허', '로열티', '특허', '상표권' 등의 용어를 피해야 할 것이다.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용역 수수료는 15%의 이익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5개월 이내에 원천 징수세를 납부해야 한다.

14) 이중과세방지협정

사우디아라비아 합작기업의 모든 세금 부담이 외국 파트너에게 떨어지지만, 미국 국세청은 합작기업의 외국파트너 지분 비율에 따라서만 조세를 감면한다. 1992년 내각 결의로 재무부 주관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터키, 중국, 아르헨티나, 독일, 기타 EU 국가, 그리스와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나,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미국과는 2000년 초에 항공사와 해운회사의 활동에 국한해 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르면 두 나라의 해당 업종 회사들의 국제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대방 국가의 과세로부터 면제되고 있다. 한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은 2007년 3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순방 시 양자 간 체결됐다.

15) 기업 간 비용

기술, 엔지니어링, 연구 등의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고, 고정자산 가치의 증가나 재고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으며, 현지에서 과세대상 이익을 위해 쓰인 것이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계약과 관련해 일하는 기술인력의 급여, 여비 등 직접비용에 국한되며, 일반 간접비용의 지급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16) 지역경영회사

외국공급자의 물품을 공급하는 현지 공급자를 지원하는 기술서비스 또는 과학서비스 사무소처럼 상업활동 면허가 없는 지역사무소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 사무소의 국외 소득이나 국외 본사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매출세, 판매세, 종량세, 판매세, 소비세, 인지세는 없으며, 기타 조세로 일부 법적 서류에 명목적인 세금이 붙는 경우가 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사회보장을 위한 회사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사우디아라비아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개인소득세가 없지만, 이슬람 율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인과 GCC 회원 국민은 재산 및 소득의 2.5% Zakat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의 개인소득도 1975년 이래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영업을 통해 얻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Saudi Sourced Income 소득의 경우는 20%의 비례세(Flat tax)의 영향을 받는다. 회사 내 피고용인을 위한 사회보장 연금을 위해 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과세대상 소득

사우디아라비아인은 자본(판매용이 아닌 자산은 제외)과 자본소득, 가축 작물, 사업, 산업, 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이익, 상업활동과 금융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자산과 금전적 재산수입, 배당에 대해 Zakat를 납부해야 한다. 제조업이나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Zakat 납부자는 적절한 회계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이 외에는 인정과세 대상이다.

○ 개인 소득세율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나 외국인 자영업자는 소득세법에 적용돼 소득세를 납부한다.

- 개인소득: 0~16,000사우디 리알 / 개인소득세: 소득 * 5%
- 개인소득: 16,001~36,000사우디 리알 / 개인소득세: 800 + (소득-16,000)*10%
- 개인소득: 36,001~66,000사우디 리알 / 개인소득세: 2,800 + (소득-36,000)*20%
- 개인소득: 66,001사우디 리알 이상 / 개인소득세: 8,800 + (소득-66,000)*30%

부가가치세

사우디는 2018년 1월 1일부로 GCC 국가 중 최초로 부가세 5%를 도입했다.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비석유 부문의 수입을 증대시키려는 사우디 비전 2030 정책의 일환이다.

2020년 7월 1일에는 기존 5%의 부가세를 15%로 3배 인상했다. 코로나로 인한 내수 침체, 국제유가 급락 등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코로나에 따른 경제위기로 2020년 기준 사우디 정부 재정적자는 전년대비 두 배 넘게 악화되어 79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지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정부수입 대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에 기인하였다. 이런 연유로 사우디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을 당초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21년부터 재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같은 기간 석유분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한 25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비석유분야 수입 또한 55% 감소한 105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석유 분야의 주요 수입원은 성지순례 관광산업이다.

2018년 부가세 5% 도입 이후 연간 12억 달러의 세수 증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2020년 7월 1일부 부가세 3배(5→15%) 인상으로 인해 연간 세수는 최소 18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대는 정부 재정에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물가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PWC, 딜로이트 등 전문 회계법인은 부가세 3배 인상으로 인해 사우디 평균 물가가 최소 6% 이상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5월, 왕세자는 부가세 관련하여 5년간은 15%로 유지하여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며, 이후 세율을 5~10% 수준으로 점진적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별소비세

2017년 6월 10일부로 담배(100%), 전자담배(100%), 탄산음료(50%), 에너지 드링크(100%)에 대해 개별소비세(selective tax)를 부과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세(Real Estate Transaction Tax : RETT) : RETT는 부동산 처분에 따른 전체 가격의 5%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토지와 건물, 또는 건설 중인 구조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일부 특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 특별소비세에 더하여 2019년 5월부터 전자담배 액상(100%), 설탕음료(50%, Sweetened Drinks)에도 추가 개별소비세 (selective tax)를 부과하고 있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은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등이 있으며 별도의 실용신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재산 관련 기관으로 사우디의 지식재산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SAIP)은 상무부 산하에 위치한다.

사우디에서는 이슬람 율법과 공공질서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상업적 이용이 이슬람법에 반하는 디자인도 등록 받을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PCT 조약의 회원국이므로 사우디를 지정국으로 하여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내단계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만 지역 협력체(GCC) 가맹국으로서, GCC 특허법에 의해 설치된 GCC 특허청을 통해 특허출원이 가능하며 특허가 등록되면 6개 가맹국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발행한다. 등록 결정된 특허가 공고되면,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사우디의 디자인은 방식요건을 만족하면 등록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등록되며, 상품 분류 중 알코올음료, 돼지고기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로서 이슬람 샤리아 규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법, 사회상규에 반하는 저작물은 등록할 수 없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문학과 예술작품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과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정에 가입했으며,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2013년 5월 가입하여, 같은 해, 8월부터 발효되었다.

사우디는 2019년부터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3,800만 달러를 투자해서 2023년까지 생태계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지식재산 전문가를 파견하고, 사우디 특허심사관을 초청하여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차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 특허청과도 협업을 진행하였다. 관련하여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 사우디 개인/중소기업 대상 지식재산권 상담 등 3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양 기관 간 화상회담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추진사업의 후속조치로 2022년 1월 17일, 한-사우디 양국간 지식재산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중점 추진할 5개 분야 35개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11명의 한국 지식재산 전문가들을 파견기로 합의했다.

9. 청산 및 철수

청산 및 철수

1) 개요

사우디 내 기업입법은 1965년 제정된 회사법에 통제를 받는다. 지불 불능, 파산, 채권자 권리 등의 사안은 주로 강제청산 명령권리가 있는 영리회사 분쟁조정위원회와 고충처리 위원회 및 1996년 제정된 파산방지합의법을 따른다. 임의 청산의 경우, 사법기관의 관리감독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파트너가 사업을 해산해야 한다. 청산은 기업을 마무리 짓고 자산을 재분배하는 과정이다. 매각자산은 ① 기업 청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지불 ② 채무 상환 ③ 자본금 중 파트너의 지분 배상 ④ 잔존 흑자의 경우, 기업운영방침에 따라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데 사용돼야 한다.

법인 철수 및 청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기업이 목적을 달성했을 수도 있고 파트너와의 합작사업이 완료됐을 수도 있으며, 파트너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또한, 세금 및 경영관리 목적으로 기업을 재편성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합병이 임박해서일 수도 있으며, 중요 파트너의 은퇴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철수 및 청산 시 회사 손실이 자본의 50%에 도달할 경우, 경영자는 의무적으로 회사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해 파트너들과 논의해야 한다. 정관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최종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 자본의 최소 75%를 보유한 파트너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따르지 않거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들에게 기업 해체를 요청할 권리가 주어진다.

2)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법인 철수는 ① 청산 원인 결정 → ② 파트너 결의안 통과 → ③ 청산인 선정 → ④ 정부 관련 절차 → ⑤ 자산 및 부채 조사 → ⑥ 회계연도 말 회계 관리 → ⑦ 자산 분배 순위 → ⑧ 최종 보고서 작성 → ⑨ SAGIA 승인의 절차를 걸쳐서 이루어진다.

(1) 청산 원인 결정

철수 및 청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어야 한다.

- 명시된 사업 기간 만료
- 회사 설립 목적 달성 또는 달성 가능성 희박
- 파트너 혹은 주주에게 지분 이전
- 회사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손실
- 정관상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 해체에 관한 파트너의 승인
- 기업 합병
- 만약 동업자가 중대한 사유로 철수 및 청산을 요청했을 경우, 기업분쟁위원회에서 결정

(2) 파트너 결의안 통과

파트너들은 총회 또는 서면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 기업 운영 중단과 기업체 청산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1인 이상의 청산인 임명 및 명시(단, 결의안 내용에 따라 파트너들이 청산인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음)
- 청산인의 권한 명시

결의안은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 하며, 공식적으로 사우디 신문인 Um al-Qura에 게재되어야 한다.

(3) 청산인 선정

파트너가 청산인을 선정하면, 청산인에게 자사 및 부채의 회계감사, 통제, 부채상환 및 흑자배분 등의 권한이 위임된다. 만약 청산인이 1인 이상일 경우, 그들은 범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가진다.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의 권한을 갖게 되며, 기업은 권한 내에서 청산인의 처리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념해야 한다. 청산인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명백한 법적 책임을 가진다.

- 현존계약 의무: 현재 유효한 합의 및 제안사항을 마무리해야 한다.
- 건물 임대차 및 사무실 용품
- 고용 관련 문제: 사우디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노동계약과 관련해 고용인 친화적이다.

따라서 노동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지불해야 하므로 회사에 큰 부담이 된다. 고용 관련 문제 해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스폰서 이전 및 노동비자 취소를 포함하므로, 절차상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4) 정부 관련 절차

기업은 다음의 행동지침을 따라야 한다.

- 청산인을 대표해 행동 위임장 발행
- 회사 레터를 이용해 서신을 작성한 후, Zakat 및 소득세 관련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상공회의소로부터 감정
- 스폰서 이전 및 비자말소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와의 계약관계 합의 후, 외교부로부터 모든 종사자 비자 취소가 명시된 인쇄물 혹은 레터를 취득
- 외교부로부터 얻은 인쇄물 혹은 레터를 이용해, 기업 노동 사무소 정보 무효화
- 외국인투자자에게 허가증을 부여하는 SAGIA에 기업활동 중지 및 허가증 삭제 요청 파일을 제출 (전액 사우디 출자 기업의 경우 불필요)
- 사회보험 취소
- 지방자치 허가증 취소
- 통상·투자부 회원 자격 취소
- 상업등기 취소

(5) 자산 및 부채 조사

사전 약속된 3달 이내에, 청산인은 기업 회계감사원과 협동해 기업의 전 자산 및 부채를 상세히 조사해야 하며, 경영진은 모든 관련 사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6) 회계연도 말 회계관리

회계연도 말에 청산인과 회계감사원은 청산 절차 보고서 및 기업 회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상기 서류는 기업 총회에서 파트너에게 제공되거나, 기업 내규에 따라 처리된다.

(7) 자산분배 순위

기업 자산분배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 청산과 관련된 지출 및 수수료
- 채무상환
- 파트너 납입자본지급
- 잔존 흑자는 기업내규에 따라 파트너에게 지급되며, 내규가 없을 시 비례 지급한다.

(8) 최종 보고서 작성

청산 완료 후, 파트너는 최종 보고서를 승인하고 청산인은 기업 내규 요구조건 및 청산인 행동 관련 최초 결의안에 따라 청산 완료를 공표한다.

(9) 결의안 발행

청산 완료를 공표하고 파트너의 인준은 Um al-Qura에 게재되어야 한다. 인준은 공증될 필요 없다.

(10) SAGIA 승인

최종 절차가 마무리되면 SAGIA 신고 후 GM(General Manager)의 최종 EXIT 비자를 발급받은 후 사우디에서 출국이 가능하다.

3)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기업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은 2015년에 개정되고 2016년 5월 2일부터 실행된 회사법 10장에 명시돼 있다.

◦ 203조:

- 청산 결정 즉시 기업은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기업 관련 문제를 마무리하고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법적 지위는 유지된다.
- 경영진 또는 이사회는 권한은 기업청산과 함께 소멸된다. 그러나 청산인이 정해질 때까지, 이들은 기업운동을 지속해야 한다.
- 주주총회는 청산 절차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그들의 역할은 청산인과 충돌하지 않는 한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제한될 것이다.
- 청산 기간 동안 주주는 규정이나 회사 정관 또는 세칙에 의해 설정된 회사의 서류를 액세스(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 204조:

- 청산하는 방법이 세칙이나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한, 청산은 규정의 조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205조:

- 청산은 1인 또는 1인 이상의 청산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주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사법적 청산은 관할 법원이 내린 판결에 의한다. 자발적인 청산은 주주 또는 일반 협의회의 결의로 이루어진다. 주주 간에 의견이 제3 조항에 항목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법 당국은 이에 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 사법 또는 자발적인 여부와 관계없이 청산 결정은 청산인을 임명하고 그의 권한과 수수료, 그의 권한 제한 및 청산에 필요한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청산인은 세척 또는 회사 정관의 개정을 위해 설정된 발표 절차에 따라 청산 확인서를 발행해야 한다.

- 자발적 청산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법 명령 없이는 연장될 수 없다.

◦ 206조:

- 만약 청산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청산인 임명단체에서 따로 활동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공동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 및 업무상 실수로 기업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회사, 혹은 파트너에게 보상해야 하며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 207조:

- 청산인 임명 문서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청산인은 입찰 또는 경매를 통해 동산 및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사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가진다.

- 하지만 만약 청산인 임명 단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청산인은 한 번에 모든 회사자산을 매각할 수는 없다.

- 더불어 청산인은 이전 청산작업의 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청산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 회사는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청산인이 수행한 모든 행위에 구속된다.

- 청산인의 권한은 규정의 조항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청산 기간 만료 시에 만료된다.

◦ 208조:

- 청산인은 지불해야 하는 회사부채를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부채상환의 지연이나 분쟁 발생의 경우를 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

- 청산으로 인한 부채는 타 부채보다 상환 우선권을 가진다.

- 위에 서술된 바와 같이, 채무변제 후 청산인은 반드시 구성원들에게 자본지분을 반환해야 하며 회사 내규 및 정관에 따라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 만약 정관에 이와 관련된 항목이 없을 시, 수익은 지분지분 비율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 회사 순 자산이 구성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 손실분배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손실분이 나뉜다.

○ 209조:

- 취임 3개월 이내에 청산인은 기업 회계감사원과 함께 회사자산 및 부채를 조사해야 한다.

- 경영진 또는 임원은 청산인에게 회사 회계장부, 기록, 문서 및 청산인이 요구하는 상세 자료 등을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 매 회계연도 말에 청산인은 차 조표, 손익계산서 및 청산 과정에 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회사정관 및 규약에 따라 승인을 위해 총회 또는 구성원에 제출된다.

- 청산 완료 후, 청산인은 그들의 활동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관 또는 부속정관에 명시된 방법으로 청산 완료를 통지해야 한다.

○ 210조:

- 사기와 위조를 제외하고는 209조 규정에 따라, 청산완료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부터는 기업운영 구성원 및 경영인, 임원, 회계감사관에 한 소송이 금지된다. 또는 청산인의 퇴직으로부터 3년 경과 후부터는 청산에 관해 청산인에 한 소송은 금지된다.

4) 기업 형태별 청산절차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

- 특별주주총회 개최
- 청산 결정에 관한 증빙서류(Testimonial)를 관보(Official Gazette)에 기재
- 최종 청산일까지의 Zakat 지불
- 피고용인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노동국의 승인 획득
- 기업부채가 없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최종 회계장부 작성
- 청산 내용을 관보(Official Gazette)에 기재
- 상업등기 철회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파트너의 의견이 첨부된 기업청산요청 서류 제출
- 정확한 청산날짜가 기재돼 있으며, 칙허 회계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최신 재무 보고서 제출
- 청산인 임명과 청산 여부에 관해 발표
- 파트너와 칙허 회계사로부터 승인받은 청산에 관한 최종 회계장부 제출
- 상업등기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Department of Zakat & Income Tax부서의 납부증명 제출

- 피고용인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노동국의 승인 획득

- 청산 종료 발표

합자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파트너의 의견 및 서명이 첨부된 기업청산요청 서류 제출

- 정확한 청산 날짜가 기재돼 있으며, 칙허 회계사로부터 승인받은 최신 재무보고서 제출

- 청산인 임명과 청산 여부에 관해 발표

- 파트너와 칙허 회계사로부터 승인받은 청산에 관한 최종 회계장부 제출

- 상업등기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Department of Zakat & Income Tax부서의 납부증명 제출

- 피고용인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노동국의 승인 획득

- 청산종료 발표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특성

소비인구

사우디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우디 인구는 3,584만 명이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층이 인구 전체의 약 50%에 달하는 젊은 국가로 성장 및 소비 잠재력이 인근국에 비해 매우 높다. 전체 인구 중 2/3 가량인 약 2,300만 명이 사우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3 가량인 약 1,200만 명은 제3국 출신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 출신이다.

사우디 통계청 기준 2022년 실업률은 전년도 동기 대비 0.7% 감소한 6.0%를 기록했다. 2020년 코로나와 국제유가 감소의 영향이 2021년 코로나 확산 완화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기 회복 추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사우디인에 대해서만 통계 시에는 10.1%이며, 이러한 자국민의 실업률이 평균 대비 높은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국민 의무 고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원 : 사우디 통계청(GASTAT)>

소비 성향

1) 가처분소득 증가 및 높은 구매력

사우디아라비아 소비자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따라 높은 구매력을 보이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21년 1인당 GDP는 23,510달러로 국제유가 회복 및 고유가 유지에 따라 최근 부가세가 15%로 인상되는 등 개인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개인소득세, 소비세 등 세금제도가 없어 개인소비, 개인저축 등 가처분소득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 고가 VS 저가시장

사우디아라비아는 고가와 저가시장으로 양분돼 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류층 이상의 사우디인은 고가, 고급 브랜드를 선호하는 반면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제3국 노동자 저소득층은 저가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 예로, 리야드 중심지인 Olaya지역에는 롤렉스, 에르메스, 샤넬 등 초고급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쇼핑몰이 있는데 주차를 하기 힘들 정도로 상류층의 방문이 잦은 반면에, 리야드 중심지에서 30~40분 거리에 위치한 제3국민 밀집지역인 Batha 지역은 옛날 전통시장이나 오래된 건물, 짝퉁브랜드 등으로 대표될 만큼 지역이 대비된다.

3) 제1 구매결정 요소 '가격'

사우디 바이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결정 요소는 가격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세계 주요 브랜드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시장이다. 비슷한 스펙의 제품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바이어 역시 구매 결정 요소로 가격을 우선시해 가격 경쟁력 강화가 시장진출 및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제조업 비중이 낮아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며, 고객 만족, A/S 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 성격이 강하다. 다만 최근 들어 저품질 중국 제품에 실망한 소비자 및 바이어들 사이에서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4) 쇼핑몰 중심의 소비패턴

이슬람 율법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영화관, 극장, 음악 등의 여가문화가 발달해 있지 않다. 2018년에는 35년 만에 상업영화관이 재개장하긴 했지만 여전히 쇼핑몰이 소비패턴의 중심에 있다. 더욱이 더운 기후로 외부 활동을 꺼리며, 가족 단위의 쇼핑몰 방문이 하나의 레저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리야드, 젯다, 담맘 등 주요 도시에는 대규모 주요 쇼핑몰이 다수 있으며, 쇼핑몰은 남성 및 여성의류, 화장품, 카페, 식당, 유아용 놀이 테마파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쇼핑몰에서 발전하여 Zone 형태의 작은 단지형 복합소

핑몰이 많아지고 있다. 해당 단지 내에서 쇼핑할 수 있는 공간과 레스토랑, 카페 등을 결합하여 가족 단위, 젊은층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5) 여성 소비 증가

사우디는 종교적 이유로 여성의 사회 참여 제약이 많다. 그러나 인터넷, 위성TV를 통한 외국 문화의 유입과 해외유학 증가 등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우디 내의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도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여성 소비 증가가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여성 관련 제품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미용 기기 등 관련 제품이 유망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쇼핑, 배달이 활성화되면서 여성의 소비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온라인 쇼핑 및 배달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을 경험한 사우디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제품 구입을 비롯한 신선식품 익일배송 등 한국과 유사한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이 완화되었지만, 오히려 온라인 구매는 증가하여, 주요 대형마트들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제품 및 신선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 및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소비자의 지갑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사우디 내에서도 젊은 층과 마니아층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한국 음악과 가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고, 드라마의 경우 두바이, 이집트 등 주변 중동국가의 방송을 통해 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2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자나드리야 문화축제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돼 한국관을 개설했으며, 이는 우리의 첨단기술, 산업,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에 힘입어 K-Pop을 중심으로 젊은 층에서 한국 음악과 가수,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8년 4월에는 상업영화관이 재개관했고, 엔터테인먼트 트칭(General Authority Entertainment) 등이 신설되는 등 스포츠 행사 외에도 문화행사, 공연, 영화 등이 허용되기 시작하며 한류 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Youtube, Facebook 등 인터넷과 SNS를 활용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드라마 및 K-pop을 접하는 사우디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1970년대 각종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근면 성실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며, 최근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선진국에 속한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도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사우디스타일'이 제작되고 신문에 가수 싸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리기도 했으며, BTS 열풍과 최근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에 관심도가 매우 높다. 이러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의 확대는 향후 사우디 내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와 한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9년 7월에는 아시아 가수로는 최초로 한국의 슈퍼주니어가 '젯타 시즌 페스티벌'에 참가해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으며, 2019년 10월 '리야드 시즌 페스티벌'에는 방탄소년단(BTS)이 사우디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여 그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 2021~2022년 개최된 '리야드 시즌 페스티벌'에는 한국 여자가수 청하가 방문하여 공연했으며 리야드 시즌 주 개최장소인 Boulevard City 내 오징어게임 체험관 및 한국음식점 등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졌다.

이런 한류에 힘입어 2017년 이후 한국산 휴대폰 및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하게 좋아지기 시작하여 기존 수입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스마트폰과 자동차 외에도, 한국드라마, 영화, 식품 및 화장품까지 확장해 가고 있다. 실제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인 더페이스샵, 스킨푸드, 네이처리퍼블릭 등이 주요 쇼핑몰에 입점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식품점 역시 규모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K-POP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2022년 9월 말~10월 초에는 CJ ENM이 KCON을 개최하며, 2022년 연말~2023년 연초에는 '리야드 시즌'에 한국가수 초대 및 SM엔터테인먼트에서 자체 콘서트도 진행하는 등 이러한 문화교류와 함께 한국 문화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거래 진행 및 접촉

사우디아라비아는 관료적 문화가 강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단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아주 단순한 의사 결정이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협상은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며, 서둘러 결과를 도출하려는 비즈니스 진행 방식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 성사를 위해 결정을 재촉하거나 압박할 경우, 연락을 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결정이 지연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상거래 초반에는 속도가 더딜지라도, 사우디 측의 거래 진행이 결정되면 굉장히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사우디 측에 업무진행 필요성을 언급하되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또한, 비즈니스 관계 이전에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거래 전 개인적인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 바이어들이 초반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다가 연락이 닿지 않아 무역관으로 문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 역시 사우디 바이어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단계를 상당히 신중이 가지기 때문이다. 단, 결정이 이뤄지면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신속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바이어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사전 서류 등 내부적인 수출준비를 재검토하는 것을 추천한다.

2) 대면상담의 중요성

서신이나 e-mail을 통한 인콰이어리 수주 및 상담이 가능하지만, 가격 결정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면상담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는 대면을 통한 협상과 설득이 몸에 배어 있는 현지 비즈니스 문화 때문이다. 대면상담 시에는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사후관리 정책, A/S, 훈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품 소개 후에는 가격 상담을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귀국 후 팩스 등을 통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사우디 바이어는 가격에 매우 민감하고 협상에 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사우디 기업들은 사우디인 사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층은 아랍인, 실무자는 인도, 파키스탄인 등 제3국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종별 관심사나 조그만 선물 등을 준비하는 것도 호감을 사는 방법이다. 사우디인과의 대면상담 시 Ice Breaking 주제로 스포츠나, 이슬람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도 좋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현지 출장을 제외하고는 대면상담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상담에 대해 현지 바이어들도 많이 익숙해졌으며, 상담을 시작할 때나 끝맺을 때 이슬람어 인사말이나 감사인사를 전함으로써 바이어의 호감을 살 수 있다.

3) 시간 문화 및 약속

비즈니스 미팅 시 사전 약속은 필수적이며 3주에서 한 달 전에 미리 약속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오후 시간보다는 오전에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1시간 이상 늦거나, 약속 자체를 잊는 경우도 있다. 전화, 핸드폰, 문자, 이메일 등에도 답을 하지 않거나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팅 일정을 정한 이후에도 실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상대가 약속을 어긴다고 해도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다. 또한, 사우디는 이슬람 교리에 따른 삶의 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하루에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는 모든 상점이 일제히 문을 닫고,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업무를 중단하고 기도를 한다. 공식 기도시간은 30분이지만 보통 20분 내외로 기도를 수행한다. 미팅 시간은 기도시간을 피해서 잡는 것이 좋다. 기도시간과 미팅시간이 겹칠 경우 기도를 위해 중간에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높다. 일출, 일몰 등 해가 떠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기도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계절마다 기도시간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큰 차이는 없다. 그러므로 사전에 기도시간을 숙지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우디는 한국과 달리 금,토가 주말이다. 회사 방문 등의 약속은 주말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제1 구매요소 '가격'

사우디 바이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매결정 요소는 가격이다. 사우디는 완제품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세계 주요 브랜드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시장이다. 비슷한 스펙의 제품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바이어 역시 가격을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 요소로 생각한다. 제조업 비중이 낮아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며, 고객 만족, A/S 등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 성격이 강하다. 다만 최근에는 중국산 저가제품에 실망한 소비자 및 바이어들 사이에서 가격차이가 크지 않다면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5) 현지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

일반 소매품의 경우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이나 하지 기간에 소비량이 급증한다. 라마단은 우리나라의 명절과 유사해 전자제품, 가구 등을 교체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활동이 왕성한 시기이다. 이에 수입업자들은 명절 대목에 맞춰 통상 3~4개월 전부터 수입을 위한 거래를 개시한다. 이에 해당 시즌에 맞춰서 수입상과 접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라마단과 하지 기간에는 단축근무와 성지 순례 휴가 등으로 현지 바이어와 연락이 극히 어려우므로 모든 거래는 반드시 해당 기간 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필수이다.

6) 각 도시의 시장특성을 파악하고 마케팅 개시

사우디는 리야드, 카심, 타북 등 중북부지역 시장(전체 시장의 30%), 제다, 메카, 메디나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시장(20%), 담맘, 주베이 등 동부지역 시장(15%)으로 구분된다. 각 도시는 거리상으로도 400~1,000km가량 떨어져 있다. 도시별로 산업 발달의 차이가 있어 사우디 시장진출 전 어떤 도시로 진출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 리야드를 포함한 중부지역의 경우 약 1,000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행정수도라는 점에서 다양한 품목의 수요가 있다. 제2도시로 불리는 서부 제다의 경우 소매제품과 자동차 관련 제품 수요가 높다. 동부 담맘의 경우는 유전 및 석유화학 플랜트가 집중된 곳으로 프로젝트 기자재 등 건설 관련 시장이 크다. 만약 담요 등 순례자를 대상으로 한 품목이라면 서부 제다 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하고, 기계 플랜트 관련 제품은 동부 담맘을 중심으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7) 에이전트 계약 유의사항

사우디는 자국시장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국의 국내 비즈니스 활동 및 공공부문 입찰 참가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현지의 대규모 마케팅이 필요하거나 국내 부문 입찰참가가 필요한 경우는 현지 에이전트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에이전트 선별은 단순히 기업규모 등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향후 전담할 담당자의 적극성, 마케팅 역량, 에이전트의 현지 시장 평판 등이 중요한 검토 요소이다. 기존에 한국 기업의 에이전트 경험이 있는 현지 기업이라면 해당 한국 기업을 접촉해 현지 기업의 적극성 및 현지 네트워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발주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거래 초기부터 독점 에이전트십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거래 경험 없이 독점권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하며, 장기간 거래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면 변경이 매우 어려우며, 에이전트 교체를 원할 경우 이전 에이전트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 독점에이전트 계약은 매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일부 악덕 에이전트의 경우 계약 불이행 등을 사유로 에이전트 교체를 요청할 경우 현지 비즈니스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계약서상 에이전트 해지 관련 조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한편 품목에 따라 다수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브랜드 별로 별도의 에이전트를 발굴, 계약을 추진해 시장진출을 꾀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8) 결제조건 검토는 신중히

사우디는 대외무역, 외환거래 등이 자유화되어있고, 은행 신용도도 높아 신용장 거래가 원활하다. 현지 바이어는 통상적으로 최초 거래 시에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해 일람출급신용장을, 이후에는 물량에 따라 송금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거래금액이 클 경우에는 기한부신용장을 개설하기도 하나, 간혹 기한부 분납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길 희망하기도 한다(예: 6개월간 매달 3,000달러씩 송금). 한편, 현지 수입 관세를 낮추려고 일부러 언더밸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는 관세청 등 수출입 관련 기관에 적발 시 수출입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은 다양한 결제조건을 수용할 수도 있지만, 은행수수료가 부담되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일람출급신용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도가 쌓이면 다양한 결제조건을 수용해 거래하는 것도 좋지만 가급적 안전한 일람불신용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은행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용장 개설 시 담보를 철저히 확보하기 때문이다. 신용장 문구는 처음부터 꼼꼼히 잘 살피고 관련 서류를 확실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아랍계 은행들의 신용장은 조건이 매우 까다로우며, 문구 하나 수정 시 70달러가량의 하자 수수료

를 청구하는 은행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9) 인내심을 통한 거래

사우디는 우리나라와 달리 느긋하고 여유있는 업무 처리가 익숙한 나라이다. 금,토가 주말이기 때문에 업무연락이 가능한 기간은 일주일에 4일(월-목)에 불과하다. 라마단 기간(1달)에는 공공분야 10~2시, 민간분야 9~3시 단축근무를 시행하고, 라마단 종로 축제 공휴일(Eid Al-Fitr)에는 2주~1달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현지 공공기관 발주처의 경우 벤더등록에만 2년~3년이 걸리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인내심이 필수이다.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거래 성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낙담하거나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번 만나고 성과가 없다고 해서 거래를 중단하기보다는 바이어들 꾸준히 접촉하면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 바이어들이 수요가 생길 경우 단 몇일 만에 거래가 추진되는 사례도 많다. 다만, 바이어가 압박당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Urgent, Reminder 등의 단어를 써가며 자주 연락하는 것은 사우디 비즈니스 문화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럴 경우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바이어가 자신의 존재를 잊을 때쯤 재차 접촉, 신제품을 소개하는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메일, PDF 카탈로그 외에도 Fax를 통한 레터, 카탈로그 우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인사를 뜻하는 말이 있는데 IBM이라고 한다. 'I'는 인샬라(Inch'allah, 신의 뜻이라면), 'B'는 부크라(Bukra, 내일), 'M'은 말리쉬(Maialish, 괜찮아)를 말한다.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말인데, 성사될 것 같은 일도, 안될 것 같은 일에도 조급하기보다 여유로운 아랍인들의 사고를 가리키는 용어로 굳어졌다. 척박한 삶을 살아가며 미래가 불확실 삶이 만들어 낸 지혜이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IBM을 긍정적인 인사로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10) '인샬라' 알라의 뜻

사우디를 비롯한 무슬림들은 '인샬라(직역: 알라(신)의 뜻대로)'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인샬라'는 영어의 if를 뜻하는 '인()'과 원하다라는 뜻의 '샤()', 전지전능한 하느님을 뜻하는 '알라()'로 구성된 표현이며 직역하면 '신이 원하신다면'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일은 알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와 관련된 일은 인간이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랍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언급할 때 이 표현을 관습적으로 사용한다. 비즈니스 상황에서 상대 아랍인이 '인샬라'를 말했을 경우에는 이는 의미 그대로 해당하는 업무가 '알라(신)가 주관하는 일'이라는 뜻이다. 즉, 긍정도 부정도 아닌, '한 번 지켜보자, 고민해보겠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인샬라'를 듣고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Yes or No와 같은 확답을 하도록 요구한다면 자신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모욕감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아랍인들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약속 이행을 의심하는 태도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장 좋은 요구 방법은 '인샬라' 문화를 존중하면서 본인이 시간에 쫓기고 있음을 명확하게 언급한 후 시간 준수를 부탁하는 것이다.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자 독실한 무슬림이니 약속을 꼭 준수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명확하고 공손하게 의사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약속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11) 비즈니스와 개인적 인간관계는 별도

아랍상인, 특히 사우디 바이어는 한국인에 대해 호의적이지만 비즈니스에는 매우 냉정하다. 일상 대화 시 Brother(형제) 등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비즈니스 진행 시에는 작은 실수도 이해하지 않으려 하며, 소액의 경우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원자재 가격이나 기타 제반 비용 상승 이유를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더라도 가격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즈니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 따라서 사우디 바이어와의 거래 시에는 거래 기간이나 상호 간의 신뢰와 관계없이 매 수출 건마다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프로젝트 수주 시기 거래 주의

프로젝트 수주 커미션을 미끼로 한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현지 실정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왕족, 정보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정부 발주처와의 네트워크를 과시하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커미션 지급을 요구한다면 우선 의심해보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왕족, 정보기관과 관련된 인물은 일반 기업인이 쉽게 만날 수도 없으며, 국가 초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면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사기 업체는 기밀유지가 필수이며,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프로젝트 수주나 계약 건은 무산될 것이라며 비밀 유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사기업체는 현지 입찰 시 관련 문서가 아랍어로 작성돼 있어 입찰내용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프로젝트 계획 및 발주서 및 직인, 서명 등이 위조된 아랍어 서류 등을 송부해 사기를 시도하기도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13) 현지 무역회사, 대기업 등 사우디 기업 사칭 주의

현지 주요 기업의 CEO 및 관계자를 사칭해 사기 대상기업의 제품에 관심이 있으며, 정부 납품을 추진하고 싶거나, 합작 투자를 원하며 접근하는 수법도 최근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메일로 거래 관련 연락을 진행하면서 정부납품을 위해서는 등록비용이 소요된다거나 투자를 위한 펀드 계좌 개설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두바이 등 제3국으로 송금하라고 요청한다. 사기업체는 현지의 유력 회사를 사칭,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제공하는데 홈페이지는 유력회사 홈페이지가 맞으나 이메일의 경우 알파벳 1개를 추가한 도메인을 보내 혼돈을 주는 수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4) 아랍어 사용은 가점요인

자신의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구매자를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물론 그 나라 사람 모두에게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대신 팔아줄 에이전트나 현지 기업인에게 현지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장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아랍어가 어려운 언어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인 중에는 영어로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인사말 등 정도는 아랍어로 익혀둘 필요가 있으며, 아랍어를 구사하는 한국 인력이 많지 않아 아랍어를 하는 한국인은 현지에서 특별하게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다.

15) 선박운송 이용 시 이란 및 이스라엘 경유 확인

이란 및 이스라엘은 사우디 포함 GCC 국가와 오랜 갈등을 겪고 있다. 공식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이란 및 이스라엘 경유 선박 이용 시 L/C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일부 은행은 사우디 하역 이후 이란 및 이스라엘이 경로에 포함되는 것도 문제삼아 L/C 지급을 거절하기도 한다.

16) 코로나 이후 샘플배송 요구 증가

코로나 이후 국제이동 제한을 이용해 무리하게 샘플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거래시 시장성 테스트를 위해 3차례 이상 샘플배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샘플제공은 기업의 판단 하에 자유롭게 결정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사우디 바이어는 1차례, 최대 2차례의 샘플을 요구하며, 3차례 이상 요구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샘플 배송 시, 일정 무게나 부피 이상의 과도한 샘플은 통관 과정에서 압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이어의 비정상적인 요구는 협의를 통해 사전조율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사우디 문화의 바탕인 이슬람 율법과 코란

사우디는 이슬람교의 2개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이슬람 종주국으로서 이슬람이 국교인 정교일치 국가다. 따라서 사우디에서는 이슬람 사회의 모든 규범의 근원인 코란을 바탕으로 한 샤리아 법과 이슬람의 율법이 현실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무슬림의 다섯 가지 의무인 신앙고백(샤하다), 하루에 5번 예배(살라), 회사(자카트), 단식(사움), 성지순례(하지)를 포함한 이슬람의 계율을 사회 규범으로 정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엄격히 지키고 있다. 사우디 전역은 간음과 매춘행위, 음란물 유포, 음주, 돼지고기 판매, 고리대금 등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 행위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무슬림 외의 타 종교 포교 관련 행위와 이슬람 신앙생활을 해치는 가무나 요란한 음악 등도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간통죄는 처형(미혼자는 태형 후 추방), 음주죄는 태형으로 엄하게 다스리며 이는 외국인에게도 해당한다. 아울러 입국 또는 이삿짐 송부 시 술, 돼지고기, 음란물 반입도 철저히 통제한다. 따라서 사우디를 방문하거나 거래를 하려면 종교적 특성에서 비롯된 사우디인들의 고유한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종교

사우디는 이슬람 외에 타 종교 전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타 종교 전파 및 언급을 삼가야 한다. 특히 이슬람교를 비판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교역 경험을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엄격한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타종교를 존중하는 편이므로,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상담이나 대화 전 이슬람 문화가 익숙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자세이다.

3) 라마단

라마단은 이슬람력으로 9번째 달로써, 한 달 동안 무슬림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음식, 음료, 흡연 등이 금지되며, 음악을 듣는 등 가능한 모든 감각적 즐거움이 금기시된다. 금식은 신자들에게 인내와 자제력을 가르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영혼을 정화하며 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희생을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라마단 기간에 외국인들도 무슬림 앞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등 종교 생활에 거슬리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지 무슬림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행자의 경우 라마단 율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나 무슬림은 여행이 끝난 후 금식하지 못한 기간만큼 스스로 금식을 한다고 한다. 특히, 외국인은 라마단 율법을 지켜야 할 필요는 없으나 라마단은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슬람권의 중요한 문화인 만큼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식 기간에는 호텔의 Room Service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라마단 기간에 금식 시간(일출 후 일몰 전까지)이 끝나고 첫 번째 식사를 '이프타르'라고 부른다. 이는 라마단 만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이프타르는 비즈니스 사교의 장이 되기도 한다. 몇몇 기업들은 대형 텐트를 설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호텔이나 식당을 빌려 거래처 및 정부 관료들을 초대한다. 이렇듯 기업들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동시에 그곳에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거나 주요인사와 네트워킹을 하기도 한다.

4) 복장

남성의 경우 특별히 복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나 비즈니스 미팅 시 주로 정장 또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면 충분하다. 사우디인들은 상대의 복장으로 사회적 지위, 출신 국가를 구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바이어 상담 등 비즈니스 목적에는 정장이나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장은 감색 등 어두운색 위주로 입는 것이 좋다. 사우디 남성의 경우 근무 또는 비즈니스 시 '싸웁'이라고 불리는 흰색 전통복장에 머리를 덮는 빨간 체크무늬 천인 '세마그' 또는 흰색 등의 천인 '구트라'를 쓰고 이를 고정하는 검은 링인 '익갈'을 착용한다. 단, 해외 출장 시에는 정장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경우는 외출, 비즈니스 미팅 등에도 사우디인, 외국인 여부에 상관없이 검은색 천으로 된 '아바야'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사우디 여성이나 아랍 여성의 경우 아바야에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갑 또는 머리 주위로 얼굴에만 두르는 히잡 등을 착용한다. 여성들은 채굴과 무릎 등을 노출해서는 안 되며 몸에 딱 붙는 옷은 삼가는 것이 좋다. 외국 여성의 경우 아바야를 착용하면 얼굴을 드러내는 것은 큰 지장이 없다. 사우디 정부는 2019년 9월 관광산업 육성정책 일환으로 외국인 여성의 아바야 착용 필수규정을 폐지했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적으로 여성의 아바야 미착용 문화가 자리 잡지 않았으며, 규정이 폐지됐다 할지라도 아바야를 착용하여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옷차림 및 여성문화

옷차림의 경우 여성들은 손목과 발목 이상의 노출이 금지돼 있고, 국적이나 가풍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외간 남자들 앞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 외출 시에는 전통 의상인 아바야에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스카프를 하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며 외국인 여성도 예외 없이 아바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종교경찰(무따와)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얼굴까지 가리는 것은 가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거리나 상가에 있는 종교경찰도 여성들이 스카프를 돌렸는지 확인한다. 남자의 경우 특별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무릎을 드러내는 반바지 등 노출이 심한 복장의 경우 쇼핑몰 등 공공장소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사우디는 부부 이외의 남녀가 교제하거나 서로 어울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같이 다닐 경우 부부라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다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남녀 간의 내외를 엄격하게 지켜 여자 가족에 대한 안부나 관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관습으로 인해 사우디를 방문한 사람들은 사우디 여성에게 말을 걸거나 사진을 찍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기혼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은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 현지의 모든 식당은 남성 독신자석(Single section)과 가족석(Family section)으로 구분돼 있으며, 일부 대형 쇼핑몰의 경우 여성 전용 쇼핑 층을 마련해놓거나 휴일 등의 특정 요일을 Family day로 지정해 남성의 단독 입장을 금지하기도 한다. 직장에서도 여성이 근무하는 경우 사무실에 여성과 남성을 격리해놓는 것이 원칙이다. 2018년 6월 24일부터 여성 운전 허용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향후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가 전망된다.

6) 인사

코로나19 확산 이후 악수 시행 문화가 사라지는 추세이다. 현지인들 끼리는 친밀도에 따라 가벼운 포옹과 양쪽 뺨을 대는 Cheek-Kiss 문화도 있지만,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지양하는 추세다. 악수를 희망하면 상대방 의사를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수할 때 아랍인들은 보통 두 손을 다 사용하며 손을 크게 흔들거나 하기보다는 손을 잡고 있는 느낌으로 한다. 왼손은 화장실에서 쓰는 손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악수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보통 악수를 할 때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우디 여성은 남성과의 접촉이 금지돼 있으므로 상대가 악수를 먼저 청하지 않는 이상 간단한 목례나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적절하다. 첫 만남에서 일반적인 대화 주제는 상대방의 안부이다. 이때 이슬람 인사인 '앗살라무 알라이쿰'(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으로 인사를 건네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란, 이스라엘 등 적대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

7) 제스처

다음은 사우디 사람들과 만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제스처들이다.

- 타인에게 이리 오라고 팔을 뻗어서 손짓할 때, 손바닥이 위를 향하면 모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아래로 하고 흔드는 편이 좋다.
- 신발이나 샌들의 밑바닥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이다.
- 대화할 때 상대방보다 높은 장소(예: 상대방은 계단 아래, 자신은 계단 위)에서 말하는 것 역시 무례한 행동이다.
- 제스처를 취할 때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앉을 때 다리를 꼬지 않는 것이 좋다.
- 관례로 카펫이 깔린 방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한다. 확인할 수 없다면 상대방이 리드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
- 턱을 가볍게 때리는 것은 매우 화난 상황에서 쓰이는 행동이다.
- 왼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며, 악수할 때도 두 손보다는 오른손만 내미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엘리베이터 탑승, 건물, 방 입장 시 보통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것이 관례이다.
- 가끔 아랍인들이 대화 도중 혀를 한 번 차면서 고개를 위로 들어 올리는 행위가 있는데, 이는 모욕적인 언사가 아닌 '아니오, No'의 의미이다.

8) 식사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에는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예의이자 미덕으로 생각해 세 번 이상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한다. 통상 비즈니스 목적으로 만난 바이어의 경우,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식당으로 초대해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특별히 유의할 부분은 없으며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 된다. 다만, 식사 시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우디아라비아인의 전통음식은 굵거나 삶은 양고기 또는 닭과 쌀을 함께 조리한 '캅사' 또는 '만디'가 일반적이며 바닥에 앉아 맨손으로 식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두 다리를 포개어 앉거나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식사하면 된다. 외국인들은 식기를 사용해도 문제 없다. 다만, 손으로 식사하는 경우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오른손으로만 식사한다. 보통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손님에게 호의를 표시하기 위해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한다. 특히, 만디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으므로 남기더라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만, 가능한 제공된 모든 음식을 한 번씩은 맛보는 것이 좋다. 사우디아라비아인을 한국으로 초청해 식사하는 경우 메뉴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인을 포함한 무슬림들은 개, 돼지, 맹수, 맹금류 등을 먹지 않는다. 반드시 이슬람식 도축(할랄)이 된 고기만을 먹으며, 술을 권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된다. 적절한 메뉴는 소고기, 닭고기, 생선, 채소류이다.

7) 할랄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 율법하에서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다. 육류 중에서는 이슬람식, 즉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된' 고기(주로 염소고기·닭고기·쇠고기 등), 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 등이 할랄 제품에 해당한다. 반면, 술과 마약류처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돼지고기·개·고양이 등의 동물, 자연사했거나 잔인하게 도살된 짐승의 고기 등과 같이 무슬림에게 금지된 음식을 '하람(haram)' 푸드라고 한다. 한국에서 무슬림에게 음식을 대접할 경우에는 할랄 제품으로 만든 음식이 가능한 식당을 찾아 대접하는 것이 좋다.

10) 선물

중동은 우리와는 다르게 선물을 하는 문화가 거의 없는 편이다. 특히, 뇌물은 이슬람에서 금기시되고 있어 첫 방문부터 값비싼 선물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추후 친분을 쌓고 특별한 기회가 될 때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 바이어는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친분을 별개로 간주하는 편으로 선물로 인해 거래관계에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때때로 주는 사람의 성의와 정성이 담긴 자그마한 선물 하나가 간혹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선물로는 인삼 제품(인삼차, 인삼 절편, 인삼 농축액 등), 한국산 IT 기기, 한국 전통문양이 들어간 수공예품 등이 무난하다. 한편, 바이어의 부인이나 자녀에게는 선물을 삼가는 것이 좋다.

11) 대화 주제

현지 무슬림과 친분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주의해야 할 대화 주제들이 있다. 첫째, 국내 정치 상황, 최고 지도자 대한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 비즈니스를 하는 아랍인들의 경우 체제 옹호론자들이 많고, 산유국은 대체로 폐쇄적 권위주의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랍국가 전체에게 적국으로 간주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 역시 삼가야 한다. 둘째, 아랍인들은 자존심과 명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종교, 문화 및 종족에 관한 비판 역시 삼가는 편이 좋다. 셋째, 현지 정권은 친미정권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다수 국민의 반미정서가 뿌리 깊고, 팔레스타인의 정당성에 대한 집착이 강해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문제를 꺼내지 않는 편이 좋다. 대신 축구를 좋아해 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적절하다.

12) 기타

사우디 현지에는 하루 5번, 1회당 30분씩 기도 시간(살라)이 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소매점 및 음식점 등이 영업을 중단하므로 항상 이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부분의 음식점은 커튼이 설치돼 있어 주문 이후라면 예배 시간과 상관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도 중인 군중 주위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흡연하는 행위, 기도하는 방향 앞을 가로지르는 것과 같이 기도를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군사시설, Check Point, 주요 산업시설(주요 공단, 항만, 공항)등 민감한 건물들 같은 경우 사진을 찍는 것이 금지돼 있다. 특히, 최근 중동지역에서는 정유공장시설 촬영, 국경 지역 촬영 등으로 인해 당국에 구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한다. 이와 더불어 허락 없이 무슬림 여성의 사진을 찍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또한, 사우디의 주요 산업시설에 부정합 ID를 사용해 출입하거나 근처에서 사진촬영 등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noon(www.noon.com) ○ 개요: 2017년 10월 UAE에 처음 런칭했고, UAE Emmar Properties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및 민간 투자자들의 합작투자사로 사우디에서는 2017년 12월에 출범했다. 아마존과 같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판매자들이 판매하는 제품 모두를 검색할 수 있으며, 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사우디 온라인 시장 점유율 48%로 1위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Noon.com은 2017년에 설립하였으며 본사는 사우디 리야드에 있다. 고용인원은 자료에 따라 다르나, 동사 SNS사이트에 따르면 직고용 배송직원 등을 포함하여 약 5,000명에서 1만 명 수준이며 비상장기업으로 매출규모는 비공개 상태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및 의류 및 가정용품, 미용용품 및 영유아 제품, 운동기구 및 아웃도어 제품, 식품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아마존과 유사하게 noon에서는 noon VIP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에게 빠른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oon Daily는 noon에서 직접 운영하는 신선식품 온라인 사이트로 주문 후 1~2일 내로 식품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 2) Amazon Saudi(www.amazon.sa) ○ 개요: 아마존은 2017년 두바이에 거점을 둔 중동지역 최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Souq.com을 인수하면서 사우디 도메인도 amazon.sa로 변경하였다. 현재 사우디는 아마존의 17번째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로 리야드와 젓다에 지점을 두고 있다. 2021년에는 유료 회원제인 Amazon Prime이 사우디에도 런칭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7년 아마존 도메인으로 변경하면서 공식적인 아마존의 현지 이커머스 플랫폼이 되었다. 매출규모는 70억 달러 규모이며 고용인원은 사우디만 3,000여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및 의류 및 가정용품, 미용용품 및 영유아 제품, 운동기구 및 아웃도어 제품, 식품 등 35개 분야 850만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특징: 30일간의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이라는 회원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연계되어 있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해외 제품에 대한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등 국내외 제품 모두를 구매할 수 있다. 3) Jollychic(www.jollychic.com) ○ 개요: 2012년에 창립된 중국의 유명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우디에 진출한 기업이다. 지역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우디 정부의 기대에 부응하여 Jollychic은 2019년 사우디 투자청(SAGIA)과 MoU를 체결하고 사우디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우디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7년에 사우디에 런칭했으나 매출규모 및 고용인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 ○ 주요 판매 품목: 의류, 미용용품, 전자제품, 영유아 제품, 가정용품, 식품 및 잡화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의류는 타 품목에 비해 남성, 여성, 아동, 스포츠웨어 등 세분화된 카테고리보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 특징: Jollychic Privi라는 멤버십 카드를 1개월, 3개월, 1년 단위로 판매 중이며 각각 79리얄(약 21달러), 119리얄(약 32달러), 179리얄(약 48달러)로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멤버십 회원은 제품 별로 5~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회원 전용 선물, 회원 전용 쿠폰 등을 통해 멤버십 서비스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4) Aswaq(www.aswaq.com) ○ 개요: 사우디 리야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우디 유일의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사우디 리야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6년도에 설립되었다. 고용인원은 약 500~1,000명 사이이며 매출규모는 알려진 바가 없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가정용품, 의류, 식품, 아동제품, 자동차용품, 사무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 특징: 100% 사우디 자본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New Markets Store Trading Company Ltd.사가 소유하고 있다. 5) Desert cart(desertcart.com.sa) ○ 개요: UAE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사우디 및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에서 운영 중이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4년 두바이에서 설립되었으며 약 200명 가까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출규모는 알려진 바가 없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제품 및 의류 및 가정용품, 미용용품 및 영유아 제품, 운동기구 및 아웃도어 제품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1억 개 이상 제품에 대한 검색을 홍보하고 있으며, 메인 화면 제품 카테고리를 주제별 영화 포스
----------------------------	---

	○ 특징: 1억 개 이상 제품에 대한 검색을 홍보하고 있으며, 메인 화면 제품 카테고리를 주제별 영화 포스터와 같이 분류해 놓은 특징이 있다. 국내 제품 배송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배송까지 구분없이 제품을 검색 및 구매할 수 있다.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현대리바트, 사우디 자푸라 유틸리티 공사 수주(2022.5.6)

현대리바트는 현대건설과 사우디 자푸라 유틸리티 및 황 회수 시설공사 계약을 867억 규모 체결했다.

2) 대한전선, 사우디 EPC와 초고압케이블 합작법인 설립(2022.3.9)

대한전선이 사우디 송배전 전문 EPC인 모하메드 알 오자이미 그룹과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 초고압케이블 공장을 설립한다. 이는 기존 대한전선 사우디법인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리야드 첨단산업단지 내 건설될 예정이며, 완공되면 GCC 국가 및 유럽으로 380kV 초고압 송전 케이블을 공급할 계획이다.

3) 두산중공업, 사우디 주단조 프로젝트 수주(2022.2.11)

두산중공업은 사우디 산업투자공사 두수르, 사우디 아람코와 합작으로 Tuwaiq 주조/단조 공장 일괄수주(EPC)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동 공장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인근 라스 알 카이르 지역 내 킹살만 조선산업단지에 건설되며, 연간 6만 톤의 주단조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약 1조원에 가까운 사우디 최대 규모의 주단조 공장이 될 전망이다.

4) 두산인프라코어, 사우디 건설기계 50대 수주(2021.8.12)

두산인프라코어는 5월 중대형 굴착기 수주에 이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협력 건설사로부터 휠로더 30대를 수주하고, 사우디 국영 전력회사 협력사와도 22t급 굴착기 20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5월 75대의 중대형 굴착기를 수주한데 이어 추가 계약건으로 바레인 대형 건설사 2곳으로 부터 중대형 굴착기 12대를 수주하는 등 총 62대의 건설기계 입찰을 수주 하는 등 중동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

5) 두산인프라코어, 사우디 현지 협력사로부터 총 75대의 중대형 굴착기 수주(2021.5.26.)

두산인프라코어는 두 번의 입찰에서 총 75대의 중대형 굴착기를 수주했다. 첫 번째 입찰에서는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ARAMCO)의 주요 협력사로부터 22톤급 굴착기 20대와 50톤급 굴착기 5대를 수주하였으며, 이는 지난 3월 굴착기와 휠로더 총 35대 구매계약에 이은 2차 발주분이다. 더불어 두 번째 입찰에서는 사우디 국영 전력회사의 주요 협력사에서 현지 전력시설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22톤급 굴착기 50대를 수주하였다. 앞서 4월 카타르에서 굴착기 102대 납품 계약을 하는 등 최근 중동시장에서 발빠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6)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석유화학회사 APC 자회사인 AGIC와 6.5억 달러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2021.4.13.)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 석유화학회사인 APC의 자회사인 AGIC(Advanced Global Investment Company)와 6.5억 달러(한화 7,350억원) 규모의 PDH(프로판 탈수소) &UTOS(유틸리티 기반시설)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금번 계약식은 서울과 사우디 주베일에서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서면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우디 주베일 2공단 내 연간 84만 톤 규모의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PDH 플랜트와 UTOS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공예정이다.

7) 두산중공업, 7,800억 원 규모의 해수담수화플랜트 수주(2021.1.25.)

두산중공업은 디벨로퍼인 프랑스 에너지전문기업 엔지, 사우디 기업 모와 및 네스마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함께 안부 4(Yanbu 4) 해수담수화플랜트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금번 사업은 역삼투압 방식으로 제다시 북쪽 26km 지점인 알라이스 지역에 건설되며, 두산중공업은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2023년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완공 시 하루 약 150만 명이 동시 사용 가능한 45만 톤의 물을 생산하여 사우디 서부 알라이스 지역에 공급하게 된다.

8) 한국조선해양, 5만 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10척 건조 계약 체결(2020. 8.21.)

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 국영선사 바흐리(Bahri)와 4,850억 원 규모의 5만 톤급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10척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PC선은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할 예정이며, 2023년 2월까지 차례로 인도할 계획이다.

9) 현대일렉트릭, 사우디 전력청(SEC) 및 국영석유회사(ARAMCO)에 350억 원 규모 전력기기 공급 프로젝트 수주(2020. 5. 9.)

현대일렉트릭은 사우디 전력청(SEC) 및 국영석유회사(ARAMCO)에 총 350억 원 규모의 초고압전력기기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사우디 전력청(SEC)에는 서부 라빅 지역에 건설하는 380kV 변전소용 초고압 변압기를 납품하며 금액은 총 230억 원이다. 국영석유회사(ARAMCO)에는 해상유전 원유 및 가스 생산 설비에 전력변압기 가스절연개폐기를 납품하며 금액은 총 120억 원 수준이다.

10) 삼성엔지니어링, 2.1조 원 규모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 저장 프로젝트' 수주(2020.1.28.)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 국영석유회사(ARAMCO)가 발주한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 저장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프로젝트 규모는 약 18억 5,000만 달러(한화 2.1조 원)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우디 동쪽 260km 지점 하위야 가스전지대에 하루 15억 입방피트 규모의 가스주입 시설과 하루 20억 입방피트 규모의 가스 재생산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EPC 모든 과정을 수행하며, 완공은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사우디 외교부는 WTO 가입에 따라 비즈니스 방문의 경우에는 입국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 방문의 경우, 현지의 초청장 없이 상공회의소 등록증과 신청서만으로 24시간 내 발급이 가능하도록 훈령이 전달된 바 있으나 (2005년 10월),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사우디 입국비자 취득을 위한 초청장 발급에 인한 불편사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후 2019년 2월 1일 발효된 한국-사우디 사증발급 간소화에 따라 비자발급 비용이 대폭 낮아졌다. 최대 90일간 체류 가능한 5년 복수 비자를 약 10만 원(90달러)에 발급받을 수 있어, 사우디 출장 애로사항이 대폭 감소하였고, 2019년 9월 27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포함 49개국 대상 관광비자 발급을 시작했다. 관광비자는 온라인 및 도착비자 모두 가능하지만, 도착 관광비자 진행 시 필요 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사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 기간에 1회 입국,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1) 비자 종류 및 발급

사우디는 이슬람 율법에 따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의 입출국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GCC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전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사우디 입국비자 종류에는 관용, 상용, 가족방문, 하지 및 우무라 등이 있다. 사우디는 공식적으로 관광 비자가 없으며, 여성 단독 비자는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우디 거주 교민, 주재원 등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거주증(IQAMA) 발급 후 Exit Re-Entry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사우디 출입국을 할 수 있다.

○ 관용 비자

-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의 경우 사우디 외무부의 공식 서한이 있으면 주사우디 한국 대사관 등 공관 재량으로 비자초청장 발급이 가능하다.

○ 상용 비자 : 방문 및 취업비자

- 방문 비자는 사우디 보증인(스폰서) 또는 바이어의 초청하에 발급받을 수 있다. 2019년 2월 발효된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에 따라 상용 방문비자는 최대 90일 체류 가능한 5년 복수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취업비자는 사우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 내무부 검토 및 승인 → 외무부 검토 및 승인 단계를 거쳐 현지 대사관에서 발급한다. 단, 취업비자를 받았을 경우 입국 후 거주증(IQAMA)을 발급받아야 한다.

○ 관광비자(eVISA)

- 한국국적 보유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사우디 출입국 항공권, 호텔예약증 등이 필요하다.(홈페이지 : <https://visa.visitsaudi.com/>)

○ 가족방문 비자

- 거주증(IQAMA)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 직계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 하지(Hajj) 및 우무라(UMRA) 비자

- 하지 비자는 이슬람력 12월에 행하는 이슬람 성지순례(하지)를 위한 비자로 메카, 메디나, 제다 지역만 방문할 수 있다. 하지 기간 외 성지순례를 위해 발급되는 비자를 우무라 비자라 하며, 두 사증은 무슬림에게만 발급된다. 우무라 비자의 경우, 30일간 유효하나 30일 이내에 성지순례를 수행한 후, 입국 후 2주 이내에 사우디를 출국해야 한다. 또한, 하지 및 우무라 비자발급 수수료는 1회에 대해 무료이나 2회부터는 비자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기타 비자

- 유학, 연수 등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스폰서(보증인)의 보증 하에 1개월 방문 비자를 발급한다.

2) 비자발급 및 장기체류 시 유의사항

이스라엘 출입국 기록이 있으면 사우디 비자발급이 불가하므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기자의 경우 정부대표 수행단에 포함된 경우 취재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개별 취재 목적의 비자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우디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내무부로부터 거주증(IQAMA)을 받아야 한다. 외교관 및 지상사 주재원도 예외 없이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거주증(IQAMA)을 발급받으면 외국 출입국을 위해 Exit Re-Entry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2013년 11월 발효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검문 강화 법안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거주증(IQAMA) 불시 검사가 늘어나고 있다. 거주증(IQAMA) 미소지 1회 적발 시 1,000사우디 리알(267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후 적발 횟수에 따라 1,000사우디 리알씩 벌금이 증가하며, 3회 이상 적발 시 치안 당국이 내무부에 추방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 비자취득 절차

○ 상용 목적(개별입국)

- 사우디아라비아인 스폰서의 초청장 발송(1부는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1부는 방문자)
- 사우디 비자센터 사전 예약 및 접수(<https://www.vfstasheel.com>) → 비자 발급
- 초청장 발급, 비자접수 등 비자 취득까지 약 3~4주 소요

○ 상용 목적(시장개척단 등 단체)

- 리야드 무역관이 대사우디아라비아 상공회의소에 비자발급 협조요청 공한 발송
- 사우디아라비아 상공회의소, 사우디아라비아 외무부에 비자발급 요청(최근 내무부 검토 추가)
-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비자발급 허가 통보
- 사우디 비자센터 사전 예약 및 접수(<https://www.vfstasheel.com>) → 비자 발급
- 초청장 발급, 비자접수 등 비자 취득까지 최소 1개월 소요

○ 관광비자(온라인 사전발급 또는 도착발급)

- 사우디 공식 관광비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홈페이지 : <https://visa.visitsaudi.com/>)
- 생년월일, 이름, 이메일(인증 필요), 사진(200 x 200 px), 성별, 국적, 직업, 주소 등 개인정보 등록
- 여권종류, 여권 번호, 여권발행국, 발행일, 유효기간 등 여권정보 등록
- 건강보험료 결제, 관광비자 발급 수수료 등 비용 결제(약 460 사우디 리알)
- 결제 완료 및 승인 후 등록 이메일로 관광비자 확인(신청부터 비자취득까지 약 1~2일 소요로 상당히 빠른 취득 가능)
- * 도착 관광비자 진행 시 호텔예약증 등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발급을 통한 사우디 방문 추천

4) 비자 발급기관 :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비자 서비스센터

주한 사우디 대사관은 2013년 4월 사우디 비자센터(<https://www.vfstasheel.com>)를 개소했으며, 정부초청 비자 이외의 모든 비자는 동 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비자센터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당일 예약을 불가능하고 인터넷으로만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으나, 초청장이 아랍어로 되어 있어 사우디 비자 진행 경험이 있는 여행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쉽다. 사우디 여행사를 통해 비자접수를 진행하더라도 지문등록, 비자 인터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사우디 비자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비자센터 홈페이지에서 비자신청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양식을 다운받아 여행사(또는 대리인)에 전달해야 한다. 라마단, 하지(성지순례) 기간 등 성수기에는 예약이 1달 이상 밀려있는 경우도 있으니 일정 수립에 유의해야 한다.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완료 이후 약 4~5일이다. 여권사본, 여권용 사진, 초청장, 출장증명서(Travel Order) 등의 서류가 필요하나 신청자의 소속기업에 따라 상이하니 홈페이지 확인이 필수이다.

-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1동 녹사평대로26길 37
 - 전화: 02-739-0631~5
 - 휴일: 토·일요일, 9월 23일(사우디아라비아 건국일), 양 국가의 공휴일 등
 - 이용시간: 09:00~16:00
 - 참고사항 : 공무수행, 정부면담 등 사우디 외무부 초청장 소지자만 접수 가능

- 사우디아라비아 비자센터(VFS Tasheel International)
 -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5층
 - 이용시간: 09:00~16:00
 - 비자신청: 09:00~14:30
 - 비자발급: 14:00~16:00
 - 홈페이지: www.vfstasheel.com
 - E-mail: info.savsckr@vfstasheel.com
 - 참고사항 : 공무수행 이외 상용, 가족방문 등 일반비자 접수
 - 문의방법 : 이메일(전화문의 불가)

5) 비자신청 비용

공무수행을 위한 주한 사우디 대사관 신청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상용, 가족초청 등 사우디 비자센터를 통한 비자접수는 90달러(약 10만 원) 정도이다. 비자접수는 Enjaz 비용, 비자발급 수수료,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별도이다. 비자접수 비용은 환율에 따라 매주 변동된다.

5) 비자신청 확인

비자 신청을 완료한 후 비자신청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고유번호 또는 E 번호와 생년월일이 필요하다. 예약 고유번호의 경우 비자센터에서 받은 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참고사항

- 코로나19 관련 조치 해제로, 비자발급 및 출입국 등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 가능
- 다만, 입국 72시간 전 Muqem에 정보등록은 유지되고 있으며 방문비자로 방문 외국인인 코로나19 확진 시 발생비용 보장하는 여행자보험 가입토록 안내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면세

사우디는 세금체계가 단순하며 면세 또는 세금 관련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국왕의 칙령(Royal Decree)에 따른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면세는 거의 없다.

2) 반입금지(제한)품목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마약, 술, 돼지고기, 음란 서적 및 동영상은 금지되며, 이스라엘 관련 자료, 이슬람 이외의 종교 서적의 반입도 금지된다.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및 관련 문서가 있어야 반입할 수 있다.

3) 기타 출입국 유의사항

사우디는 입국 시 휴대품 검색을 매우 철저하게 시행한다. 마약 및 무기 소지 여부를 포함해, 이슬람 문화에서 금기시하는 주류, 음란물, 돼지고기 등 반입 불허 품목을 철저하게 검색한다. 특히, 주류 반입 시 적발되는 경우 벌금, 구금, 추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니 삼가는 것이 좋다. 사우디는 엄격한 이슬람법을 지키는 사회임을 고려해 입국 시 상기 반입금지(제한) 품목의 물품은 절대 휴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일즈 출장 시 샘플은 통관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금·은 장신구, 시계 등의 고가품은 관세를 내야 한다. 관세유예 후 전량 재반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관세납부 후 환급절차도 복잡해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음주 상태, 여성 단독 입국, 반바지 포함 노출이 심한 복장 착용자는 입국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공항, 호텔 내부를 제외하고 온몸을 감싸는 아바야 착용이 필수이다. 미착용 시 종교경찰(무타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지문등록을 제외하고 입국심사는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직원의 근무 태만,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과거 3~4시간 소요되던 입국 심사가 최근에는 30분~1시간으로 감소했다.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기준으로 비행기에서 나와 입국심사대로 가면 여러개의 창구가 있는데, 오른쪽은 사우디 및 GCC 국민, 좌측이 일반 심사대이다. 인도, 필리핀 등 제3국인 노동자의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므로 비행기에서 내리면 최대한 빨리 입국 심사대로 가는 것이 좋다. 여권에 이스라엘 출입국 기록이 있으면 입국이 불가능하다. 사우디는 공권력이 매우 강력해 공무집행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반항에 가중처벌이 가해진다. 경찰 등의 동행 요구가 있으면 가급적 현장 대응을 피하고 대사관에 연락해 구제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966-11-488-2211
주소	Korean Embassy, P.O.Box 94399, Riyadh 11693, Saudi Arabia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sa-ko/index.do

◦ 주 젓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전화번호	+966-12-668-1990
주소	P.O.Box 55503 Jeddah 21544 Kingdom of Saudi Arabia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sa-jeddah-ko/index.do

◦ 무역보험공사 사우디사무소

전화번호	+966-11-273-4496(323)
주소	Riyadh, King Fahad Road 105 Legend Tower Tahlia Street North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
비고	KOTRA 리야드 무역관 사무실 입주

◦ 한국수출입은행 사우디사무소

전화번호	+966-11-273-4496(324)
주소	Riyadh, King Fahad Road 105 Legend Tower Tahlia Street North
홈페이지	https://www.koreaexim.go.kr
비고	KOTRA 리야드 무역관 사무실 입주

〈자료원 : 외교부 및 각기관 홈페이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Ministry of Economy and Planning(경제기획부)

전화번호	+966-401-1444
주소	AlJamea Street, Riyadh
홈페이지	https://www.mep.gov.sa

◦ Ministry of Finance(재무부)

전화번호	+966-11-405-0000
주소	Omar Ibn Al Khattab Road, Al Malaz, Riyadh 12641
홈페이지	https://www.mof.gov.sa

◦ Ministry of Foreign Affairs(외교부)

전화번호	+966-9200-33334(ext 1)
주소	An Namudhajiyah, 리야드 12735
홈페이지	https://www.mofa.gov.sa/

◦ Ministry of Interior(내무부)

전화번호	+966-11-401-1111
주소	King Fahad Rd, Al Olaya Riyadh 11543
홈페이지	https://www.moi.gov.sa/
비고	해외전용 URL

◦ Ministry of Investment

전화번호	966-11-203-5777
주소	Imam Saud bin Abdul Aziz bin Mohammed Road An Nakheel, Riyadh 12382
홈페이지	https://www.misa.gov.sa/en/
비고	1. 사우디 투자부 2. Whats app 어플리케이션 통한 24시간 사우디 투자상담 가능(966-11-203-5888)

◦ Saudia

전화번호	966-92-002-2222
주소	Jeddah
홈페이지	https://www.saudia.com/

비고	사우디 국적기 항공사
----	-------------

◦ Saudi GOV

홈페이지	https://www.my.gov.sa/wps/portal/snp/main
비고	정부 통합 홈페이지(정부부처별 홈페이지 확인 가능)

◦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eneral Authority(중소기업청)

전화번호	+966-92-001-8888
주소	7739 Olaya Street, 2470, Riyadh 13311
홈페이지	https://www.monshaat.gov.sa

◦ Council of Saudi Chambers

전화번호	+966-11-218-2222
주소	King Fahad Branch Rd, Al Mutamarat, Riyadh 12711
홈페이지	https://csc.org.sa/
비고	사우디 상공회의소

◦ Saudi Press Agency

전화번호	+966-11-401-9037/9050
주소	King Fahd Branch Road, As Sahafah Riyadh 13321
홈페이지	https://www.spa.gov.sa
비고	사우디 국영 통신사

◦ Arab News

전화번호	-
주소	P.O. Box 10452 Jeddah 21433 Saudi Arabia
홈페이지	http://www.arabnews.com
비고	사우디 주요 일간지

◦ Saudi Gazette

전화번호	+966-12-676-0000
주소	Dallah Street, Rehab District
홈페이지	http://www.saudigazette.com.sa/
비고	사우디 주요 일간지

◦ Saudi Customs

전화번호	+966-11-266-3777
주소	King Abdul Aziz Branch Rd, King Abdul Aziz, Riyadh 12431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v.sa/en
비고	1. 사우디 관세조회 방법 : 홈페이지 메인 -> Intergrated Tariff -> Search in Tariff -> Search for HS Code 설정 후 HS Code 입력 2. 참고사항 : Chrome 브라우저에서만 작동(Internet Explorer에서 작동 안 함)

〈자료원 : 정부 및 기관 홈페이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3.75 SAR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USD)	4.000
2	식품	짜장면(한식당)	1인분 (USD)	21.330
3	식품	김치찌개백반(한식당)	1인분 (USD)	21.330
4	음료	우유	2L (USD)	2.920
5	음료	커피(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1잔 (USD)	3.73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1.5L (USD)	0.530
7	음료	탄산음료	1L (USD)	1.330
8	의료	감기약(타이레놀 200mg)	1팩(10정), (USD)	3.040
9	교통	자동차 등록비	신규 및 연간 갱신료 (USD)	26.670
10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USD)	2.670
11	서비스	이발(시내 중심 외국인 애용점)	1회 (USD)	10.670
12	서비스	무연휘발유 1L(옥탄가 91)	1L (USD)	0.58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옥탄가 95)	1L (USD)	0.62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USD)	0.050
15	서비스	인터넷 이용요금	월, 100Mb Speed 기준 (USD)	76.670
16	여가	담배(말보로 레드)	1갑 (USD)	7.470
17	여가	무알콜 맥주	330ml 1병 (USD)	2.120
18	임금	대졸자 평균임금	월 (USD)	4000.0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USD)	28347.2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3.000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1) 화폐단위: SAUDI RIYAL(SAR 또는 SR)

지폐에는 500, 100, 50, 10, 5, 1사우디 리얄(Saudi Riyal)이 있으며, 동전에는 50, 25, 10, 5할랄라(1사우디 리얄=100할랄라)가 있다. 동전은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마트 등에서도 거스름돈은 50할랄라의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반올림하거나 계산대 앞에 껌, 사탕 등을 비치해 이에 해당하는 할랄라 액수만큼 가져가게 함으로써 절삭하기도 한다.

의장국 자격으로 2020년 G20 온라인 정상회담 개최 이후 사우디 중앙은행은 20사우디 리얄(Saudi Riyal) 지폐를 발행하기도 했다.

2) 환율

환율은 미화에 페깅(Pegging)된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USD 1 = SAR 3.75이다.

환전방법

1) 환전

미화 환전의 경우 수수료는 별도 청구되지 않으며, 환율을 다소 낮게 적용하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단,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환전할 경우에는 은행계좌가 있어야 하며, 계좌가 없을 경우 환전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미화 이외의 환전 환율은 차이가 크므로 미화를 소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2) 기타

일부 외환은행에서 원화-사우디 리얄 환전이 가능하지만, 환율이 매우 좋지 않다. 사우디는 사우디 리얄-미화 고정환율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차손이 크게 없으므로 미화 소지 및 현지 환전을 추천한다.

신용카드 이용

현재 사우디에는 10개 이상의 상업은행이 있으며, 신용카드 이용 애로사항은 없는 편이다. 호텔, 레스토랑, 카페, 대형마트, 편의점, 병원, 약국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대부분의 국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소규모 로컬 식당 및 슈퍼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일정액의 현금 소지를 추천한다.

사우디 대표 상업은행

National Commercial Bank(SNB)

- NCB가 2021.4.1에 Samba Bank 인수합병

Saudi British Bank(SABB)

Saudi Investment Bank

Al-Inma Bank

Banque Saudi Fransi

Riyadh Bank

Al-Rajhi Bank

나. 교통

교통상황

최근 차량의 증가로 출퇴근길에 교통체증이 매우 심해지고 있으며, 사우디 정부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리야드, 제다, 메카 등 주요 도시에 지하철을 건설 중이다. 리야드의 경우 총 6개 라인, 176km의 지하철이 건설 중이다. 2013년 7월 6개 라인, 총 176km의 메트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프로젝트 규모는 약 7조 3,000억 원이다. 2021년 말부터 현재까지 일부 구간(공항-도심)은 시범 운영을 진행 중이며, 2022년 내 정상운영 계획이다.

버스

시내버스의 경우 리야드 시내에서 25인승 미니 버스를 노선별로 운행하고 있으며, 요금은 3사우디 리알이다. 그러나 배차 간격이 매우 길고 시내 일부 구간에서만 운행해 대중교통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차량 상태가 매우 열악해 저소득층, 제3국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택시

택시 및 UBER 사용이 매우 편리하나, 요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시내에서 근거리 20-30사우디 리알, 원거리는 80~120리알까지 올라서 가격부담이 커졌다. 일반 택시는 미터기 조작이 많고, 영어가 통용되지 않아 UBER 사용을 추천한다. 리야드 택시 기본요금은 5사우디 리알이며, 1km당 2사우디 리알이 추가된다. 대기 비용은 시간당 30사우디 리알이다. UBER 외에 현지 택시 어플리케이션인 Careem을 사용해도 좋다. UBER 및 Careem은 현금 및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다.

다. 통신

핸드폰

사우디텔레콤(STC) 민영화 이후 통신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지역에 따라 전화 신청 후 설치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휴대전화의 경우 공항 및 시내 곳곳에 통신사별 대리점이 있어 쉽게 개통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한국에서 사용하던 기기를 가지고 와서 STC, Mobily 등의 현지 통신사를 방문해 USIM 카드를 구매한 후 장착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통신요금은 STC 기준 선불 요금제(Pre-paid)의 경우 통화 시 초당 1할랄라(1사우디 리알=100할랄라)를 지불하며, 후불 요금제(Post-paid)의 가격과 제공 서비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Pre-paid 지불 방법은 동네 슈퍼마켓이나 대형 마켓에서 판매하는 사와(Sawa)라는 충전카드, 혹은 전표를 구입해 단말기에서 충전카드 일련번호를 누르는 방식으로 요금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국제전화 요금은 비싼 편으로 호텔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할 경우 최고 분당 14사우디 리알(미화 5달러 정도)까지 지불해야 한다.

인터넷(와이파이)

사우디아라비아는 통신기반시설 인프라가 양호하지 않아 인터넷 환경은 한국이나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편이나, 최근 무선 인터넷을 비롯해 3G 및 4G의 도입 등으로 많이 개선된 상황이다. 인터넷 신청은 STC, Mobily, Zain 등 주요 통신회사 대리점에서 가능하다. 무선(Wi-Fi)의 경우 라우터 및 요금제를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SIM카드 구매 후 충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과거 호텔에서도 인터넷 비용을 청구했으나, 최근에는 호텔을 비롯하여 주요 카페, 커피점에서 와이파이(Wi-Fi)를 무료로 제공하는 추세이다. 라우터를 사용하는 무선 인터넷은 휴대 및 신청 방법이 간편하다. 과거 연결이 매우 불안하며 만족할 만한 속도가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많이 개선돼 속도는 서비스 광고보다는 느린 편이나 사용에 큰 불편은 없다. 유선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신청절차 및 설치과정이 복잡하나 연결이 안정적이며 속도도 빠른 편이니 용도에 맞게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터넷 시장에는 국영기업 STC부터 Mobily, Zain, Go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있다.

라. 관광명소

○ 알-마스막 박물관(Al-Masmak Museum)

도시명	리야드
주소	Riyadh- AL Dirah Quarter- South of Imam Turkey bin Abdullah street and East of Imam Turkey bin Abdullah mosque
운영시간	일 - 목 : 08:00 - 21:00 금 : 16:00 - 20:00 토 : 09:00 - 20:00
휴무일	라마단, 이드(성지순례) 기간 중 휴무일 변동, 방문 전 사전 확인 요망
명소소개	압둘아지즈 선왕의 사우디아라비아 건국 관련 역사적 장소

○ 디리야 유적지(Diriyah)

도시명	리야드
주소	리야드 기준 북서쪽 30km 거리
운영시간	항시
휴무일	항시
명소소개	리야드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위치한 디리야(Diriyah) 유적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최초의 수도였으며, 현재 사우디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적 유적지이다. 디리야는 1446년 세워져, 18세기 말에 전성기를 누렸으며, 1818년 파괴되었다. 현재 왕궁터와 모스크, 성벽 등이 남아있으며, 2010년 디리야 일부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복원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복원작업 중으로, 내부 입장은 불가하며 외부에서 외관만 구경가능하다.

○ 킹덤타워(Kingdom Tower)

도시명	리야드
주소	Kingdom Centre, King Fahad Road P.O.Box 230011 Riyadh 11321
운영시간	일 - 수: 9:30 - 12:30, 16:30 - 22:30 목 : 9:30 - 22:30 금: 16:30 - 22:30 목 : 9:30 - 22:30
휴무일	라마단, 이드(성지순례) 기간 중 휴무일 변동, 방문 전 사전 확인 요망

명소소개	킹덤 센터는 리야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랜드마크로써 윗부분이 역포물선 형태의 아치로 장식된 빌딩이다. 병따개와 흡사하게 생겼으나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인들이 머리에 착용하고 다니는 셰마그를 쓴 사우디아라비아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한 압둘 아지즈 왕의 손자인 알 왈리드 왕자가 개최한 건축 공모전을 통해 탄생했으며 호텔, 쇼핑몰, 사무실, 레스토랑,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 쇼핑몰 3층은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특별 공간이며, 사진촬영, 심지어 부인을 동반한 기혼 남성의 출입도 금지된다. 전망대(Sky Bridge) 관람 가격은 성인 1명 기준 63 사우디 리알이다. 타 전망대와는 달리 내부에 카페나 기념품점은 없으며, 기념촬영 포함 약 10분 정도면 둘러볼 수 있다. 킹덤 타워는 오늘날 명실공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 성공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됐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변하는 조명이 설치돼 어두운 밤이 되면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비고	요금 성인 : 63사우디 리알 10살 이하 : 23 사우디 리알 2살 이하 : 무료

<자료원 : 공식 홈페이지>

마. 식당

- 현지식당

◦ 반 타이(Bann Thai Restaurant)

도시명	리야드
전화번호	966-55-919-1106
주소	6901 4446 Al Urubah Road, Umm Al Hamam Al Gharbi, Riyadh 12328
가격	25~50 사우디 리알(USD 8~16)
영업시간	토 - 목 : 11:00 - 23:30 금 : 12:30 - 23:00
휴무일	정해진 휴무일 없음
소개	쌀국수, 퐁양공 등 태국음식 전문점이며, 현지 거주 교민들이 즐겨찾는 식당
비고	구글지도 검색 가능

◦ 가드(GAD Restaurant)

도시명	리야드
전화번호	966-11-464-1212
주소	Prince Sultan Bin Abdulaziz Road, Al Olaya, Riyadh 12311
가격	양갈비 1kg 140 사우디 리알(USD 40)
영업시간	06:00~23:00
휴무일	휴무일 없음
소개	양갈비 전문 식당으로 가격대비 맛이 좋아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비고	구글지도 검색 가능
----	------------

◦ 미라지(Mirage)

도시명	리야드
전화번호	966-11-483-4216
주소	Takhassusi Street, Ar Rahmaniyyah, Riyadh 12342
가격	50~200 사우디 리알(USD 16~64)
영업시간	일 - 목 : 15:00 - 00:00 금 - 토 : 13:30 - 00:00
휴무일	휴무일 없음
소개	도심 소재 중식당
비고	구글지도 검색 가능

〈자료원 : 리야드 무역관 자체조사〉

- 한국식당

◦ 비원(Korean Palace)

도시명	리야드
전화번호	+966-53-473-1284
주소	Takhassusi Street, Near Urouba Road, Riyadh, Saudi Arabia
가격	일반식사 및 찌게류 약 USD 24~30
영업시간	일-목 : 11:30~15:00 / 17:00~23:00 금-토 : 12:30~15:00 / 17:00~23:00
휴무일	휴무일 없음
소개	리야드 내 유일 한식당
비고	구글지도 검색 가능

◦ 진고개(JINGOGAE)

도시명	알코바
전화번호	966-13-894-7542
주소	Al Khobar Al Shamlia, Al Khobar 34429
가격	일반식사 및 찌게류 약 USD 20
영업시간	11:00 - 14:00 17:00 - 22:00

휴무일	휴무일 없음
소개	사우디 동부 알코바 소재 한식당
비고	구글지도 검색 가능

◦ 수라(SURA Restaurant)

도시명	젯다
전화번호	966-12-663-2201
주소	Prince Saud AlFaisal, Ar Rawdah, Jeddah 23432
가격	일반식사 및 찌게류 약 USD 20
영업시간	13:00 - 24:00
휴무일	휴무일 없음
소개	사우디 서부 젯다 소재 한식당
비고	구글지도 검색 가능

<자료원 : 리야드 무역관 자체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웨라톤 담맘(Sheraton Dammam Hotel & Convention Centre)

도시명	담맘
주소	Prince Mohammed Bin Fahd Road, Al Mazruiyah, Dammam 32414
전화번호	+966-13-834-5555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dmmsi-sheraton-dammam-hotel-and-convention-centre/
숙박료	싱글 212 달러, 트윈 212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라마다 담맘(Ramada Dammam Hotel and Suites)

도시명	담맘
주소	Corniche Rd, Al-Hamra, Dammam 32422
전화번호	+966-13-833-3322

홈페이지	https://www.wyndhamhotels.com/hotels/dammam-saudi-arabia?brand_id=RA
숙박료	싱글 61 달러, 트윈 86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담맘 팰리스(Dammam Palace Hotel)

도시명	담맘
주소	King Fahd Road, Al Adamah Al' Adamah, Dammam 32242
전화번호	+966-13-805-6060
홈페이지	http://dammampalacehotel.com/
숙박료	싱글 102 달러, 트윈 113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아이비스 호텔(IBIS Hotel)

도시명	리야드
주소	Olaya St, Al Riyadh
전화번호	+966-11-419-9995
홈페이지	https://www.accorhotels.com/ko/hotel-8100-ibis-riyadh-olaya-street/index.shtml
숙박료	싱글 110 달러, 트윈 125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이그제큐티브 호텔(Executives Hotel)

도시명	리야드
주소	Olaya Main Street
전화번호	+966-11-288-5522
홈페이지	http://www.executives-hotel.com/hotel.php?hotelid=1
숙박료	싱글 113 달러, 트윈 140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셰라톤 리야드 호텔 앤드 타워(Sheraton Riyadh Hotel & Towers)

도시명	리야드
-----	-----

주소	Olaya Junction of King Fahad and King Abdullah Road, P.O. Box 90807, Riyadh 11623 Saudi Arabia
전화번호	+966-11-454-330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
숙박료	싱글 284 달러, 트윈 284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홀리데이 인(Holiday Inn Al Qasr)

도시명	리야드
주소	King Fahd Rd, Olaya District Riyadh 12211
전화번호	+966-11-462-5000
홈페이지	http://holiday-inn-riyadh-qasr.h-rez.com/
숙박료	싱글 126 달러, 트윈 153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코트야드 메리어트 DQ(Courtyard by Marriott Riyadh Diplomatic Quarter)

도시명	리야드
주소	Al-Hada District, Abdullah bin Huzafah Al-Sahmi Street Riyadh 64819
전화번호	+966-11-281-730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ruhab-courtyard-riyadh-diplomatic-quarter/?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
숙박료	싱글 187 달러, 트윈 214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셰라톤 젯다(Sheraton Jeddah Hotel)

도시명	젯다
주소	North Corniche, Ash Shati, Jeddah 21424
전화번호	+966-12-699-2212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jedsi-sheraton-jeddah-hotel/?scid=bb1a189a-fec3-4d19-a255-54ba596febe2
숙박료	싱글 212 달러, 트윈 226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

○ 크라운 플라자 젤다(Crowne Plaza Jeddah)

도시명	젤다
주소	Al Corniche- Al Ma'adi Road, Jeddah 23212
전화번호	+966-12-661-1000
홈페이지	https://www.ihg.com/crowneplaza/hotels/us/en/jeddah/jedsa/hoteldetail?cm_mmc=GoogleMaps-_-CP-_-SA-_-JEDSA
숙박료	싱글 178 달러, 트윈 209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 홀리데이 인 젤다 - Al Salam(Holiday Inn Jeddah - Al Salam)

도시명	젤다
주소	Kilo 2 Al Thaghr, King Khalid Road Jeddah 22331
전화번호	+966-12-631-4000
홈페이지	https://www.ihg.com/holidayinn/hotels/us/en/jeddah/jedal/hoteldetail?cm_mmc=GoogleMaps-_-HI-_-SA-_-JEDAL
숙박료	싱글 143 달러, 트윈 157 달러
비고	* 비용은 성수기 등 시기에 변동 가능

<자료원 : 호텔 홈페이지, KOTRA 리야드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 리야드 하우스(Riyadh House)

도시명	리야드
주소	3280 Sulaiman Ibn Ali Ash Shaikh, Riyadh 12221
전화번호	966-50-424-1529
숙박료	100~120 달러
소개	식사, 세탁, 청소, 공항 픽업 포함
비고	* 비용은 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 홈페이지 없음

○ 명소(Myungso Guest House)

도시명	리야드
주소	Qurtubah, 리야드 13244
전화번호	966-50-069-1497
숙박료	100~120 달러
소개	식사, 세탁, 객실청소 포함
비고	* 비용은 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 홈페이지 없음

○ 로얄텔1(Royaltel 1)

도시명	리야드
주소	6986 Abi Abdullah Al sqalani, Al Olaya, Riyadh 12311 3448
전화번호	966-50-241-0704
숙박료	100~120 달러
소개	식사, 세탁, 객실청소 포함
비고	* 비용은 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 홈페이지 없음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체 조사>

사. 치안

치안상황

사우디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 치안이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예멘 전쟁 악화로 국경지역 및 인근 주요 도시(사우디 남부)와 공항을 여행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시내 중심가의 상점, 쇼핑몰을 제외한 외곽지역에서 만나는 현지인의 경우 영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 및 생활방식이 매우 다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전쟁 중인 예멘 국경 지역은 적색경보(출국권고)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황색경보(여행자제) 지역으로 되어 있다.

사우디 도로는 주요 고속도로라도 가로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운전습관도 매우 거칠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 도로 야간 운전 시 방목 낙타가 도로를 침범해 추돌사고가 다수 발생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반적으로 안전한 편이나 제3국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수 유입되면서 치안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특히, 리야드 바타 지역은 외국인, 특히 제3국 근로자들의 밀집지역으로 야간에는 출입하지 않는 편이 좋으며, 혼자 다니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아시야계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 및 성희롱 등의 범죄가 종종 발생한다. 사복경찰을 사칭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현금카드 등을 조사하면서 현금을 갈취하고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해 경찰서에 가면 아랍어 이외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며 대부분 사우디인의 입장만 듣기 때문에 즉시 대사관에 법적 구제 요청을 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응급상황 발생 시 각 지역 모두 국번 없이 비상연락처에 연락한다.

1) 교통사고

- 교통경찰 호출(교통사고): 993
- 고속도로 안전경찰 호출: 996

2) 여권/지갑 분실

- 여권국 : 992
- 대사관 영사과: +966-11-488-2211(ext 112,126) / (긴급) +966-50-080-1065
- 젓다 총영사관: +966-12-668-1990 / (긴급) +966-55-668-3432

3) 응급전화번호

- 화재신고(소방서) 998
- 경찰서(범죄): 999
- 앰불런스(의료): 997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외국인은 주로 안전, 생활 편의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컴파운드 형태의 외국인 전용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리야드는 약 40개의 컴파운드가 있으며, 2005년 이후 외국기업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며 공급부족으로 임차료가 대폭 상승했다. 2017년까지 매년 평균 15% 인상되다가, 저유가에 따른 외국기업 이탈로 컴파운드 공급이 늘어나며 최근 2년 동안 임차료가 동결 또는 소폭 하락했다.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정부 프로젝트 재개에 따라 외국인 기술자들 대거 유입되면서 컴파운드별 공실률이 줄어들면서 다시 임차료를 인상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입주의 경우 기존 입주자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기 계약을 조건으로 협의하는 경우 어느 정도 임차료를 할인해 주기도 한다. 공급자 중심의 비즈니스 문화이기 때문에 컴파운드는 공개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하지 않아 지인의 소개로 컴파운드 정보를 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지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직접 임차하면 비용이 저렴하지만, 치안, 편의시설 미보유, 주택관리 미비 등으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외국인은 주택을 직접 소유할 수 없으며 임차만 가능하다. 현지 계약 관례상 컴파운드의 경우 최소 1년 단위 계약이 원칙이며, 임차료도 전액 선납해야 한다. 임차료 환불은 불가하며, 환불을 받더라도 최소 1~2개월 임차료를 패널티로 내야 한다. 주택 임차를 위해서는 사우디 거주증(IQAMA) 보유가 필수이다. 부동산 중개비는 계약금의 5% 정도이다.

전화

1) 국내 전화

유선전화(랜드라인)는 STC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통신 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전화 사용방법은 한국과 유사해 동일지 내 전화를 걸 경우에는 지역 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누르며, 시외전화를 할 경우에는 지역 번호를 포함해 번호를 눌러야 한다. 전화요금은 리야드 시내의 경우, 분당 5할랄라(약 15원 정도)이다.

예: (시내전화) 리야드→리야드: 123-4567

(시외전화) 리야드→제다: 012(제다 지역번호)-123-4567

(휴대전화) 지역번호-123-4567

2) 국제전화

사우디 국가번호는 966이며 전화 거는 방법은 다른국가와 동일하다.

예: (한국→리야드) 001(또는 002)-966-11-273-4496(KOTRA 리야드 무역관)

(사우디→한국) 00-82-2-3460-7114(KOTRA 본사)

3) 호텔 전화 요금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 분당 2~3달러로 매우 비싸지만 일반 사무실이나 주택에서는 분당 1달러 수준이다.

전압/플러그

주파수는 60Hz이며 전압은 110V와 220V를 동시 공급하고 있으며 혼용 사용 중이다.

식수

수돗물은 석회질 함유량이 높아 음용을 피하는게 좋으며,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는게 좋다. 양치 후에도 가급적 생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신차의 경우 도시 곳곳에 위치한 딜러샵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할부는 거의 없고, 현금 일시불 조건이 대부분이다. 리스의 경우 신차 구매보다 약 20%가량 가격이 높다.

중고차의 경우 www.expatriates.com, www.haraj.com, www.saudisale.com 등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구할 수 있고 개인 및 딜러 간 거래도 가능하다. 또한, 중고차 시장에서는 차량을 직접 시운전할 수도 있으며, 일정 금액을 흥정할 수도 있다. 리야드의 가장 큰 중고차 거래시장은 리야드 중남부 알-나심(Al-Naseem) 지역의 Haraj Market이며, 대부분의 현지인이 직거래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이 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의 경우 리야드 도심의 움무 알-하맘(Umm Al-Hamam) 지역과 남동부의 알-시나이야(Al-Sinaiyah) 지역이 가장 유명하다. 사우디 정비소 정비사는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상대로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차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아랍어·영어 통역이 가능한 현지인과 함께 가는 것이 좋다. 현지는 정비소와 부속품 판매처가 분리되어 있다. 즉, 정비소는 부품 전문 판매상에서 부품을 구입해 공임을 받고 자동차를 정비하는 시스템이다. 타이어 교체나 간단한 정비, 세차의 경우 주변 주유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차량가격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자동차 제조사의 부재로 다양한 브랜드의 수입차가 판매되고 있다. 각 브랜드의 현지 판매 모델과 가격 수준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드라이버 아라비아 : <https://www.drivearabia.com/carprices/ksa/>

최근 글로벌 차량반도체 수급난으로 사우디에서도 신차 대기가 길어지며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득

사우디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지 면허증을 신규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득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혈액 및 시력 검사증(약 150사우디 리알), 거주증(IQAMA) 원본 및 사본, 여권 사본,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한국 운전면허증 영어 및 아랍어 번역 및 인증(공식업체 진행, 50사우디 리알), 면허 신청서, 여권용 사진, 초록파일(운전면허 시험장 내 판매) 등이 필요하다. 운전면허 신청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신청에 따라 ATM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금액을 사전 납부해야 한다. 금액은 2년 80사우디 리알, 5년 200사우디 리알, 10년 400사우디 리알이다. 한국면허증의 영어, 아랍어 번역 확인증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혈액형 검사증과 시력 검사증은 면허 신청서 목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미리 병원에 가서 운전면허용 시력검사와 혈액 검사를 마친 이후 받은 검사 완료증을 운전면허장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시내에서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은 Takhassusi Street에 위치한 Takhassusi Dallah Driving School이다. 리야드 도심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으며, 시험장 도착 후 정문 왼편의 사무실에서 초록파일을 살 수 있다. 이후 서류구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혈액

및 시력 검사증 제출, 운전 테스트, 최종 서류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 후 운전면허증 신청 건물로 가서 번호표를 받고 차례가 되면 창구에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면허증을 신청하면 약 15분 뒤 신청장 중앙에서 관계자가 호명하며 발급된 면허증을 지급한다. 시험장 직원 대부분은 영어를 못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운전면허 시험장은 항상 붐비며, 서류접수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14시에 근무를 종료하기 때문에 오전 영업 시작시간(7시 30분)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 신청 시 간혹 내무부(MOI) 시스템에 사진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공항 입국심사 시 지문 등록과 얼굴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King Fahad Road에 위치한 여권 관리국(Jawazat)에 방문해 지문등록과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 한국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운전학원에서 1개월 이상 수강해야 하고 기능시험을 봐야 한다. 수강료는 800사우디 리알(213달러) 정도이며, 주중 3~9시에 수업을 듣고 시험을 통과한 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사우디는 2018년 6월 여성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함에 따라 여성운전도 가능해 졌다. 외국인 여성 역시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하며, 초반에는 근로자에 한해 허용했으나 최근에는 가족 초청비자로 방문한 경우에도 발급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 해외에서 운전경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기 테스트는 받아야 한다. 여성 면허 발급 장소는 일반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발급처와 분리되어 있다. 리야드의 경우 공항 근처의 여성 전용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실기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현장에서 발급하고 있다.

단, 차량구입이 아닌 렌트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가능하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Saudi British Bank
 - 주소: P.O.Box 9084, Riyadh 11413, Saudi Arabia
 - 전화: +966-11-405-0677
 - 팩스: +966-11-405-0660
 - 홈페이지: <https://www.sabb.com>
- Arab National Bank
 - 주소: P.O.Box 56921, Riyadh 11564, Saudi Arabia
 - 전화: +966-11-402-9000
 - 팩스: +966-11-402-7747
 - 홈페이지: www.anb.com.sa
- Banque Saudi Fransi
 - 주소: P.O.Box 56006, Riyadh 11554, Saudi Arabia
 - 전화: +966-11-289-9999
 - 팩스: +966-11-404-2311
 - 홈페이지: www.alfransi.com.sa
- Alawwal Bank
 - 주소: P.O.Box 1467, Riyadh 11431, Saudi Arabia
 - 전화: +966-800-124-3332
 - 팩스: +966-11-406-6346
 - 홈페이지: <https://www.alawwalbank.com/en/personal>
- Al-Rajhi Investment and Banking Corporation

- 주소: PO Box 28, Riyadh 11411, Saudi Arabia
- 전화: +966-11-460-0423
- 팩스: +966-11-460-0625
- 홈페이지: www.alrajhibank.com.sa/en/

○ Riyadh Bank

- 주소: P.O.Box 22622 Riyadh 11416, Saudi Arabia
- 전화: +966-11-401-3030
- 팩스: +966-11-404-1255
- 홈페이지: http://www.riyadbank.com/index_en.html

○ The Saudi Investment Bank

- 주소: PO Box 3533, Riyadh 11481, Saudi Arabia
- 전화: +966-11-478-6000
- 팩스: +966-11-477-6781
- 홈페이지: <https://www.saib.com.sa/en>

○ Bank Al-Jazira

- 주소: PO Box 6277, Jeddah 21442, Saudi Arabia
- 전화: +966-12-609-8888
- 팩스: +966-12-609-8881
- 홈페이지: www.baj.com.sa/index.aspx

○ National Commercial Bank

- 주소: PO Box 3555, Jeddah 21481, Saudi Arabia
- 전화: +966-12-646-4999
- 팩스: +966-12-644-6644
- 홈페이지: www.alahli.com

○ Bank AlBilad

- 주소: P.O. Box 140, Riyadh, Al Malaz, Steen Street, Saudi Arabia
- 전화: +966-11-291-8884
- 팩스: +966-11-479-8909
- 홈페이지: www.bankalbilad.com

계좌 개설방법

계좌 개설은 사우디 거주증(IQAMA) 발급 후 가능하다. 계좌 개설 시에는 스폰서(보증인)의 계좌 개설 요청 서한, 여권, 급여증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 사우디 리알 및 달러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계좌 개설 시 직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타 은행 ATM 사용에 대한 수수료가 없으며, 한국인의 경우 외국계 합자은행인 SABB(HSBC)와 Samba Bank(Citi)를 많이 이용하며, 사우디 은행으로는 National Commercial Bank를 많이 이용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Riyadh

도시명	리야드
커리큘럼	초, 중, 고등학교
학비	연간 18,000~20,000달러 (학년별 상이)
홈페이지	http://www.aisr.org

o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Riyadh

도시명	리야드
커리큘럼	3~5세, 5~11세, 11~18세로 구분
학비	연간 15,000~18,000달러 (학년별 상이)
홈페이지	http://www.bisr.com.sa/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체 조사〉

- 현지학교

없음.

마. 병원

o Dr. Sulaiman Al Habib Hospital

도시명	리야드
주소	Riyadh 12344
전화번호	+966-11-283-3333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사우디 최대 종합 병원 홈페이지: https://hmg.com/en/ (해외전용url - 국내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 있음)

o Dallah Hospital

도시명	리야드
주소	Fas, An Nakheel, Riyadh 12381
전화번호	+966-9200-12222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http://www.dallah-hospital.com/English/Home
----	---

○ Saudi German Hospital

도시명	리야드
주소	King Fahad Branch Road, As Sahafah Riyadh 13321
전화번호	+966-11-268-5555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홈페이지: https://www.sghgroup.com.sa/en/about

〈자료원 : 각 병원 홈페이지, KOTRA 리야드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Granada Center

도시명	리야드
주소	Exit 9, Ash Shuhada District Eastern Ring Branch Rd Riyadh 13216
홈페이지	https://twitter.com/Granadamallsa
비고	종합 쇼핑몰

○ 파노라마 몰(Panorama Mall)

도시명	리야드
주소	Takhassusi St, Al Mathar Ash Shamali, Riyadh 12332
홈페이지	http://www.panorama-mall.com/
비고	실내 놀이공원이 있는 리야드내 가장 대중적인 쇼핑몰

○ 리야드 갤러리(Riyadh Gallery)

도시명	리야드
주소	Riyadh 12262
홈페이지	http://www.riyadhgalleries.com/ar/
비고	사우디 대중 쇼핑몰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체 조사〉

- 식품점

o 까르푸(Carrefour)

도시명	리야드
주소	Exit 9, Ash Shuhada District Eastern Ring Branch Rd Riyadh 13216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공산품
비고	사우디 현지 대형마트로 리야드 곳곳 소재

o 타미미(Tamimi Market)

도시명	리야드
주소	King Fahd Rd, Al Olaya Riyadh 12313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공산품
비고	사우디 현지 대형마트로 리야드 곳곳 소재

o Aljazera Markets

도시명	리야드
주소	As Sulimaniyah, Riyadh 12241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공산품
비고	사우디 현지 대형마트로 리야드 곳곳 소재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o Fitlee 피트니스클럽

도시명	리야드
주소	Muhammad Ibn Abdulaziz Ad Daghaythir from King Fahd street Riyadh 13521 11534
홈페이지	http://fitlee.com/en/#home
소개	개인 및 단체 트레이닝 제공 등으로 리야드 내 평판 좋은 피트니스클럽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	-----	-----

사우디 건국기념일	2023-02-23	2023-02-22
이드 연휴	2023-04-27	2023-04-23
신년휴무	2023-01-01	2023-01-01
사우디 국경일	2023-09-24	2023-09-24
하지 연휴	2023-06-30	2023-06-28

〈자료원 : KOTRA 리야드 무역관〉

10. KOTRA 무역관 안내

○ 리야드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KOTRA, Commercial Section,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105 Legend Tower, Tahlia Street North, King Fahd Road, P.O.Box 220297, Riyadh 11311 Kingdom of Saudi Arabia
- 전화번호: +966-11-273-4496
- 팩스 : +966-11-273-4750
- 이메일: kotrariy@kotra.org.sa
- 홈페이지: <https://www.kotra.or.kr/kp/subList/20000005998/ovrssKbc/selectOvrssKbcDetail.do?deptCd=9708>

공항-무역관 이동

리야드 무역관은 공항에서 약 45km 떨어져 있으며, 리야드 중심 도로인 King Fahd Branch Road에 위치하고 있다. 무역관 입주 건물 이름은 Legend Tower이며, 1층 105호 및 102호에 위치하고 있다.

사우디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리야드 공항-무역관 이동은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리야드 공항의 정식 명칭은 King Khalid International Airport이다. 택시 비용은 80~100 사우디 리알(약 20달러~27달러) 정도이다. 현지 택시는 미터기 조작, 우회도로 이용 등의 속임수가 많아 Uber나 Careem(현지 택시앱) 사용을 추천한다. 택시를 이용해 무역관을 방문할 경우, 구글에서 KOTRA Riyadh를 검색하여 기사에게 보여주면 된다.

무역관 건물 Ground Floor에는 Banque Saudi Fransi가 있으며, 커다란 초록색 간판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소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 무역관 건물명은 Legend Tower이지만 기사에게 건물명을 말할 경우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Google에서 Legend Tower Riyadh 검색을 통한 택시 이용도 가능하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